

이 과제는 2019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위탁사업에 의한 것임

어촌뉴딜 조성의 고용효과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9년 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이영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최종일 (조선대학교 교수)

양현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목 차

요 약	i
제1장 어촌뉴딜사업 소개	1
제1절 어촌뉴딜사업 개요	1
1. 사업 배경	1
2. 사업 목적	2
3. 사업 대상	2
제2절 어촌뉴딜사업 내용	2
1. 사업 추진방향	2
2. 사업 추진전략	6
제3절 어촌뉴딜 2019년 선정 70개 사업 분석	15
1. 사업 분류체계	15
2. 사업분류별 사업 수 및 사업비	17
제4절 어촌뉴딜사업 기대효과	21
제2장 어촌 및 수산업분야 노동시장 분석	23
제1절 지표별 현황	23
1. 어촌 현황	23
2. 어가인구와 어가 수	25
3. 어촌 소득	30
4. 기타	31
제2절 수산업분야 노동시장	33
제3장 양적 고용효과 분석	38
제1절 어촌뉴딜 300사업의 고용연계성	38
1. 어촌뉴딜 300사업의 목표	38

2. 어촌뉴딜 300사업의 고용연계성	40
3. 고용영향평가의 연구방향	41
제2절 재정지출로 인한 간접고용효과 규모 추정	42
1. 분석 개요	42
2.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의 간접고용효과 추정	42
제3절 어촌뉴딜사업 조성 후 정책효과(DID 분석)	47
1.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어촌공동체 활성화 전망 시나리오	47
2. 환경적 요인 도출	48
3. 시나리오의 핵심축 선정	50
4. 어촌뉴딜 300사업 조성 후 고용효과 추정(DID 분석)	56
5. 분석 결과	63
제4장 어촌뉴딜사업의 질적 고용효과 분석	74
제1절 실태조사 개요	74
1. 조사의 개요	74
2. 조사 대상 및 방법	75
제2절 실태조사 결과	76
1. 일반 현황	76
2. 인력 및 고용 현황	82
3. 고용여건	86
4. 정부 어촌지원사업 참여	87
5. 어촌뉴딜사업 참여와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91
6. 어촌뉴딜사업 추진주체	94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0
제1절 고용효과 종합	100
1. 2019년 70개소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고용효과	100
2. 70개소 어촌뉴딜사업 완료 후 2019~2023년 고용효과	10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04
1.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	105
2.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109
3. 사업평가	112
 참고문헌	 116
[부록] 지역공동체사업 사례 분석	117
실태조사 조사표	135

표 목 차

〈표 1- 1〉 정부의 어촌·어항 관련 국정과제	3
〈표 1- 2〉 어촌뉴딜 유형별 사업내용	8
〈표 1- 3〉 어촌뉴딜 주요 사업내용	9
〈표 1- 4〉 어촌뉴딜 70개 사업 분류체계	16
〈표 1- 5〉 대분류별 사업비	17
〈표 1- 6〉 중분류별 사업비	18
〈표 1- 7〉 소분류별 사업비	19
〈표 1- 8〉 사업유형별 사업비	21
〈표 2- 1〉 어촌의 행정구역별 현황	24
〈표 2- 2〉 국내 어가인구	25
〈표 2- 3〉 어가 및 어가인구(2014~2018년)	26
〈표 2- 4〉 연령별 어가인구(2017~2018년)	27
〈표 2- 5〉 어가인구의 고령인구 비율(2017~2018년)	28
〈표 2- 6〉 어가 가구 현황	29
〈표 2- 7〉 가구원 수별 어가(2017~2018년)	30
〈표 2- 8〉 전국 어가 소득 현황	31
〈표 2- 9〉 해양수산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34
〈표 2-10〉 해양수산분야 연령별 종사자 수	35
〈표 2-11〉 해양수산분야 분야별 급여	37
〈표 3- 1〉 산업연관표 산업 재분류 결과	43
〈표 3- 2〉 산업별 투입금액	45
〈표 3- 3〉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의 간접고용효과	45
〈표 3- 4〉 영향요인들의 영향력과 불확실성 정도	51
〈표 3- 5〉 사업유형별 지원 내용	59
〈표 3- 6〉 추정모형 변수	62
〈표 3- 7〉 참여어촌과 비참여어촌별 요약통계	64

〈표 3- 8〉 마을특화개발+권역거점개발사업의 정책효과 추정 결과	65
〈표 3- 9〉 역량강화사업의 정책효과 추정 결과	66
〈표 3-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의 정책효과 추정 결과	67
〈표 3-11〉 어촌뉴딜사업 수혜어촌의 소득증가액 추정	68
〈표 3-12〉 소비를 통한 추가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평균 소득-소비비율 0.923)	70
〈표 3-13〉 소비를 통한 추가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평균 소득-소비비율 0.824)	71
〈표 4- 1〉 조사 모집단 및 응답 결과	76
〈표 4- 2〉 마을기업 설립 여부	77
〈표 4- 3〉 연간 총 이용객(평균)	78
〈표 4- 4〉 연간 총 매출액(평균)	79
〈표 4- 5〉 향후 3년간 지역 연평균 이용객 증가 예상수준	81
〈표 4- 6〉 향후 3년간 지역 연평균 어업 외 소득 증가 예상수준	82
〈표 4- 7〉 연령별 인구 현황 및 사업참여 현황	82
〈표 4- 8〉 운영사업별 투입인력	83
〈표 4- 9〉 운영 중인 사업별 투입인력	85
〈표 4-10〉 사업운영 관련 신규 전문인력 확보	85
〈표 4-11〉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	86
〈표 4-12〉 투입인력 학력수준	87
〈표 4-13〉 투입인력의 구성 및 고용형태	87
〈표 4-14〉 고용여건	87
〈표 4-15〉 어촌지원사업 참여 여부	88
〈표 4-16〉 어촌지원사업 사업비(29개 마을 기준)	88
〈표 4-17〉 어촌지원사업 참여목적	89
〈표 4-18〉 어촌지원사업 효과	89
〈표 4-19〉 어촌지원사업 애로사항	90
〈표 4-20〉 어촌지원사업 실패요인	90
〈표 4-21〉 예상 신규 고용인력 수(합계)	92
〈표 4-22〉 고용환경 변화	93

〈표 4-23〉 지역(협의체)의 어촌활성화사업 운영 여부	95
〈표 4-24〉 어촌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95
〈표 4-25〉 세부사업의 실행가능성 평가(평균)	96
〈표 4-26〉 고용 증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분야	97
〈표 4-27〉 사업운영 실천전략 준비 정도	98
〈표 4-28〉 어촌뉴딜사업 운영주체 특성 부합 정도	99
〈표 5- 1〉 어촌뉴딜사업 고용효과(2019년 70개소 기준)	100
〈표 5- 2〉 2019~2023년 어촌뉴딜사업 고용효과	103
〈표 5- 3〉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107
〈표 5- 4〉 어촌뉴딜사업의 선정 평가지표(제안)	113
〈표 5- 5〉 어촌뉴딜사업의 추적조사(제안)	115

그림목차

[그림 1-1] 어촌뉴딜 300사업 비전·목표 및 추진방안	6
[그림 1-2] 거버넌스의 3개 섹터 구조	13
[그림 1-3] 어촌뉴딜 300사업 프로세스	15
[그림 1-4] 소분류별 사업비	20
[그림 2-1] 어촌의 행정구역별 현황	24
[그림 2-2] 시·도·별 어가인구 비중	26
[그림 2-3] 연도별 어가 추이(2014~2018년)	27
[그림 2-4] 전국 어가 소득 현황	31
[그림 3-1] 어촌뉴딜사업 기대효과	39
[그림 3-2] 조성단계별 고용효과 경로	41
[그림 3-3] 어촌공동체 활성화 영향 요인	49
[그림 3-4] 어촌뉴딜사업 시나리오	54
[그림 3-5] 소득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FLOW	58
[그림 4-1] 마을기업 설립 여부	76
[그림 4-2] 연령별 사업참여 비중	83
[그림 4-3] 고용환경 변화	94
[그림 5-1] 어촌뉴딜사업 고용효과(2019년 70개소 기준)	102
[그림 5-2] 어촌뉴딜사업 고용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105
[그림 5-3] 어촌뉴딜사업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	106
[그림 5-4] 어촌뉴딜사업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110
[그림 5-5] 어촌뉴딜사업 사업평가	112

요 약

1.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해양관광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인프라 현대화 등을 통해 어촌을 혁신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
 -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화·경제·환경적 활력을 도모
- 어촌·어항 통합개발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
 - 어민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어항을 중심으로 기초 인프라 및 편의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어항 및 배후마을의 기반정비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생활환경 개선의지를 높이고 어촌의 중요한 자산인 어메니티(amenity) 가치를 제고하여 귀어 인구의 어촌 정착 및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마을로서의 기반 확보
- 어촌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어촌마을 조성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
 - 마을이 보유한 이색적인 어촌자원들을 적극 활용해, 어촌 휴양·관광 분야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방문객 및 관광객 증가
 - 어촌휴양 특화마을, 관광 특화마을 조성 등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어업 외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력효과 제고
-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발전 자생기반 확보

-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추진 →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증가를 통해 주민들과의 교류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 기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자체 조직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각종 교육, 컨설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배양하고, 지속적·자생적으로 마을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립기반 확보
- 어업활동 외 새로운 수익원 창출로 젊은 층 인구 유입 토대 마련
-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운영, 체험진행, 민박사업 등으로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기대
 - 귀어인과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여 경제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해양레저 관련 청년창업으로 젊은 층 인구 유인

□ 평가 대상

- 사업대상 : 국가 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마을
 - 사업대상 어항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
 - 배후어촌마을 : 사업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 마을 및 구역 설정

2. 평가 방법

□ 양적 평가 방법

-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로 인한 간접고용효과 규모 추정
 - 어촌뉴딜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지출로 인한 고용효과로서, 어촌뉴딜사업 중 어항인프라, 관광인프라, 생활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출한 비용이 해당 산업 및 연관 산업에 투입되어 생산, 고용,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를 말함.

-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의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함으로써 간접고용 파급효과를 분석함.

○ 어촌뉴딜사업 조성 후 고용효과 추정(DID 분석)

- 시나리오 A, B, C를 설정한 후 비교 → 정책효과 분석
- 시나리오 A와 B를 비교하는 DID분석을 통해 ‘어촌관광인프라 지원’의 정책효과 도출
- 시나리오 B와 C를 비교하는 DID분석을 통해 ‘어촌관광인프라 지원 + 지역역량 강화 지원’의 정책효과 도출

□ 질적 평가 방법

○ 어촌뉴딜사업의 질적고용 효과분석

- 어촌뉴딜사업 관련 고용실태 파악 및 인력육성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인터뷰를 활용
- 실태조사는 어촌뉴딜사업의 추진주체인 어촌뉴딜 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며, 협의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촌계 계장 혹은 해당마을 이장을 응답자로 설정함.
- 인터뷰는 어촌뉴딜사업 추진주체, 지자체공무원, 전문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 계량적 고용효과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이고 정성적인 고용효과 및 고용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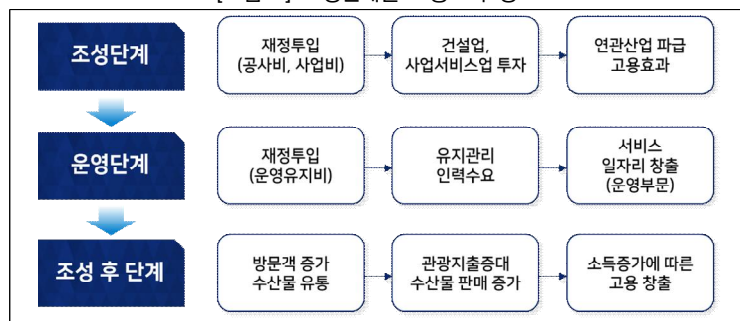
3. 평가 결과

□ 일자리창출 경로

- 어촌뉴딜 조성사업으로 인해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① 어항 및 관광인프라 정비 관련 재정투입 → 건설업과 건설업 관련 후방산업의 직간접 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 발생
- ② 어촌뉴딜사업의 조성이 완료된 후, 어촌지역별 사업이 본격 가동 → 어촌뉴딜사업 시행으로 인해 시설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인력 고용(직접고용)
- ③ 어촌뉴딜사업으로 인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 어촌 방문객 증가 및 수산물 생산·판매 증가 → 어가소득 증가 → 가계소비 증가의 파급효과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킴.

[그림 1] 조성단계별 고용효과 경로



- 어촌뉴딜사업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영향 경로(①의 경우)
 - 건설비, 사업비 증가 →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수요 증대 → 해당산업 또는 기타 연관산업의 중간재 수요 증가 → 파급과정을 거쳐 국민경제의 생산 및 고용 증가(고용유발)
- 어촌뉴딜사업 운영단계의 고용효과(②의 경우)
 - 어항 관련 인프라시설, 휴게시설, 체험장, 낚시터 운영인력, 특산물 판매장 운영인력, 숙박시설 및 캠핑장 운영인력, 해양레포츠시설 운영인력 등 어촌뉴딜사업 시행으로 인해 유지관리 인력 수요가 발생 → 운영기관 또는 위탁운영기관의 직접고용이 증대됨.
- 어촌뉴딜사업 조성 후 고용파급효과 경로(③의 경우)
 - 방문객 등의 지출액 증대, 수산업 생산 증대 → 해당지역 어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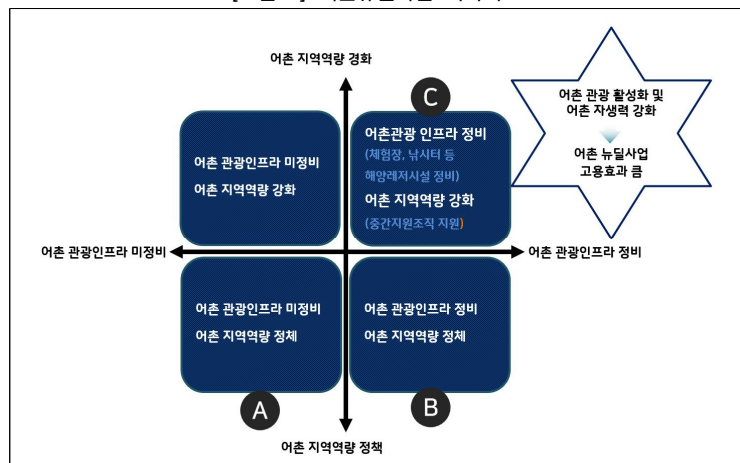
증대 → 가계소비 증가 → 산업별 소비지출 증가액의 파급효과를 거쳐 국민경제의 생산 및 고용이 증가함.

□ 시나리오 설정

○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어촌공동체 활성화 전망 시나리오

- 어촌뉴딜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 도입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어촌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어촌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10개의 요인 중 불확실성이 크고 영향력이 높은 요인을 핵심축으로 선정
- 시나리오의 핵심축으로 ‘어촌관광인프라 정비’와 ‘어촌지역 역량 강화’를 설정함.

[그림 2] 어촌뉴딜사업 시나리오



○ 시나리오 A: 어촌 관광인프라 미정비 + 어촌지역역량 정책

- 어촌지역역량 수준 정책 → 인프라 정비가 안 되고, 사업역량이 미약하여 어촌관광객 수 소폭증가를 통한 소득증대 및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없음.

○ 시나리오 B: 어촌 관광인프라 정비(어촌뉴딜사업 추진) + 어촌지역역량 정체

- 어촌지역역량 강화 정체 → 물리적인 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사업운영역량이 미약하여 어촌관광객 수 대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소폭의 소득증대).

○ 시나리오 C: 어촌 관광인프라 정비(어촌뉴딜사업 추진) + 어촌지역역량 강화

- 중간지원조직의 효과적인 지원으로 어촌의 지역역량 수준 강화 → 어촌관광객 수의 대폭 증가, 6차 산업화로 큰 폭의 소득증대 및 고용증대

○ 시나리오 A, B, C를 비교하는 DID분석 수행

- 시나리오 A와 B를 비교하는 DID분석을 통해 ‘어촌관광인프라 지원’의 정책효과 도출
- 시나리오 B와 C를 비교하는 DID분석을 통해 ‘어촌관광인프라 지원 + 지역역량 강화 지원’의 정책효과 도출

□ 고용의 양

○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로 인한 간접고용효과 규모

-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액) 어촌뉴딜사업의 재정지출액을 분류하기 위해, 70개 어촌 대상 어촌뉴딜사업의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내용에 맞는 산업으로 분류함.
- 2019년도 70개 어촌에 대한 재정지출액은 2019~2020년까지 시행되는 어촌뉴딜사업의 지출액임. 대부분 사업기간이 1년, 1.5년, 2년이며, 1.5년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 타부처 연계사업은 제외하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모두 합하여 8,024.3억 원이 투입됨.
- 전체 투입액 중 건설이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경영지

원, 교육 및 컨설팅과 관련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3.1%, 어촌 뉴딜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협회 및 단체가 3.0%를 차지함.

-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의 간접고용효과) 어촌뉴딜사업 시행으로 인해 1조 6,09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산출량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산출량 증가를 위해 투입된 피용자 수와 취업자 수는 각각 6,714명과 9,143명으로 나타남.

○ 어촌뉴딜 300사업 조성 후 고용효과 추정(DID 분석)

- (DID 모형 추정 결과) 일반농산어촌에 참여(관광 관련 인프라 정비 또는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모든 어촌: 시나리오 C)한 어촌이 참여하지 않는 어촌(시나리오 A)에 비해, 소득이 9.757% 증가함.
-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관광 인프라 정비와 연관이 깊은 마을단위 특화사업 개발, 권역거점 개발사업에 참여한 어촌(시나리오 B)은 참여하지 않은 어촌에 비해 소득이 8.199% 증가함.
-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70개 어촌마을이 속하는 읍면동의 총 소득은 7,976.8억 원. 총소득 7976.8억 원의 9.757% 증가분은 778.3억 원, 8.199% 증가분은 654.0억 원.
- (소비증가에 따른 고용파급효과) 어촌뉴딜사업으로 인한 어촌의 소득증가가 소비활동으로 이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추가 생산유발효과는 960억~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됨.
- 소득증가로 인해 연간 433~583명의 고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연간 683~919명의 추가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용의 질

○ 어촌뉴딜사업의 질적고용효과 분석

- 어촌뉴딜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조사는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된 70개 지역의 어촌뉴딜협의체의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 및 변화, 어촌뉴딜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으며, 60개의

응답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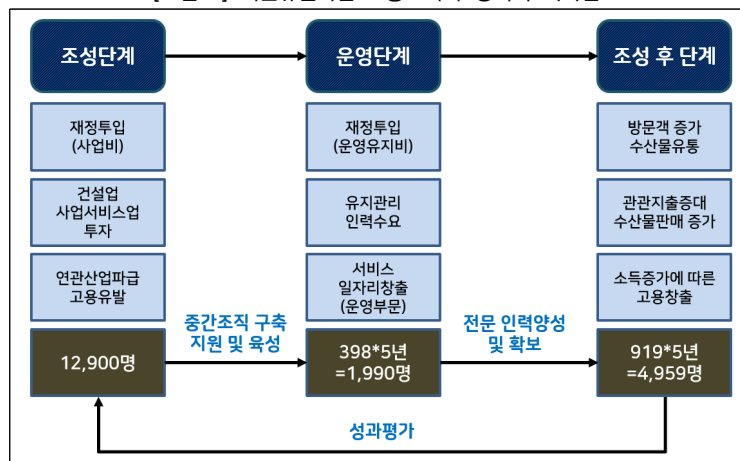
- (일반 현황) 마을기업 설립은 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영리목적의 사업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임. 마을기업 설립 여부는 설립 20개(33.3%), 미설립 40개(66.7%)로 나타남.
- 마을기업이 설립된 마을이 미설립 마을보다 이용객을 더 많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남.
- 마을기업의 주요활동 중 ‘수산물 판매시설 운영’에 대한 이용객 증가를 예상하는 마을이 가장 많음.
- (인력 및 고용 현황) 60개 마을은 총 2,245명이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174명으로 7.8% 수준으로 집계됨.
- 연령별 사업참여 비중은 60세 이상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60개 마을은 총 118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급여가 있는 고용자는 16명, 평균 월급여는 207.6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 (고용여건) 60개 마을 사업운영에 투입된 인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졸 이하가 147명으로 84.5%를 차지하고 있음.
- 임시일용직이 상용직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적임.
- (정부 어촌지원사업 참여) 60개 마을 중 29개 마을이 참여한 경험에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정부 어촌지원사업에 참여한 29개 마을의 3년간 총 수혜금액은 1,186억 원 규모이며 평균 15.1억 원임.
- 기존 어촌지원사업의 애로사항은 ‘현장의견 반영 미흡’이 26.4%로 가장 높고, ‘법규제 제약 등 관련규제’, ‘부실한 지원혜택’이 각각 20.8%, 20.8%로 나타남.
- 기존 어촌지원사업의 실패요인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검토 부족’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어촌뉴딜사업 참여와 고용개선효과) 어촌뉴딜사업 수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신규 고용인력 수(60개 마을 기준)는 전체 신규 채용인력 389명임(실태조사 결과).

4. 정책제언

- 어촌뉴딜사업은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소득증대 및 고용 창출·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대안이 필요
 -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 사업운영주체 역량 강화,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육성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어촌뉴딜사업 참여어촌의 절반가량이 신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답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진화를 고려한 인력양성 노력 필요

[그림 3] 어촌뉴딜사업 고용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조성단계 9,143명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운영단계 398명 : 어촌뉴딜사업 실태조사의 운영단계 고용인력 응답결과
 조성 후 단계 919명 : DID분석을 활용한 소비증가에 따른 고용파급효과

- (성과평가) 어촌뉴딜사업 선정 시, ①선정단계에서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이행 가능성이 평가될 수 있는 평가지표 마련, ②연차별 고용영향평가, ③추적조사 필요

○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

- (중간조직 구축 지원) 중간조직 구축 지원은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성공요인이며,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구축 지원이 필요
- 니치난초 사례 : 경영지원조직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창업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와 전문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3년간 협의체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협의체가 후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중간조직 육성) 해양수산부형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CB : Community Business) 관련 정책은 직접지원방식이지만, 점차적으로 간접지원형태로 전환되어야 함.
- 특히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나 정보제공, 컨설팅, 자치단체 우선구매 등의 방식을 통해 자립적 운영과 경영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광역권별로 설치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조직과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 기획연구가 필요함.

○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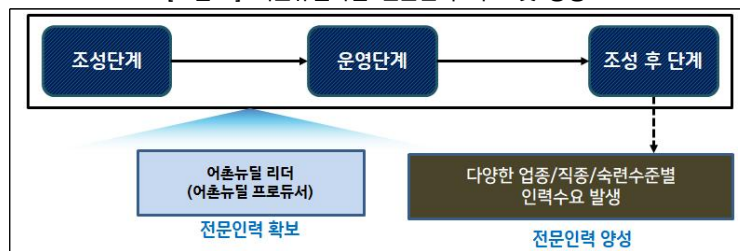
- (전문인력 확보) 어촌뉴딜사업 참여 어촌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그림 4] 어촌뉴딜사업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



- 어촌뉴딜사업은 리더십과 조직운영, 종사원 교육 등이 필요하며, 어촌공동체사업의 '지역리더' 육성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전문인력 양성) 구성 후 단계에서 고용유발효과의 단계별 고용창출효과가 실현되면, 다양한 업종·직종·숙련수준별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고용창출 분야의 진화를 고려한 인력양성 노력이 정책적으로 필요함.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용창출 분야는 지식서비스업으로 진화하도록 지원
- 어촌뉴딜 300개소에 대한 인력수급 실태점검(어가구성, 인구구성, 개인별 직종 등)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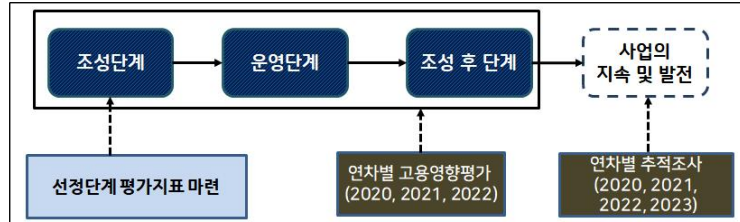
[그림 5] 어촌뉴딜사업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사업평가

- **(선정단계 평가지표 마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이행 가능성을 평가
- 어촌뉴딜사업 선정 시, 선정단계에서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이행 가능성이 평가될 수 있는 평가지표 마련
- 어촌뉴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 있어서 수익창출계획, 지역자원활용계획, 수익활용계획, 주민고용계획이 명시되어야 함.
- **(연차별 고용영향평가)** 300개소 어촌뉴딜사업은 2020, 2021, 2022년 매년 수행될 예정이며, 각 시기별로 고용영향평가를 진행
- 70개소 어촌뉴딜사업을 바탕으로 중간조직의 역할 강화와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300개소가 확정되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연차별 추적조사)** 300개소 어촌뉴딜사업이 완성된 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충분한 고용효과가 발생했는지 등 추적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과제를 발굴
- 70개소 어촌뉴딜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어촌뉴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나머지 230개소 조성단계 혹은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6] 여촌뉴딜사업 사업평가



제1장

어촌뉴딜사업 소개

제1절 어촌뉴딜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 해양관광 수요 증가 및 잠재력 발현을 위한 개발·관리가 미흡
- 해양관광은 최근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주목
- 어촌은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이를 발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적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특히 배후어촌마을의 개발은 어항과 유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나 자원부족과 우선순위에 밀려 어항시설(인프라 시설)에 비해 개발정도가 매우 낮음.
 - 국가어항을 제외한 지자체 관리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개발·관리가 미비함.

2. 사업 목적

- 해양관광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인프라 현대화 등을 통해 어촌을 혁신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
-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화·경제·환경적 활력을 도모

3. 사업 대상

- 사업대상 :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 어촌마을
- 사업대상 어항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 배후어촌마을 : 사업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 마을 및 사업대상 구역 설정

제2절 어촌뉴딜사업 내용

1. 사업 추진방향

가. 어촌·어항 관련 현 국정과제 및 정책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어촌·어항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과제는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및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있음.
- 이러한 과제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의 국정전략에 포함되어 있음.

- 세부 실천과제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여객 서비스체계 구축, 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어업 경영여건 개선과 어촌 활력 제고임.

- 국정과제 내용은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등 기항지 인프라 확충, 어업인의 소득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 수산물 안전·안정적인 식량수급 등임.
- 어촌뉴딜사업의 정책방향 역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어촌·어항정책의 내용을 큰 틀에서 유지하여 수립하고자 함.

〈표 1-1〉 정부의 어촌·어항 관련 국정과제

국정전략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여객 서비스 체계 구축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어업 경영여건 개선과 어촌 활력 제고

자료 : 해양수산부(2018),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

□ [국정과제 1]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과제목표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개선 추진

○ 과제내용

- (해양영토 수호) 2018년부터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 확충
- (섬 관리 강화) 20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하여 생필품 운송지원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을 매년 10%씩 확대
- (해양안전 강화) 2018년부터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시행, 20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 현대화 및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개선

○ 기대효과

- 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립, 노후여객선 비율을 15%(2017년 29%)까지 감축

□ [국정과제 2]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과제목표

- 지역 맞춤형·체계적 지역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다움을 보전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산어촌 조성
- 교통·의료·주거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어디에서나 기초생활수준(National Minimum) 충족
- 농어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어촌형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으로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 과제내용

-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경제적 모델 정립

○ 기대효과

- 2022년 농산어촌 관광방문객 1,350만 명 유치(2016년 1,000만 명)
- 2022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 명까지 확대(2016년 1,800만 명)

□ [국정과제 3]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과제목표

-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
- 해양공간 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 과제내용

- (우리바다 되살리기) 2018년 휴어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 톤 이상 유지
-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20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0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022년 양식 생산량 230만 톤 달성

-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2017년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하여 2022년 180개소 등록
- (해양공간 통합관리) 2017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2018년 남해안부터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전 해역을 통합 관리

○ 기대효과

-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 톤 회복 및 양식업 생산량 230만 톤 달성, 해양공간(44만km²)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체계 확립

나. 어촌뉴딜정책 추진방향

- 어촌뉴딜 300사업의 비전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어촌 구현'으로 설정
- 정책목표는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으로 설정
- 어촌뉴딜 300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 확립, 단계별 사업 추진, 법·제도 정비를 통해 우선 30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그림 1-1] 어촌뉴딜 300사업 비전·목표 및 추진방안



자료 : 해양수산부(2018),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

2. 사업 추진전략

가. 추진전략

1) 어촌·어항 통합개발

□ 어촌·어항 개발체계

○ 기존 어촌지역의 개발은 어항, 배후어촌마을, 어장 분야 사업이 분절적

으로 추진되어 상승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행 어촌(마을)과 어항분야의 개발사업은 시행주체, 사업의 공간적 범위, 예산체계, 지원범위 등이 상이하여 통합개발의 추진이 어려움

- 특히 중앙정부에서 개발하는 국가 어항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기능 중심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이나 배후어촌마을은 특화 어항과 연계한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 어항과 인접한 배후의 어촌마을은 상호 보완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상호 연계, 기능보완 등의 통합개발을 통한 시너지 창출 필요

□ 통합개발체계 구축

- 어촌뉴딜사업은 대상 어항 및 이와 인접한 배후어촌마을 등 주변지역을 포함한 통합개발 추진을 통해 어촌지역 개발사업의 상승효과를 제고

- 계획 수립 시점에서 어촌·어항 통합 경관·환경 개선을 전제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입지여건, 전통·문화,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개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어항과 배후어촌마을의 구성요소들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 어촌지역에 대한 경관적·생태적·문화적 가치 창출을 도모함.

2)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별 개발

- 어항은 어촌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최근 다양한 국민 수요에 맞춰 수산업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관광, 레저, 상업, 유통, 문화, 휴양 등 다양한 기능을 요구받고 있음.

- 어촌(마을)은 어항의 배후에 위치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있는 공간이며 다양한 어촌문화 및 유·무형의 자원이 존재함.

- 기존 지역개발정책은 주로 낙후지역에 대한 개선 및 기반 확충 위주였으나, 최근 지역별 차별화를 위한 해당 지역만의 특화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 증대

- 따라서 어촌뉴딜사업은 기존의 어촌·어항이 별개의 공간이라는 인식에

서 벗어나 통합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여 종합적이며 각 대상지별 특성이 반영된 유형별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3)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추진

- 어촌지역에 있어서 어촌뉴딜사업과 관련된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및 협업과제 발굴을 통한 집중·투자 관리를 추진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는 어항 중심의 인프라 정비, 인접한 배후어촌마을과 어항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특화사업, 어촌·어항 통합 정비,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
 - 어촌지역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 의료·복지·문화 사업, 지역관광 개발사업 등은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가 필요함.

나. 세부 실천과제

□ 사업의 유형

- 어촌뉴딜 300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어항과 배후어촌마을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사업메뉴를 융·복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표 1-2〉 어촌뉴딜 유형별 사업내용

구분	주요 사업내용
해양레저형	• 소규모 마리나,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등의 해양레저 및 어촌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해양레저 활동 중심의 어촌·어항 조성
국민휴양형	• 소규모 어항과 배후어촌마을의 통합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개발을 통한 휴양·힐링 중심의 어촌·어항 조성
수산특화형	• 어항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불편, 인구유출 등 활력을 상실한 어촌에 대한 재생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재생기반형	• 어촌의 기반산업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및 기능시설 정비, 이와 연계된 배후어촌마을 정비를 통해 수산 중심의 어촌·어항 조성

자료 : 해양수산부(2018),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

□ 사업의 내용

- 어촌뉴딜 300사업은 네 가지 사업유형을 토대로 공통사업, 유형별 특화사업, 타부처 연계사업으로 구분됨.

〈표 1-3〉 어촌뉴딜 주요 사업내용

구분	주요 사업내용
공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밀착형 SOC 정비를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 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경관개선, 친수시설 설치 등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 국민휴양, 수산특화, 재생기반형에 어울리는 사업 발굴
타 부처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개발 및 시너지효과를 위해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

자료 : 해양수산부(2018),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

1) 공통사업

- 접안시설 보강사업
 - 접안시설 확충 : 주변 관광객들을 사업대상지로 유인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여객선 접안시설 조성 및 개축
 - 경사식 선착장 정비 : 소형선 수리 및 차도선 접안을 위한 경사식 선착장 설치 및 개축
 - 물양장 정비 : 노후된 방층재 교체 및 추가설치, 모서리 보호공 보수, 상치 보강 등
- 안전시설 설치사업
 - 안전난간, 차막이, 구난사다리, CCTV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
- 어항구역 경관 개선사업
 - 어구·어망 보관창고 설치 : 어구·어망의 손상을 방지하고 깨끗한 어항환경 조성을 위한 보관창고 설치
 - 어구 보수·건조장 설치 : 어구·어망 건조 후 보수하는 공간을 설치하여 쾌적한 어항공간 조성
 - 경관조명 설치 : 야간조명 설치로 관광기능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 어항 친수시설 설치사업
 - 어부림 조성 : 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물가에 조성하며, 마을의 주택과 농작물을 풍해에서 보호하는 역할도 겸함
 - 휴식공간 설치 : 이용객들의 휴식과 조망을 위한 편의시설(정자, 파고라, 벤치, 친수데크, 경사 진입로 등) 설치
- 여객 편의시설 설치사업
 - 대합실, 공동화장실 등 어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신설 및 개축
- 어촌뉴딜 협의체 운영사업
 - 교육지원사업 : 어업 생산물 관련 전문교육, 재해재난 대비 훈련 교육, 지역리더 양성 교육,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 등
 - 특화개발 지원사업 : 관광지와 어촌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갯벌 체험, 수산물 잡기 체험, 무인도 체험, 향토음식 개발 등
 - 마을 브랜드 개발 지원 : 어촌 브랜드 및 관광 홍보물 제작, 소셜 마케팅 지원, 스토리텔링, 홍보 마케팅 지원 등
 - 지역협의체 운영지원사업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무장 교육, 협의체 운영 관련 행정사무 지원, 마을 경영지원, 운영 관련 개선방안 제시

2) 특화사업

- 해양레저형
 - 소규모 레저선박 관련 시설 설치 :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레저선박 계류장, 보급시설(급유, 급수, 급전), 수리시설(상하가시설) 설치
 - 클럽하우스 설치 : 레저선박 이용객 편의시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건물(휴게실, 운영사무실 등) 설치
 - 해중레저 기반시설 조성 : 스노쿨링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한 해중림, 어초블럭 등 설치
 - 해중전망대 조성 : 상부는 해안선과 어촌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시설을 설치하고, 수중에서 어류 및 해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국민휴양형

- 바다전망대 설치 : 해안선과 어촌마을을 조망할 수 있고 지역경관 이
미지 형성을 위한 전망대 조성
- 어울림 정원 설치 :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원 조성
- 어촌마당 스테이 : 어촌가옥 마당에서 캠핑하고 어촌의 문화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 조성
- 갯벌생태공원 조성 : 갯벌 생태관찰 및 보행용 데크 설치, 생태습지공
원 조성
- 해수풀장 설치 : 해수를 이용한 수영장 및 물놀이 공원 조성
- 생태놀이터 조성 : 도시 아이들이 흙과 갯벌을 밟고 놀 수 있는 생태
공원 조성

○ 수산특화형

- 바다낚시터 조성 : 낚시객들을 위한 해상 좌대낚시터 및 낚시데크 조성
- 위판장 개선 : 수산물 유통센터 개선, 위판장, 직판장 등 복합기능센
터로 조성
- 어부장터(마르쉐) : 직거래를 통한 소득 및 유통시스템 구축
-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설치 :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 유통·가
공센터 조성, 마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공, 선별, 포장판매 기반
구축
- 수산물 특화거리 기반 조성 : 도로 정비, 점포 정비 등을 통한 기반 조성
- 맨손잡이 체험장 조성 : 지역특산물 잡이 체험시설(체험안내소, 휴게소)
및 부대시설(개수대, 샤워실) 조성, 안전장비(인명구조장비 등) 지원
- 저온저장고 및 냉동창고 설치 : 수산물의 안정적 유통망 구축으로 소
득증대 도모
- 수산물 건조시설 설치 :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 수산물 건조시설 신축

○ 재생기반형

-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 해양관광, 에너지, 수산양식, 해상교통
등의 창업교육, 사무실 지원
- 문화·예술인 창작·전시공간 조성사업 : 전시관 및 예술 공작소를 조
성하고 외벽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낙서벽, 추억의 벽 등으로 조성

- 청년어장 운영사업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식어장 임대 및 기술, 사업자금 등을 지원
- 문화복지센터 건립 :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3) 타 부처 연계사업

- 마을 지붕, 담장 경관 개선
 - 배후어촌 지붕색 통일, 마을 안길 정비 등을 통해 경관 개선
 - 스토리가 담긴 마을담장 벽화 조성 및 지점별 포토존 설치로 관광객 동선 유도
- 마을 안내판, 이정표 설치
 - 방문객 유도를 위한 조형물, 안내판 이정표 설치
 - 어촌마을 홍보 및 방문객 안내를 위한 마을 진입로 입구 대형 표지판 안내판 설치, 마을 생태숲 지원
 - 새울타리, 유실수, 경관수 등을 식재
- 주차장 조성
 - 어항 배후지에 공동 주차시설을 조성하여 항내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어항을 찾는 이용자에게 편의시설 제공
- 상징 조형물 설치
 -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
- 오토캠핑장 조성
 -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오토캠핑장 부지 및 운영시설 조성
- 마을 박물관 건립
 - 어촌 문화 전시 및 관람시설 건립으로 어민, 관광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오·폐수 정화시설 및 노후상수도 정비
 - 지역 주민을 위한 오폐수 처리 및 폐유수거 시설을 조성하고, 마을 상·하수관로 확충, 정비로 식수 확보 및 위생관리로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 해양레저 수요가 있고, 정온도가 확보되어 레저체험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marina 접안 및 보관시설, 스킨스쿠버, 수중 레저, 친수공간 조성 등의 해양레저 관련 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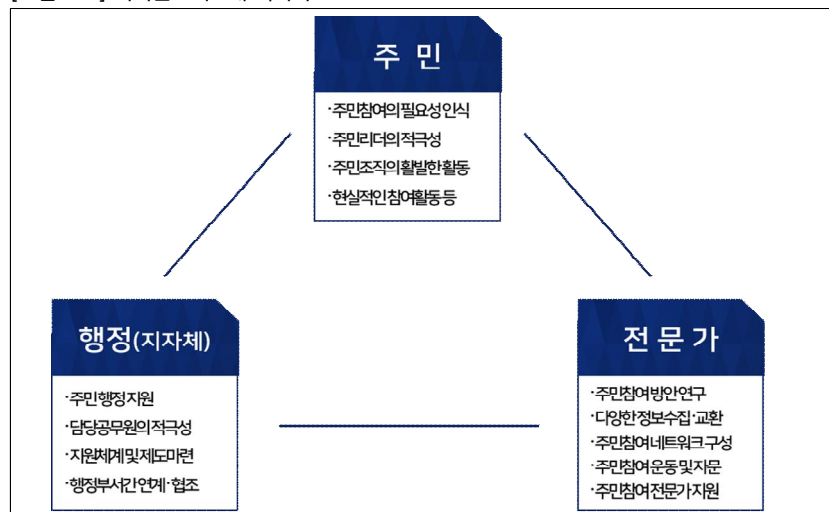
다. 사업 추진체계

1) 어촌뉴딜 거버넌스 구축

□ 어촌뉴딜 300사업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소레벨에서 다양한 어촌·어항재생 전문조직을 설립하고 각 주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촌뉴딜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함.

[그림 1-2] 거버넌스의 3개 섹터 구조



자료 : 해양수산부(2018),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

2) 지자체 어촌뉴딜 300 전담조직 구성·운영

○ 시·군·구 어촌뉴딜 전담조직

- 구성 : 지자체 내 담당조직을 별도 설치하거나, 기존 어촌·어항업무 담당부서를 활용하여 상근 전담인력 배치

- 역할 : 어촌뉴딜 300 사업계획 수립, 사업 관련 관계기관·부서 간 업무 협의, 어촌뉴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특징 : 지자체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중 어촌뉴딜 전담 조직 내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를 지양

○ 시·도 어촌뉴딜 전담조직

- 구성 : 지자체 내 담당조직을 별도 설치하거나, 기존 어촌·어항업무 담당부서를 활용하여 상근 전담인력 배치
- 역할 : 해당 시·도 내 어촌뉴딜 300사업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업의 공정관리 및 행정지원,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특징 : 지자체 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중 어촌뉴딜 전담조직 내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를 지양

3)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구축

○ 어촌뉴딜 300 지역협의체

- 구성 :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역할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밀착형 사업 발굴, 어촌뉴딜 300 사업계획 수립 협의, 조성된 시설물 운영방안 협의 및 지원
- 특징 : 사업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이후 최소 3년간 운영되어야 함.

4) 해양수산부 지원조직 구축

○ 어촌뉴딜 300 자문단

- 구성 : 지역계획, 경제, 어촌, 어항, 건축, 디자인,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200명으로 구성
- 역할 : 현장체감형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개발 상시 지원
- 특징 : 사업의 결과물이 지역민에게 체화되어 지역의 자산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3년간 전문가 자문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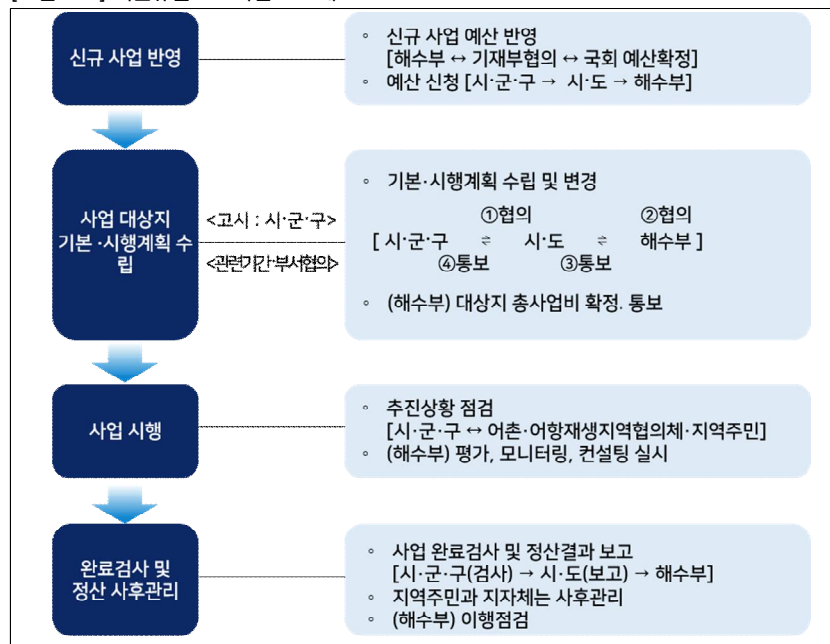
○ 어촌뉴딜 300 사업지원단

- 구성 : 어촌·어항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 역할 : 어촌뉴딜300사업 운영·관리 지원, 어촌뉴딜 자문단 구성·운영,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

라. 사업 추진절차

[그림 1-3] 어촌뉴딜 300사업 프로세스



자료 : 해양수산부(2018),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

제3절 어촌뉴딜 2019년 선정 70개 사업 분석

1. 사업 분류체계

- 분류체계는 어촌뉴딜사업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선정된 70개의 사업에 대한 분류체계(총 31개)를 작성하여 적용

- 인프라, 소프트웨어(SW), 기타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하위 대분류(5개), 중분류(14개)와 소분류(31개) 분류체계 작성
- 70개의 사업계획서 내 계획된 세부사업들을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분류 및 정리를 수행하였음.

〈표 1-4〉 어촌뉴딜 70개 사업 분류체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인프라	11 지역 인프라	1111 어항 인프라 접안시설(물양장, 계류장 포함, 어선수리, 선박수리 시설, 어업용, 잔교) 신축+보강
			1112 방파제
			1121 생활 기반시설 주민문화 및 복지시설(주민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복합문화공간 등)
			1122 도로(다리, 도로보수, 마을진입로 등 토목공사)
			1123 안전시설(가로등, CCTV, 난간, 구조사다리, 철책 제거 등)
			1124 정비(상하수도시설 정비, 마을 경관 정비 등)
		113 생산유통 기반시설	1131 창고(집하장 등)
			1132 공동작업장(축양시설, 가공공장 등)
			1134 판매장(수산물, 특산물 등)
		12 관광 인프라	1211 어항 인프라 접안시설(물양장, 계류장 레저선박, 여객선, 유람선용 선착장 포함) 신축+보강
			1212 선착장(레저용, 유람선, 잔교 등)
			1221 해양 레저시설 체험장(해양레포츠 외 모든 것)
			1222 낚시터
			1223 해양레포츠(레포츠센터, 레포츠시설 등)
			1224 기타(번지점프, 캠핑장, 야영장 등)
			1231 해양 휴양시설 홍보관, 전망대 등
			1232 친수공간(해안 산책로, 해안데크, 해수욕장 정비, 해안사구, 경관 개선, 둘레길, 탐방로 등)
			1233 공원(생태공원, 정원, 해양공원, 테마공원 등)
			1241 기타 인프라 숙박시설(민박, 펜션, 호텔, 게스트하우스)
			1242 음식시설(화센터/레스토랑)
			1243 편의시설(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대합실, 탈의실, 안내센터, 방문객센터 등)

〈표 1-4〉의 계속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	SW	21 지역 역량 강화 SW	2111 프로그램(주민 편의, 복지 프로그램)
			2112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113 문화 프로젝트(미술, 벽화 등)
			2121 교육 및 컨설팅(주민역량, 인력양성, 청년양성, 인재육성, 시설교육, 레저교육) 등
			2131 거버넌스(주민운영체, 협의체,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여촌뉴딜사업 운영관리)
			2141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22 관광 역량 강화 SW	2211 관광프로그램(대화+행사+축제+프로젝트+트레킹+체험 등)
			2212 관광프로그램 개발(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221 관광객 대상 교육
3	기타	31	3111 기타

2. 사업분류별 사업 수 및 사업비

- 70개소의 여촌뉴딜사업은 1,02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조 7,748억 원 규모임.
- 인프라 구축이 1조 5,986억 원 규모로 총사업비 중 9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SW 사업 수는 180개로 전체의 17.6%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1,015억 원 규모로 5.7% 수준임.

〈표 1-5〉 대분류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

구분	사업 수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인프라	809 (79.0%)	1,598,669 (90.1%)	1,008,060 (89.3%)	522,685 (91.1%)	67,924 (94.5%)
SW	180 (17.6%)	101,545 (5.7%)	72,863 (6.5%)	28,374 (4.9%)	308 (0.4%)
기타	35 (3.4%)	74,166 (4.2%)	48,163 (4.3%)	22,377 (3.9%)	3,626 (5.0%)
총합계	1,024 (100.0%)	1,774,380 (100.0%)	1,129,086 (100.0%)	573,436 (100.0%)	71,858 (100.0%)

자료: 70개 선정지역 사업계획서 DB(연구진 구축).

- 어촌뉴딜사업은 관광인프라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5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한 관광객 확대유치라는 목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역인프라는 정주환경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6,7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8.1%를 차지하고 있음.
 - 정주환경 개선은 접근성 개선과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SW는 지역역량강화와 관광역량강화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820억 원, 195억 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역량강화SW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역량강화SW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운영 및 조성 후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배분으로 평가됨.
 - 관광역량강화SW는 어촌관광모델 개발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체 사업비의 1.1% 수준으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표 1-6〉 중분류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

구분	사업 수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관광인프라	392 (38.3%)	923,462 (52.0%)	568,068 (50.3%)	288,715 (50.3%)	66,679 (92.8%)
지역인프라	417 (40.7%)	675,207 (38.1%)	439,992 (39.0%)	233,971 (40.8%)	1,245 (1.7%)
지역역량강화SW	144 (14.1%)	82,016 (4.6%)	59,420 (5.3%)	22,524 (3.9%)	72 (0.1%)
관광역량강화SW	36 (3.5%)	19,529 (1.1%)	13,443 (1.2%)	5,850 (1.0%)	236 (0.3%)
기타	35 (3.4%)	74,166 (4.2%)	48,163 (4.3%)	22,377 (3.9%)	3,626 (5.0%)
총합계	1,024 (100.0%)	1,774,380 (100.0%)	1,129,086 (100.0%)	573,436 (100.0%)	71,858 (100.0%)

자료: 70개 선정지역 사업계획서 DB(연구진 구축).

- 소분류별 사업비는 〈표 1-7〉에 총사업비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해양휴양시설, 어항인프라, 생활기반시설 순으로 나타남.

- 특징적으로 기타인프라*는 자부담 정도가 599.9억 원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업이 어촌뉴딜사업 지역 내에 대규모 숙박시설(리조트) 건설을 계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 기타인프라 : 숙박시설, 음식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관광 관련 인프라를 의미하며, 리조트는 복합시설이므로 기타인프라로 분류

〈표 1-7〉 소분류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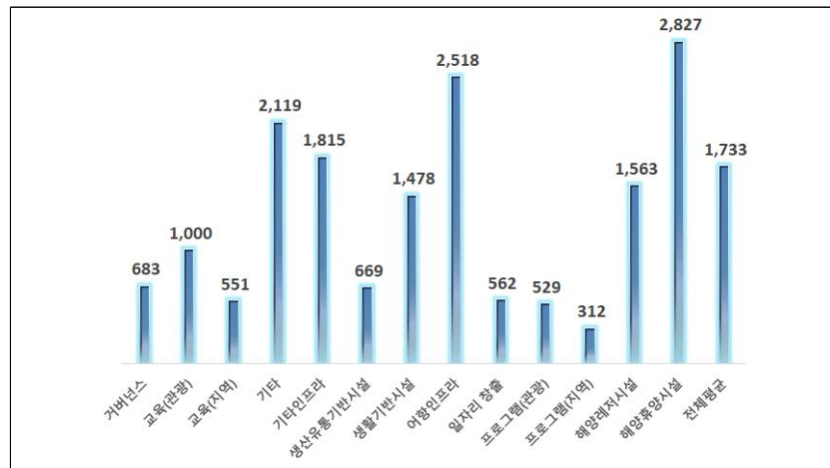
구분	사업 수	총사업비	국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해양휴양시설	173 (16.9%)	489,031 (27.6%)	361,618 (32.0%)	121,772 (21.2%)	5,640 (7.8%)
어항인프라	176 (17.2%)	443,126 (25.0%)	279,041 (24.7%)	164,085 (28.6%)	- (0.0%)
생활기반시설	222 (21.7%)	328,027 (18.5%)	196,739 (17.4%)	130,815 (22.8%)	474 (0.7%)
해양레저시설	98 (9.6%)	153,151 (8.6%)	93,240 (8.3%)	58,862 (10.3%)	1,049 (1.5%)
기타인프라	80 (7.8%)	145,190 (8.2%)	49,746 (4.4%)	35,454 (6.2%)	59,990 (83.5%)
기타	35 (3.4%)	74,166 (4.2%)	48,163 (4.3%)	22,377 (3.9%)	3,626 (5.0%)
거버넌스	61 (6.0%)	41,687 (2.3%)	32,304 (2.9%)	9,383 (1.6%)	- (0.0%)
생산유통기반시설	60 (5.9%)	40,145 (2.3%)	27,676 (2.5%)	11,698 (2.0%)	771 (1.1%)
교육(지역)	53 (5.2%)	29,228 (1.6%)	19,363 (1.7%)	9,805 (1.7%)	60 (0.1%)
프로그램(관광)	35 (3.4%)	18,529 (1.0%)	12,883 (1.1%)	5,610 (1.0%)	36 (0.1%)
프로그램(지역)	23 (2.2%)	7,169 (0.4%)	5,151 (0.5%)	2,006 (0.3%)	12 (0.0%)
일자리창출	7 (0.7%)	3,932 (0.2%)	2,602 (0.2%)	1,330 (0.2%)	- (0.0%)
교육(관광)	1 (0.1%)	1,000 (0.1%)	560 (0.0%)	240 (0.0%)	200 (0.3%)
총합계	1,024 (100.0%)	1,774,380 (100.0%)	1,129,086 (100.0%)	573,436 (100.0%)	71,858 (100.0%)

자료: 70개 선정지역 사업계획서 DB(연구진 구축).

- 소분류별 평균사업비는 17.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해양휴양시설, 어항 인프라, 기타 등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프로그램의 평균사업비가 3.12억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관광), 교육(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4] 소분류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 사업비 분석 결과는 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정주여건과 관광인프라임을 잘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어촌뉴딜사업이 어촌의 정주환경과 관광인프라를 중심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운영단계, 조성 후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거버넌스, 교육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사업유형별 집계 결과는 해양레저형이 8개소 총사업비 4,734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레저시설 구축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해양레저형의 SW는 202.3억 원으로 레저시설의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표 1-8〉 사업유형별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개소	총사업비			
			인프라	SW	기타
해양레저형	8	473,414	453,101	20,233	80
국민휴양형	15	385,019	367,439	15,450	2,130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8	194,885	159,049	25,019	10,816
국민휴양형, 재생기반형	4	170,158	166,008	1,227	2,924
수산특화형	10	157,067	125,012	4,069	27,986
재생기반형	5	75,830	70,361	4,560	909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3	68,768	66,032	2,736	-
수산특화형, 국민휴양형	4	53,493	42,218	5,730	5,545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1	30,813	12,994	2,653	15,166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2	26,669	24,586	2,083	-
해양레저형, 재생기반형	2	26,350	19,900	700	5,750
재생기반형, 해양레저형	1	18,220	16,860	-	1,361
재생기반형, 섬관광형	1	13,971	9,109	4,862	-
재생기반형, 국민휴양형	1	10,001	8,340	1,661	-
복합형(3가지 유형 이상)	5	69,723	57,662	10,561	1,500
총합계	70	1,774,380	1,598,669	101,545	74,166

제4절 어촌뉴딜사업 기대효과

- 어촌·어항 통합개발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
- 어민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어항을 중심으로 기초 인프라 및 편의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어항 및 배후마을의 기반정비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생활환경 개선의지를 높이고 어촌의 중요한 자산인 어메니티(amenity) 가치를 제고하여 귀어 인구의 어촌 정착 및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마을로서의 기반 확보가 가능

- 어촌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어촌마을 조성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
 - 마을이 보유한 이색적인 어촌자원들을 적극 활용해, 어촌 휴양·관광 분야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방문객 및 관광객 증가
 - 어촌휴양 특화마을, 관광 특화마을 조성 등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어업 외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력효과 제고 가능

-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발전 자생기반 확보
 -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증가를 통해 주민들과의 교류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 기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자체 조직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각종 교육, 컨설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배양하고, 지속적·자생적으로 마을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립기반 확보
 - 어업활동 외 새로운 수익원 창출로 젊은 층 인구 유입 토대 마련

-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운영, 체험진행, 민박사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기대
 - 귀어인과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여 경제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해양레저 관련 청년창업으로 젊은 층 인구 유인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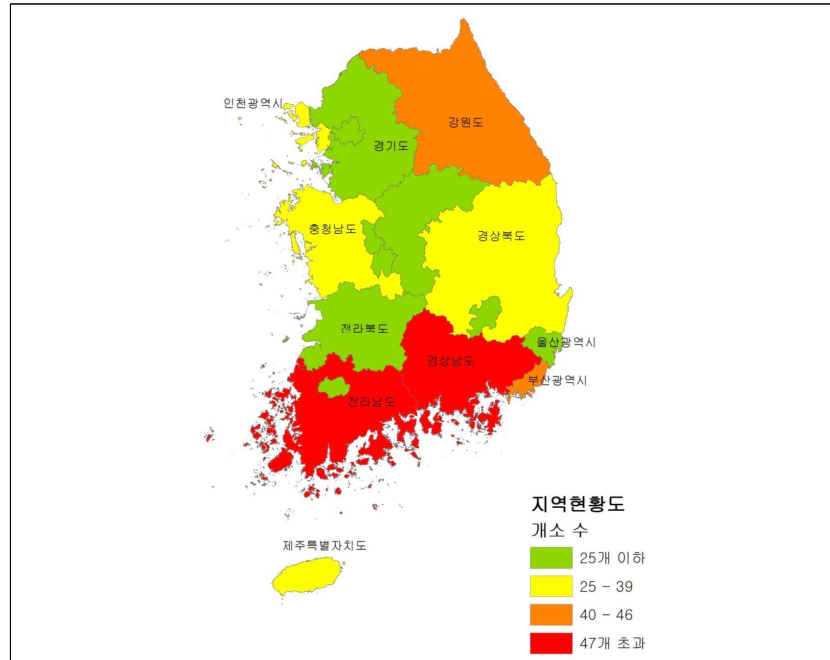
어촌 및 수산업분야 노동시장 분석

제1절 지표별 현황

1. 어촌 현황

- 행정구역별 분포 중 어촌지역의 읍면동 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9.2%를 차지
- 2018년 기준 연안 시·군·구는 전국 시·군·구 226개 중 74개(32.7%)이며, 연안 읍·면·동은 전국 읍·면·동 3,538개 중 492개(13.9%)임.
 - 이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의 특징으로 바다와 접하는 지선이 길기 때문으로 풀이됨.
- 어촌지역의 읍·면·동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촌지역 인구비율은 전남지역이 전체 176만 명 중 82만 명(46.5%), 제주 59만 명 중 29만 명(49.0%) 순으로 높음.

[그림 2-1] 어촌의 행정구역별 현황



<표 2-1> 어촌의 행정구역별 현황

구분	전체인구	시·군·구		읍·면·동	
		개소	인구	개소	인구
합계	51,069,375	74	13,373,272	492	4,691,788
부산	3,404,667	11	2,023,702	43	780,636
인천	2,822,601	7	1,565,350	45	467,845
울산	1,136,755	4	902,682	14	258,239
경기	12,026,429	5	2,405,785	16	365,779
강원	1,499,734	6	504,194	37	285,618
충남	2,036,720	7	927,081	38	337,060
전북	1,804,184	4	456,619	28	146,419
전남	1,764,433	16	1,478,165	129	819,769
경북	2,622,729	5	849,466	32	258,106
경남	3,244,163	7	1,669,755	83	682,715
제주	590,473	2	590,473	27	289,60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정보(KOSIS), 2015년.

2. 어가인구와 어가 수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 기준 5,160만 6,000명이며, 그 중 어가인구는 11만 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0.2%의 비중을 차지함.
- 전체 어가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4만 3,000명으로, 그 비중이 36.8%임.
 - 경남지역과 충남지역은 1만 8,000명으로 15.4% 순이고, 경기지역이 2,000명 수준으로 비중은 1.3%임.
- 어가인구는 고령에 따른 조업포기, 전업(轉業) 등으로 2013년 14만 7,000명에서 2018년 11만 7,000명으로 3만 명 감소(4.5%)한 것으로 나타났음.
 - 어가인구의 시도별 감소율을 보면 경기(9.0%), 강원(7.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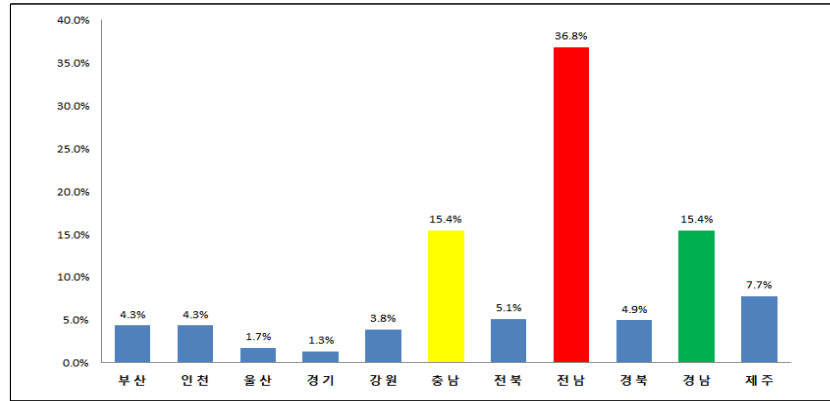
〈표 2-2〉 국내 어가인구

(단위: 천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어업인구 비중	연평균 증가율
총인구(A)	51,141	51,328	51,529	51,696	51,712	51,606	-	0.2
어가인구(B)	147	141	128	126	122	117	100.0%	△4.5
부 산	5.8	5.3	5.7	5.7	5	5	4.3%	△2.9
인 천	6.2	6.1	5.1	5.1	5	5	4.3%	△4.2
울 산	2.6	2.6	2.3	2.2	2.2	2	1.7%	△5.1
경 기	2.4	2.3	1.8	1.6	1.6	2	1.3%	△9.0
강 원	6.8	6.5	5.7	5.4	4.9	5	3.8%	△7.9
충 남	21.4	21.1	18.1	19.3	18.1	18	15.4%	△3.4
전 북	5.8	5.5	6.4	6.1	6.2	6	5.1%	0.7
전 남	52.9	51.1	43.8	44.3	44.1	43	36.8%	△4.1
경 북	8.5	8.1	6.7	6.7	6.5	6	4.9%	△7.7
경 남	23.6	21.8	22.6	19.8	18.9	18	15.4%	△5.2
제 주	11.5	11.1	9.9	9.5	9.3	9	7.7%	△4.8
B/A(%)	0.3	0.3	0.2	0.2	0.2	0.2	-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8년」.

[그림 2-2] 시·도·별 어가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8년」.

○ 어가인구 2018년 11만 6,900명 중 남자는 5만 8,100명으로 남녀 성비는 98.7%인 것으로 제시되었음.

- 어가인구 중 남자는 2014년 6만 8,900명에서 2018년 5만 8,100명으로 4년 동안 1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음.
- 어가인구 중 여자는 2014년 7만 2,400명에서 2018년 5만 8,800명으로 4년 동안 1만 3,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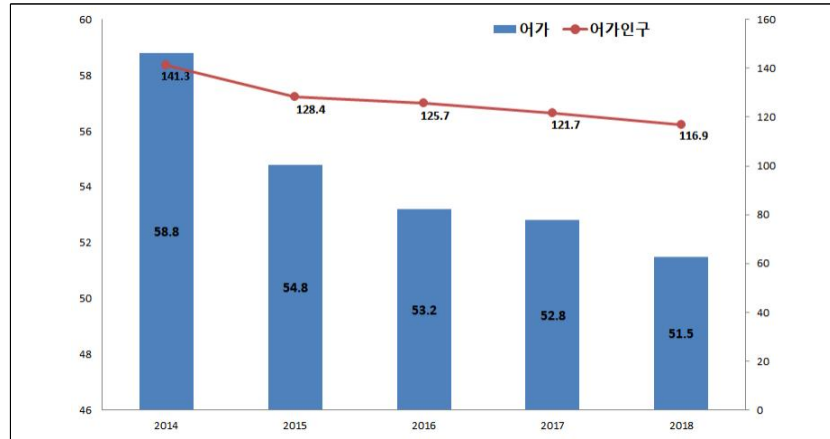
〈표 2-3〉 어가 및 어가인구(2014~2018년)

(단위 : 천 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A)	2018(B)	증 감 (C=B-A)	증 감 륜 (C/A×100)
어가인구	141.3	128.4	125.7	121.7	116.9	-4.9	-4.0
남 자	68.9	64.4	63.0	60.6	58.1	-2.5	-4.2
여 자	72.4	63.9	62.7	61.1	58.8	-2.3	-3.8
성 비	95.1	100.8	100.4	99.1	98.7	-0.4	-
어가인구 비율(%)*	0.3	0.3	0.2	0.2	0.2	0.0	-

주 : * 총인구에 대한 어가인구 비율.

[그림 2-3] 연도별 어가 추이(2014~2018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8년」.

- 연령별 어가인구는 2018년 60대가 3만 3,400명으로(전체 어가인구의 28.6%)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2만 7,200명(23.3%) 순임.
- 70세 이상 남자의 경우 2017년 1만 2,500명에서 2018년 1만 3,000명으로 5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70세 이상 여자의 경우 2017년 1만 3,900명에서 2018년 1만 4,200명으로 3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70세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어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4〉 연령별 어가인구(2017~2018년)

(단위: 천 명, %)

구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7	121.7	16.3	6.8	11.0	27.4	33.7	26.4
	(100.0)	(13.4)	(5.6)	(9.1)	(22.5)	(27.7)	(21.7)
남 자	60.6	8.7	3.8	6.2	12.8	16.5	12.5
	(100.0)	(14.4)	(6.2)	(10.3)	(21.2)	(27.3)	(20.6)
여 자	61.1	7.6	3.0	4.8	14.6	17.2	13.9
	(100.0)	(12.4)	(4.9)	(7.8)	(23.9)	(28.1)	(22.8)

〈표 2-4〉의 계속

구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8	116.9	14.9	6.6	9.7	25.0	33.4	27.2
	(100.0)	(12.8)	(5.6)	(8.3)	(21.4)	(28.6)	(23.3)
남 자	58.1	8.0	3.8	5.5	11.3	16.5	13.0
	(100.0)	(13.9)	(6.5)	(9.5)	(19.4)	(28.3)	(22.4)
여 자	58.8	6.9	2.8	4.2	13.8	17.0	14.2
	(100.0)	(11.7)	(4.8)	(7.1)	(23.4)	(28.9)	(24.2)
증 감	-4.9	-1.4	-0.2	-1.3	-2.4	-0.3	0.8
증감률	-4.0	-8.4	-3.0	-12.2	-8.7	-0.9	2.9

- 65세 이상 어가의 고령인구 수는 4만 2,400명이며, 어가인구 가운데 36.3%를 차지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4만 2,800명에서 2018년 4만 2,400명으로 전년대비 400명 감소하였음.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7년 35.2%에서 2018년 36.3%로 1.1%p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어가인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2-5〉 어가인구의 고령인구 비율(2017~2018년)

(단위: 천 명, %)

구분	2017(A)	2018(B)	증 감 (C=B-A)	증 감 륜 (C/A×100)
어 가 인 구	121.7	116.9	-4.9	-4.0
65세 이상	42.8	42.4	-0.4	-1.0
어가 고령인구 비율	35.2	36.3	1.1	-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	13.8	14.3	0.5	-

주: * 고령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

- 전국 어가가구 수 현황은 2018년 5만 1,494호로 전년대비 1,314가구 (-2.5%) 감소하였고, 어가 비율은 총가구의 0.3% 수준임.
- 전체 어가가구 중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1만 8,506호이며, 그 비중이 35.9%임.

- 어가가구 수는 충남지역이 8,473호로 1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남지역 7,730호로 15.0%임.
- 어가가구 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1.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지역으로 643호임.
- 전체 어가가구 중 어가가구 수가 2013년 2,386호에 비하여 2018년 2,924호로 증가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연평균 4.2% 증가하였음.
- 어가가구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경북지역은 2013년 3,760호에 비하여 2018년 2,639호로 연평균 6.8% 감소하였음.

〈표 2-6〉 어가 가구 현황

(단위: 호,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도·별 어업가구 비중	연평균 증감율
어업가구	60,325	58,791	54,793	53,221	52,808	51,494	100.0	△3.1
부 산	2,061	1,972	2,203	2,031	1,929	1,858	3.6	△2.1
인 천	2,423	2,410	2,172	2,097	2,052	1,965	3.8	△4.1
울 산	947	940	905	832	791	739	1.4	△4.8
경 기	853	850	762	696	685	643	1.2	△5.5
강 원	2,666	2,562	2,292	2,259	2,082	2,004	3.9	△5.5
충 남	9,385	9,229	8,162	8,550	8,598	8,473	16.5	△2.0
전 북	2,386	2,308	2,908	2,776	2,884	2,924	5.7	4.2
전 남	21,747	21,246	18,819	18,601	18,871	18,506	35.9	△3.2
경 북	3,760	3,636	3,017	2,818	2,798	2,639	5.1	△6.8
경 남	9,346	9,050	9,417	8,479	8,152	7,730	15.0	△3.7
제 주	4,752	4,589	4,116	4,082	3,966	4,013	7.8	△3.3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8년」.

- 2018년 어가 가구원 수별 현황은 2인 가구가 2만 9,600가구(전체 어가의 57.4%)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8,700가구(16.9%), 3인 가구 7,400가구(14.5%) 순임.
- 전년대비 1인 가구는 1.8% 증가한 반면, 2인 가구는 1.3%, 3인 가구는 7.2% 감소하고 있음.
- 어가의 평균 가구원은 2.3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임.

〈표 2-7〉 가구원 수별 어가(2017~2018년)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평 균 가구원
2017	52.8	8.6	30.0	8.0	3.4	2.9	2.3
	(100.0)	(16.2)	(56.8)	(15.2)	(6.4)	(5.4)	
2018	51.5	8.7	29.6	7.4	3.2	2.6	2.3
	(100.0)	(16.9)	(57.4)	(14.5)	(6.1)	(5.0)	
증 감	-1.3	0.2	-0.4	-0.6	-0.2	-0.3	0.0
증감률	-2.5	1.8	-1.3	-7.2	-6.0	-10.1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8년」.

3. 어촌 소득

□ 전국 어가 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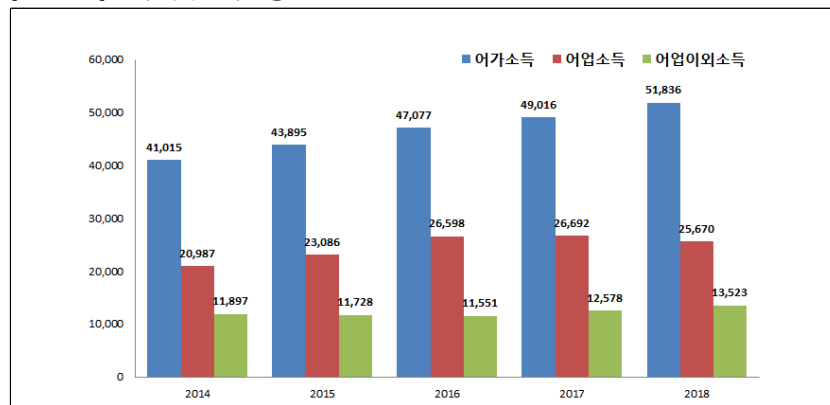
- 전국의 어가 소득은 2012년 3,738만 1,000원에서 2018년 5,183만 6,000원으로 약 1,445만 5,000원 상승했으며, 연평균 약 5.6% 증가하였음.
 - 50세 미만 어가소득이 2018년 1억 350만 원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고, 70세 이상은 2,735만 원으로 나타났다.
 - 50세 미만 어가소득은 2012년 6,203만 9,000원이던 것이 2017년 1억 2,139만 5,000원으로 약 2배 이상 상승하였음.
 - 50~59세는 2018년 어가소득이 7,279만 5,000원으로 50세 미만에 비하여 70% 수준이고, 60~69세 2018년 어가소득은 5,067만 9,000원으로 50% 수준임.
- 어업소득은 2018년 2,567만 원으로 2012년 1,953만 9,000원 대비 약 600만 원 가량 상승하였고, 연평균 증감률은 4.7%였음.
 - 어업외 소득은 2012년 1,784만 2,000원에서 2016년 1,155만 1,000원으로 600만 원 이상 하락한 후, 점차 증가하여 2018년 1,352만 3,000원으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감률은 -4.5%였음.

〈표 2-8〉 전국 어가 소득 현황

(단위: 천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어가소득	37,381	38,586	41,015	43,895	47,077	49,016	51,836	5.6%
50세 미만	62,039	58,113	68,736	92,644	110,297	121,395	103,500	8.9%
50~59세	46,501	52,311	60,664	60,288	66,213	75,129	72,795	7.8%
60~69세	34,054	32,139	33,366	40,855	48,349	49,626	50,679	6.9%
70세 이상	21,065	21,879	21,352	23,362	21,951	25,886	27,350	4.5%
어업소득	19,539	18,538	20,987	23,086	26,598	26,692	25,670	4.7%
어업이외소득	17,842	13,037	11,897	11,728	11,551	12,578	13,523	-4.5%

[그림 2-4] 전국 어가 소득 현황



4. 기타

-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 등 여가활동과 관련한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인해 관광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어촌 해양관광의 경우 2016년 기준 전년대비 경기지역이 약 192.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부산과 인천, 울산 지역은 약 40% 수준의 증가율을 보임.
 - 가장 낮은 성장률은 보인 지역은 약 3.5% 증가한 경남지역이며, 경북과 제주지역은 약 5% 증가하는 데 그쳐 다소 낮은 성장세를 보임.

-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1박 2일 이상의 체류숙박형 해양관광에 대한 시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관광 총 수요는 2017년 10억 2,645만 2,000명으로 전망되며 그 중 해양관광 수요는 37%인 3억 7,978만 7,000명으로 전망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활동을 살펴보면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음.
 - 한편 여름철 관광수요의 대부분은 해양관광활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요소의 제공과 함께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어촌 관련 국정기조

-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과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20대 국정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음.
 - 지역 맞춤형·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다움을 보전하며, 사람이 돌아오는 아름답고 쾌적한 어촌 조성 추진
 - 교통·의료·주거 등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어촌 어디에서나 기초 생활수준을 충족
 - 어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을 고도화하고, 어촌형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으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어촌 삶의 질 저하

- 어촌지역은 정주,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어촌사회의 인구 감소의 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정주기반이 취약한 도서 어촌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향후 50년 이내 63개 도서가 무인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어촌지역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 항·포구 개발 기반 취약

○ 우리나라의 소규모 항·포구는 2017년 말 기준 1,282개 항이 전국 연안에 분포하고 있으나, 비법정 어항이 대부분으로 개발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국가어항은 정부에서 직접 개발하며,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은 어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소규모 항·포구는 개발체계가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

제2절 수산업분야 노동시장

□ 수산업분야 노동시장은 「2017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2015년 기준과 2016년 기준에는 해양산업과 수산업을 구분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산업 통계조사'와 '수산업 실태조사'를 따로 발표하였음.

○ 2017년부터는 해양산업과 수산업을 통합하여 「2017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발표하였음.

○ 「2017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의 대상 단위는 '사업체' 및 '어업인'임.

- '사업체'의 정의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종사자와 설비를 갖추고 단일 또는 주된 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 '어업인'의 정의 :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2017년 1년간(2017.1.1~12.31)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종사자

-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는 9개 세부산업으로 특수분류되어 있음.
- 수산분야에 해당하는 세부산업은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등 3개로 구성되어 있음.
- 해양분야에 해당하는 세부산업은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등 3개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산분야와 해양분야에 모두 포함되는 세부산업은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세부산업임.

〈표 2-9〉 해양수산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명)

산업구분별	대표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	합계
전체	172,964	515,562	412,319	70,523	10,239	1,181,607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723	7,098	1,626	38	45	9,530
해운항만업	8,439	87,447	8,181	265	95	104,427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6,658	153,120	7,211	493	106	167,588
수산물 생산업	47,474	62,222	346,693	15,457	5,536	477,382
어로어업	32,090	33,409	25,091	9,152	2,951	102,693
양식어업	14,229	28,176	321,127	5,410	2,525	371,467
어업 관련 서비스업	77	305	18	-	18	418
소금 채취업	1,078	332	457	895	42	2,804
수산물 가공업	5,946	28,063	7,695	3,414	358	45,476
수산물 유통업	43,021	38,494	11,423	22,530	321	115,789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2,372	3,772	1,249	704	74	8,171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1,672	8,983	674	302	41	11,672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56,659	126,363	27,567	27,320	3,663	241,572

자료: 2017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 2017년 전체 종사자 수는 118만 1,607명이고,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51만 5,562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41만 2,319명인 것으로 제시되었음.
- 수산물 생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47만 7,382명으로 9개 세부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산물 생산업 중 양식어업의 종사자 수가 37만 1,467명이고, 어로어업은 10만 2,693명이 종사하고 있음.

- 양식어업 종사자 수 중 임시 및 일용종사자 수가 32만 1,127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어로어업 종사자 수는 상용근로자가 3만 3,409명이고, 임시 및 일용종사자가 2만 5,091명으로 상용근로자 수가 더 많음.
- 수산물 유통업의 종사자 수는 11만 5,789명이고, 대표자 수가 4만 3,021명임.
- 수산물 유통업의 상용근로자 수는 3만 8,494명이고, 무급 가족종사자 수가 2만 2,530명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1만 1,423명)보다 많음.
-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24만 1,572명으로 9개 세부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입.
-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가 12만 6,363명이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가 2만 7,567명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세부산업과 달리 무급 가족종사자 수가 2만 7,32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해양수산분야 연령별 종사자 수

(단위: %)

산업구분별	전체 종사자 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1,181,607	8.8	24.9	33.2	26.1	6.9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9,530	8.2	26.7	34.0	22.8	8.2
해운항만업	104,427	12.7	29.9	31.5	19.7	6.1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167,588	8.8	25.8	35.7	24.2	5.5
수산물 생산업	477,382	6.0	19.0	29.6	33.8	11.6
어로어업	102,693	6.6	13.6	21.8	37.2	20.8
양식어업	371,467	5.0	25.5	38.6	30.0	0.8
어업 관련 서비스업	418	24.1	26.5	40.9	7.7	0.9
소금 채취업	2,804	0.7	9.4	36.5	39.8	13.6
수산물 가공업	45,476	5.9	16.8	29.9	34.8	12.6
수산물 유통업	115,789	6.9	20.4	36.7	28.2	7.8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8,171	10.5	26.2	31.2	20.9	11.3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11,672	5.8	26.1	35.9	24.8	7.4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241,572	9.0	26.4	32.6	27.0	5.0

자료: 2017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 2017년 전체 종사자 수 가운데 40대가 33.2%로 30대 24.9%, 50대 26.1%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2-10 참조).
- 수산물 생산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수 비중과 달리 50대가 33.8%로 가장 높으며, 40대 29.6%, 30대 19.0% 순으로 나타났음.
 - 수산물 생산업 중 양식어업의 경우 40대 38.6%, 50대 30.0%, 30대 25.5%의 종사자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30대가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특이함.
 - 어로어업은 50대가 37.2%로 가장 높아 양식어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40대가 21.8%인 것에 비해 60대가 20.8%로 전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산물 가공업의 연령별 종사자 비중은 수산물 생산업과 동일하게 50대가 34.8%로 가장 높으며, 40대(29.9%), 30대(16.8%) 순으로 제시하고 있음.
- 수산물 유통업의 종사자 연령별 비중은 수산물 생산업과 수산물 가공업과 달리 40대가 36.7%로 가장 높으며, 50대(28.2%), 30대(20.4%) 순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연령별 종사자 비중은 모두 40대가 각각 31.2%, 35.9%, 32.6% 등으로 가장 높음.
 - 3개 세부산업의 연령별 종사자 비중은 30대 각각 26.2%, 26.1%, 26.4% 와 50대 각각 20.9%, 24.8%, 27.0%로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임금평균은 1,803만 3,000원임.
- 수산물 생산업의 연평균급여는 463만 8,000원으로 해양수산 분야 9대 세부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 수산물 생산업 중 어로어업의 연평균급여는 1,601만 5,000원으로 양식어업의 연평균급여인 139만 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수산물 생산업의 연평균급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양식어업의 연평균급여가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수산물 가공업의 연평균 급여는 2,234만 2,000원이고, 수산물 유통업의 연평균 급여는 2,062만 9,000원으로 수산물 생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해양수산 레저관광업의 연평균급여는 2,321만 6,000원,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의 연평균급여는 2,630만 2,000원이며,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급여는 2,372만 8,000원으로 유사한 수준임.

〈표 2-11〉 해양수산분야 분야별 급여

산업구분별(1)	전체종자사 수 (A)	한국인(명)	외국인(명)	연간급여 (억원) (B)	연평균급여 (천원) (C=B/A)
전체	1,181,607	1,102,453	79,154	213,078	18,033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9,530	9,421	109	3,090	32,424
해운항만업	104,427	100,864	3,563	36,323	34,783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167,588	159,073	8,516	55,193	32,934
수산물 생산업	477,382	417,229	60,153	22,140	4,638
어로어업	102,693	88,685	14,009	16,446	16,015
양식어업	371,467	325,369	46,098	5,162	1,390
어업 관련 서비스업	418	417	1	102	24,402
소금 채취업	2,804	2,758	45	429	15,305
수산물 가공업	45,476	42,842	2,633	10,160	22,342
수산물 유통업	115,789	114,641	1,148	23,886	20,629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8,171	8,145	26	1,897	23,216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11,672	11,215	457	3,070	26,302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241,572	239,023	2,549	57,319	23,728

제3장

양적 고용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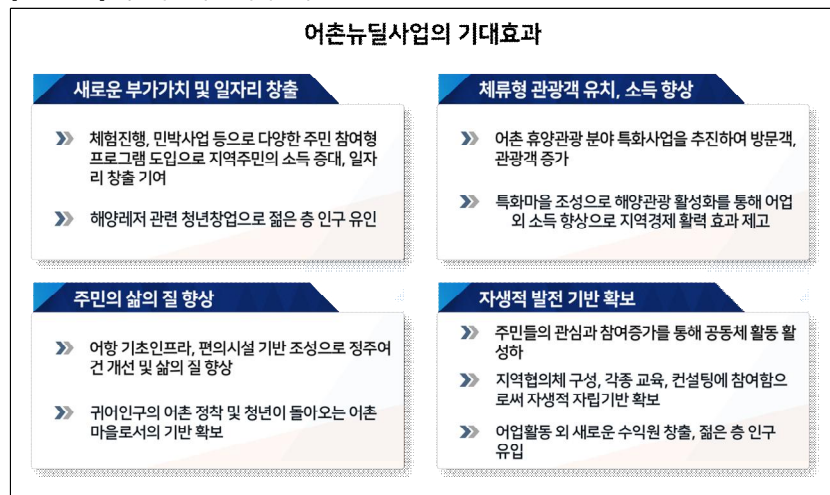
제1절 어촌뉴딜 300사업의 고용연계성

1. 어촌뉴딜 300사업의 목표

- 어촌뉴딜 300사업은 두 가지 목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목표는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으로 설정되었음.
- 어촌뉴딜 300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 ②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 ③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 어촌뉴딜 300사업은 특화마을 조성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증대를 통해 자생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어촌뉴딜사업으로 방문객 증가로 인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어항 및 편의시설 기초인프라 정비가 확대됨.

- 특히 고용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고용연계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요소는 방문객 증가로 인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임.
- 특화사업 조성으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는 다양한 산업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고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어항 및 관광인프라 정비와 관련하여 건설업 및 서비스업, 특화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서비스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 어항 관련 인프라시설 유지·관리, 휴게시설 운영, 체험장 운영, 낚시터 운영, 특산물 판매장 운영, 숙박시설 및 캠핑장 운영, 해양레포츠시설 운영
 - 어촌 방문객이 증가하거나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게 되어, 운송업, 음식숙박업, 소매업, 수산레저관광업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어촌뉴딜사업은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어촌뉴딜사업의 핵심적인 기대효과인 어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되어야 함.

[그림 3-1] 어촌뉴딜사업 기대효과



2. 어촌뉴딜 300사업의 고용연계성

□ 어촌뉴딜 300사업의 내용에 따른 주요 수혜 산업은 SOC 관련 건설업, 수산레저관광업(어촌체험마을 등 포함), 수산업 생산 및 가공·유통업 분야임.

○ 다시 말하면, 어촌뉴딜 조성사업으로 인해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다음과 같음.

① 어항 및 관광 인프라 정비 관련 재정투입으로 인해 건설업과 건설업 관련 후방산업의 직간접 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임.

- 즉, 어항인프라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에 따라 연관산업에 파급되는 간접고용효과가 발생

② 어촌뉴딜사업의 조성이 완료된 후, 어촌지역별 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어촌뉴딜사업 시행으로 인해 시설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인력(직접고용)이 고용될 것임.

- 어항 관련 인프라시설 유지·관리, 휴게시설, 체험장, 낚시터 등 운영 및 지원인력

- 특산물 판매장 운영 및 지원인력

- 숙박시설 및 캠핑장 운영 및 지원인력

- 해양레포츠시설 운영 및 지원인력 등이 확대될 것임.

③ 또한 어촌뉴딜사업으로 인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을 계기로 어촌 방문객이 증가하거나 수산물 생산·판매가 증가하게 된 결과, 어가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소득효과가 가계소비 증가의 파급효과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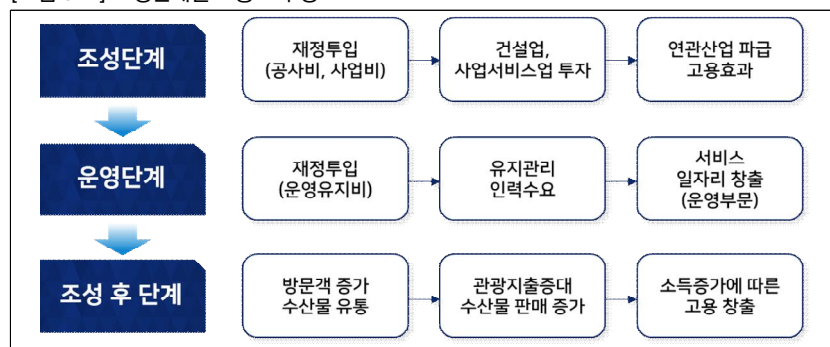
□ 어촌뉴딜 300 재정투입으로 발생하는 조성단계별 고용효과

○ 어촌뉴딜사업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영향 경로(①의 경우)

- 건설비, 사업비 증가 →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수요 증대 → 해당산업 또는 기타 연관산업의 중간재 수요 증가 → 파급과정을 거쳐 국민경제의 생산 및 고용 증가(고용유발)

- 어촌뉴딜사업 운영단계의 고용효과(②의 경우)
 - 어항 관련 인프라시설, 휴게시설, 체험장, 낚시터 운영인력, 특산물 판매장 운영인력, 숙박시설 및 캠핑장 운영인력, 해양레포츠시설 운영인력 등 어촌뉴딜사업 시행으로 인해 유지관리 인력 수요가 발생
→ 운영기관 또는 위탁운영기관의 직접고용이 증대됨.
- 어촌뉴딜사업 조성 후 고용파급효과 경로(③의 경우)
 - 방문객 등의 지출액 증대, 수산업 생산 증대 → 해당지역 어가소득 증대 → 가계소비 증가 → 산업별 소비지출 증가액의 파급효과를 거쳐 국민경제의 생산 및 고용이 증가함.

[그림 3-2] 조성단계별 고용효과 경로



3. 고용영향평가의 연구방향

□ 어촌뉴딜 300사업 정책효과와 거시적 분석 : I-O 모형

- 제2절에서 분석한 재정지출 투입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어촌뉴딜사업 중 어항인프라, 관광인프라, 생활기반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출한 비용이 해당 산업 및 연관 산업에 투입되어 생산, 고용,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를 말하며,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를 추계함.
 - 따라서 건설공사비, 사업비(주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출의 고용효과는 어촌뉴딜사업을 위해 투입된 건축비와 사업비가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투입됨으로써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의미함.

-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어촌의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인력 조사
- 어촌뉴딜사업 중 어항 관련 인프라시설, 휴게시설, 체험장, 낚시터 운영인력, 특산물 판매장 운영인력, 숙박시설 및 캠핑장 운영인력, 해양레포츠시설 운영인력 등 어촌뉴딜사업 시행으로 인해 유지관리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임.
 - 현재 연구단계에서 선형적으로 서비스 운영인력의 고용의 양을 예측할 방법이 없으므로 어촌계 계장 또는 어촌뉴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운영으로 인한 고용효과를 제3절에서 파악할 계획임.

제2절 재정지출로 인한 간접고용효과 규모 추정

1. 분석 개요

- 본 절에서 어촌뉴딜사업의 고용효과는 간접고용효과를 분석함.
- 간접고용효과 : 어촌뉴딜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지출 투입으로 인한 고용효과로서 어촌뉴딜사업 중 어항인프라, 관광인프라, 생활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출한 비용이 해당 산업 및 연관산업에 투입되어 생산, 고용,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를 말함.
 - 본 절에서는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의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함으로써 간접고용 파급효과를 분석함.

2.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의 간접고용효과 추정

- 산업연관표 산업분류
-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의 산업별 지출액은 산업연관표상의 대분류 산업

분류와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고용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와 재정지출의 산업별 지출액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수산품에 대한 산업분류는 산업연관표의 대분류에서는 농수산물으로 묶여 있으나, 농림업부문의 취업계수는 22.5로 수산물 부문 취업계수 6.2와 큰 차이를 보임.
- 또한 체험장 운영과 관련된 산업은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에 속하나, 산업연관표 대분류에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통합되어 있어, 상술한 두 산업 간의 취업계수도 차이를 보임.

○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를 재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3-1>과 같음.

<표 3-1> 산업연관표 산업 재분류 결과

산업명	산업연관표 중분류
농산물	01~03, 05
수산물	02
광산물	06, 07
음식료품 담배	08~10
섬유, 의복, 가죽제품	11, 12
목재, 종이, 인쇄	13~15
석탄 및 석유제품	16
화학제품	17~24
비금속광물제품	25, 26
1차금속제품	27~29
금속가공제품	30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31~36
전기장비	37
기계 및 장비	38, 39
운송장비	40
선박	41
기타 운송장비	42
기타 제조업 제품	43

〈표 3-1〉의 계속

산업명	산업연관표 중분류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44
전력, 가스, 수도	45~49
건설	50, 51
도소매업	52
운송서비스	53~57
음식숙박서비스업	58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59~6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65~67
부동산서비스	68, 6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0~72
사업지원서비스	73, 7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5
교육서비스	7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77, 78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79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80
기타 서비스	81~83

□ 산업별 재정지출액

- 어촌뉴딜사업의 재정지출액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1차 70개 어촌 대상 어촌뉴딜사업의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내용에 맞는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 〈표 3-2〉의 2019년도 70개 어촌에 대한 재정지출액은 2019~2020년까지 시행되는 어촌뉴딜사업의 지출액이며, 대부분 사업기간이 1년, 1.5년, 2년이며, 1.5년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액은 타 부처 연계사업은 제외하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모두 합하여 8,024.3억 원이 투입됨.
 - 전체 투입액 중 건설이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경영지원, 교육 및 컨설팅과 관련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3.1%, 어촌뉴딜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협회 및 단체가 3.0%를 차지함.

〈표 3-2〉 산업별 투입금액

산업	투자액(십억 원)	구성비(%)
건설업	744.0	92.7
교육서비스업	0.15	0.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032	0.0
사업서비스	0.9	0.1
선박건조업	0.9	0.1
소매업	0.21	0.0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	1.299	0.2
어업	0.15	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5.13	3.1
정보통신업	5.664	0.7
협회 및 단체	23.99	3.0
총 합계	802.43	100.0

자료 : 어촌뉴딜 70개소 DB, 본 연구진 구축.

□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의 고용파급효과 추정 결과

- 〈표 3-3〉에는 2019년도 사업인 70개 어촌에 대한 어촌뉴딜사업의 사업별 지출에 따른 후방연쇄효과(간접고용효과)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음.
- 어촌뉴딜사업 시행으로 인해 1조 6,09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산출량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산출량 증가를 위해 투입된 피용자 수와 취업자 수는 각각 6,714명과 9,143명으로 나타났다.

〈표 3-3〉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의 간접고용효과

(단위: 명)

구분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구성비(%)		구성비(%)
농산품	7.4	0.1	105.6	1.2
수산물	1.0	0.0	4.5	0.0
광산품	27.2	0.4	27.4	0.3
음식료품 담배	18.1	0.3	23.8	0.3
섬유, 의복, 가죽제품	19.4	0.3	27.3	0.3

〈표 3-3〉의 계속

구분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구성비(%)		구성비(%)
목재, 종이, 인쇄	79.8	1.2	99.6	1.1
석탄 및 석유제품	2.4	0.0	2.4	0.0
화학제품	94.8	1.4	101.1	1.1
비금속광물제품	163.8	2.4	191.7	2.1
1차금속제품	76.9	1.1	82.5	0.9
금속가공제품	161.8	2.4	197.0	2.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1.1	0.3	22.5	0.2
전기장비	105.6	1.6	113.2	1.2
기계 및 장비	59.8	0.9	68.0	0.7
운송장비	17.1	0.3	17.8	0.2
선박	2.5	0.0	2.5	0.0
기타 운송장비	1.1	0.0	1.2	0.0
기타 제조업 제품	41.0	0.6	63.3	0.7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65.5	1.0	78.1	0.9
전력, 가스, 수도	46.1	0.7	49.3	0.5
건설	3249.0	48.4	4452.5	48.7
도소매업	389.3	5.8	660.7	7.2
운송서비스	194.9	2.9	354.3	3.9
음식숙박서비스업	116.6	1.7	224.1	2.5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09.2	1.6	122.5	1.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27.2	1.9	134.5	1.5
부동산서비스	23.2	0.3	37.9	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649.2	9.7	729.8	8.0
사업지원서비스	508.5	7.6	546.9	6.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3.2	0.2	13.2	0.1
교육서비스	8.5	0.1	10.6	0.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36.3	0.5	38.2	0.4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7.5	0.1	11.6	0.1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11.3	0.2	20.3	0.2
기타 서비스	257.5	3.8	507.4	5.6
합계	6714.0	100	9143.1	100

제3절 어촌뉴딜사업 조성 후 정책효과(DID 분석)

1.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어촌공동체 활성화 전망 시나리오

□ 어촌뉴딜사업이란,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임.

- 어촌뉴딜사업의 기대효과는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 도입으로 인한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적 발전기반 확보
 - 어항 기초인프라 및 편의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관광시설,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운영, 민박사업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 김영태 외(2018)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를 통해 비즈니스(사업)를 창출하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함.
- 어촌뉴딜사업의 정책방향이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촌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어촌의 자생력 강화에 있으므로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를 통해 비즈니스(기업 또는 사업)를 창출하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어촌뉴딜사업은 어촌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을 통한 어촌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어촌뉴딜사업 평가에 있어서 어촌공동체사업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공동체사업(CB : Community Business)의 개념적 특성과 성공요인을 고려하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사회성(공공성), 영리성(사업성), 지역성을 지니고 네트워크 강화, 중간조직,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정부의 지원, 책임감 있는 리더의 육성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업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의 영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며 지역과 지역공동체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라고 이해할 수 있음(김영태 외, 2018 인용).

- 어촌공동체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요인을 고려해야 함.
- 어촌관광 활성화와 연관되는 어촌관광인프라 정비 및 지역 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 혁신역량 강화와 연관되는 지역주민 참여와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운영주체의 사업운영 관리 능력과 기타 정책적 이슈

2. 환경적 요인 도출

□ 시나리오 분석의 2단계로서 어촌공동체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도출하고 각각의 요인들의 트렌드를 분석함.

-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의 어촌개발투자 노력)
 -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성장동력 둔화(마을 침체) → 적극적 경제 활동층 유입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 및 어촌·어항 재생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어촌 관광수요 변화)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로 새로운 관광수요 발생 → 관광수요를 유입할 수 있는 관광 아이템 발굴이 필요 (지역 특화프로그램 개발)하며, 이러한 트렌드는 다양한 어촌공동체사업의 기회를 제공함.
 -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험시설 및 해양레저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문화, 자역자원의 특성과 연계된 어촌 관광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내부적 역량부족 문제) 어촌지역의 내적인 역량(지역역량)이 부족하여 어촌개발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음.¹⁾
 - 2017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완료된 농어촌마을의 각종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실들은 어촌개발사업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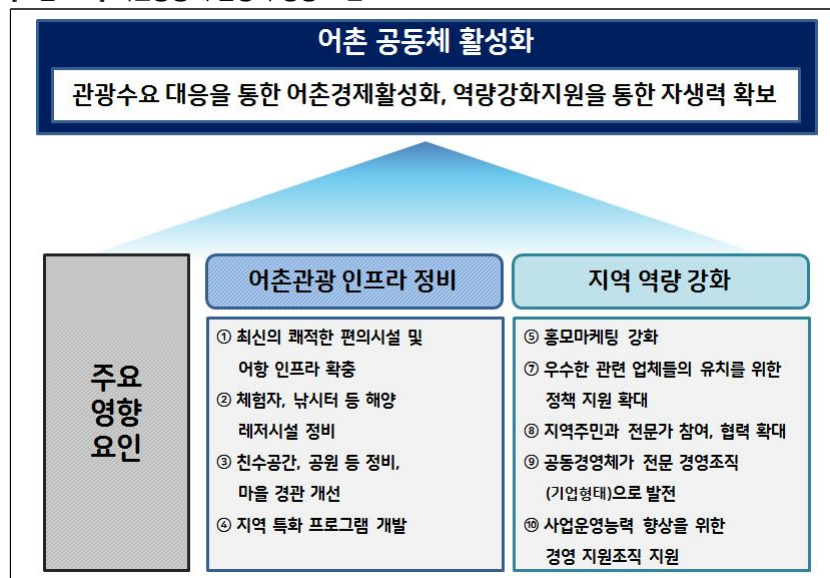
1) 어촌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어촌계의 운영관리 능력 부재(50.0%)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음. 그리고 어촌계의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이들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의 운영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어촌계 스스로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전체의 19.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올바른 관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김성귀 외 2004,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향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낮음을 의미함.

- 어촌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어촌의 배타성, 어촌의 고령화, 사업 운영주체(주민)의 부족한 경영 마인드 등 어촌이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 역량 부족이 지적되며, 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의 추진 목표와 기존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종합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촌의 자생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크게 어촌지역 관광인프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비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함(그림 3-3 참조).

[그림 3-3] 어촌공동체 활성화 영향 요인



- 선행연구들은 어촌지역 기반시설 투자가 어촌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음.
- 허재완(2003)은 어촌지역 SOC투자를 통한 어촌의 소득증대 효과 및 관광업 활성화 효과, 지역 수산업 활성화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김봉태·이성우(2011)는 어항기반시설 보강과 관광시설 등 인프라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어촌개발투자 사업의 수산물 판매액 증대효과는 모호하였으나, 어업 외 소득기회 증대효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
-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별 특성화 등 소프트 인프라도 어촌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이승우 외(2010)는 어촌체험 마을사업의 공통 성공요인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및 상품개발을 꼽고 있음.
- 어촌공동체 사업주체의 역량이 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임.
 - 어촌관광인프라 정비(SOC 투자) 이외에도, 어촌체험마을과 같은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으로서 어촌체험마을 사업주체의 역량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이승우 외, 2010 참조).
 - 이승우 외(2010)는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실패 요인으로서 ① 주민의 소극적인 참여(무관심), ② 위원장(어촌계장)의 리더십 부재, ③ 조직 구성의 실패와 역량에 맞지 않는 역할분담, ④ 획일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주체의 운영관리 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이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힘.

3. 시나리오의 핵심축 선정

- 핵심축은 앞의 <그림 3-3>에 제시된 어촌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10개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높은 영향력을 가진 요인들로 정의할 수 있음.
- <표 3-4>에는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어촌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확실성 정도를 정리한 것임.
 - 주로 어촌관광인프라 정비 관련 변수 군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역량 강화 관련 변수 군은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관광인프라 및 관련 인프라는 불확실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지역역량 강화 관련 변수군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관광인프라 관련 편의시설, 어항, 마을경관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반면, 어촌뉴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역량 강화 관련 조치들의 실행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3-4〉 영향요인들의 영향력과 불확실성 정도

영향 요인	불확실성		영향력	
최신의 쾌적한 편의시설 및 어항 인프라 확충	3.900	낮음	4.033	높음
체험장, 낚시터 등 해양레저시설 정비	3.550	높음	3.833	높음
친수공간, 공원 등 정비를 통해 마을 경관 개선	3.983	낮음	4.000	높음
지역적인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3.700	낮음	3.800	높음
홍보 마케팅 강화	3.433	높음	3.683	낮음
우수한 관련 업체들의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3.450	높음	3.533	낮음
우수한 기획인력(전문인력) 충원	3.300	높음	3.500	낮음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확대	3.550	높음	3.777	높음
사업운영의 전문화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동경영체가 전문 경영조직으로 발전	3.517	높음	3.500	낮음
사업운영 능력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 지원조직을 지원	3.383	높음	3.750	높음
평균	3.577	--	3.740	--

○ 어촌공동체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향 요인 가운데 영향력(어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도)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불확실성(실행가능성이 낮음)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핵심축으로 설정함.

- ‘체험장, 낚시터 등 해양레저시설 정비’, ‘사업운영 능력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 지원조직을 지원’,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확대’를 핵심축으로 설정함.

※ 후술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조사에서 보이듯이, 경영 지원 조직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창업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하에

서는 경영조직 지원과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 및 협력 확대는 “중간지원조직 지원”으로 묶어서 논의함.

- 따라서 핵심축은 어촌관광인프라(체험장 낚시터 등 해양레저시설 정비)와 지역역량 강화(중간지원조직 지원)로 설정함.

□ 어촌지역 관광인프라(정비 vs 미정비)

○ 어촌관광인프라 정비 관련 변수 군은 어촌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영향력이 매우 높게 평가된 항목들로서 어촌관광인프라 변수 군임.

- 어촌 어항을 중심으로 체험시설 및 해양레저시설의 정비 및 관련 편의시설 정비 등 관광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놀거리(체험 프로그램) 증대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어촌관광에 대한 불편사항으로 놀거리 부족, 문화·레저시설 부족, 숙박시설 부족, 낮은 수준의 편의시설 및 교통접근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인프라 부족이 어촌 방문의 장애요인²⁾으로 작용할 것임.

○ 반면, 어촌관광 활성화의 불확실성 요인으로서 어촌관광인프라 요인은 어촌뉴딜사업이 추진되면 체험시설 및 해양레저시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어, 어촌방문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수 있음.

- 휴양레저관광 등 어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어촌관광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어촌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어촌 관광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2) 문성배(2009)에서는 어촌관광에 대한 불편사항으로 놀거리 부족, 문화·레저시설 부족, 숙박시설 부족, 대중교통 불편, 휴식시설 부족, 서비스시설 부족 순으로 조사되었음. 한편 이승우 외(2010)의 어촌체험마을 기피이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숙박시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불편함,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방문하기 힘들, 체험마을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힘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밖에 마을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청결하지 못함, 체험활동 시 사고위험에 대한 대비 부족, 여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듦 등이 지적되었음.

□ 어촌지역역량 강화(강화 vs 정체)

- 어촌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변수군이 지역역량 강화 관련 변수군임.
 - 특히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운영 능력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지원조직을 지원,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확대'의 두 항목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사업운영 주체(주민)의 부족한 경영마인드 등 어촌개발지역의 내적 역량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이러한 어촌지역의 내부적 역량 부족이 어촌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어촌개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어촌계 스스로 사업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전체의 19.2%에 불과하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어촌계의 운영관리 능력 부재(50.0%)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됨.
 - 반면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경영 지원조직 지원)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개발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어촌활성화 사업의 성공과 어촌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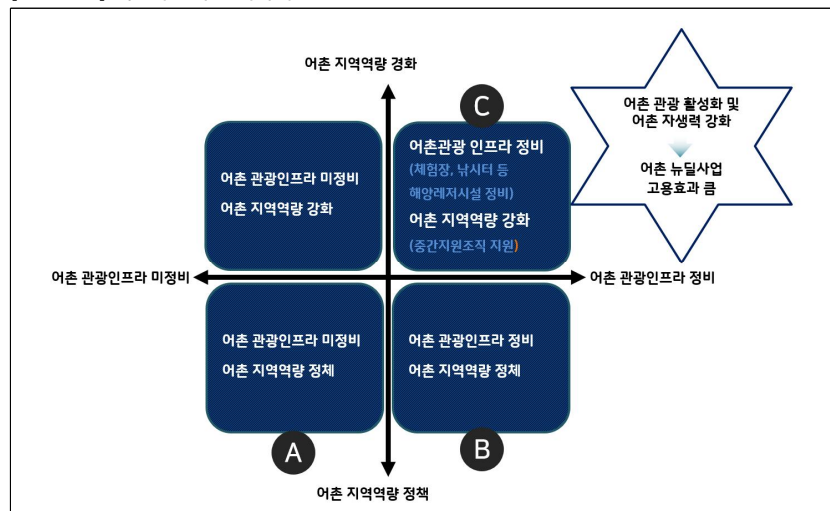
□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 A : 어촌관광인프라 미정비 + 어촌지역역량 정체
 - 어촌지역역량 수준 정체 → 인프라 정비도 안되고, 사업역량이 미약하여 어촌관광객 수 소폭 증가를 통한 소득 증대 및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없음(소득 증대 기대할 수 없음).
- 시나리오 B : 어촌관광인프라 정비(어촌뉴딜사업 추진) + 어촌지역역량 정체
 - 어촌지역역량 강화 정체 → 물리적인 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사업운영역량이 미약하여 어촌관광객 수 대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소

폭의 소득 증대)

- 시나리오 C : 어촌관광인프라 정비(어촌뉴딜사업 추진) + 어촌지역역량 강화
 - 중간지원조직의 효과적인 지원으로 어촌의 지역역량수준 강화 → 어촌 관광객 수의 대폭 증가, 6차 산업화로 큰 폭의 소득 증대 및 고용 증대
- 시나리오 A와 B를 비교하는 DID분석을 통해 어촌관광인프라 지원의 정책효과 도출
- 시나리오 B와 C를 비교하는 DID분석 수행을 통해 어촌관광인프라 지원에 추가하여 지역역량 강화 지원의 정책효과 도출

[그림 3-4] 어촌뉴딜사업 시나리오



※ 〈참고〉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이란 자치단체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자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자 간을 연결하거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기관
- 중간지원조직의 지원기능은 대부분 역량이 미흡한 농어촌공동체의 역량 강화 등 간접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
 - ① 운영지원(경리, 세무, 재무, 회계, 법률 등 서류작성 지원, 홈페이지

지 작성 지원)

- ② 사업전개 지원(영업 마케팅 지원, 경험에 기초한 경험노하우 지원)
- ③ 인재육성 지원(어촌공동체사업 실천에 관한 강좌, 스쿨 개최 등)
- ④ 창업지원기능(법인설립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창업관련 교육 등)
- ⑤ 코디네이터 기능(전문적 지원의 소개 및 연계)
- ⑥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 어촌공동체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등

※ 참고: 어촌지역역량 강화

-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코디네이터 기능을 통한 외부전문가 참여·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영 및 사업전개 지원 등을 통해 사업운영주체의 경영역량 부족 문제를 보완함.
 - 이를 통해 어촌뉴딜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자생적으로 지속가능 운영이 가능한 역량이 배양됨.
- 중간지원조직은 아래의 시도 역량강화사업 세부내용을 거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2020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역량강화사업 세부내용

- (1) 교육·훈련 : 리더 양성,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등
- (2) 홍보 :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 (3) 지역활성화 :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전문조직 육성(중간지원조직 구축), 공동체 활성화 등
- (4) 사업지원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 지원(총괄계획가, PM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따라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결과물로서 다음을 기대할 수 있음.

- ① 교육 훈련을 통해 리더 및 전문가 양성 등 지역주민의 참여 증대
- ② 지역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마을브랜드 개발)
- ③ 컴퓨터,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 ④ 외부 네트워크의 활용
- ⑤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 구축(중간지원조직 구축)
- 지역역량 강화의 성과측정
 - ① 인적자원개발, 마을 주민의 참여
 - ② 지역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③ 컴퓨터,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정도
 - ④ 외부 네트워크의 활용 정도
 - ⑤ 중간지원조직 운영

4. 어촌뉴딜 300사업 조성 후 고용효과 추정(DID 분석)

가. DID 분석 개요

- DID분석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에서는 앞에서 논의했던 시나리오 A와 B의 비교를 통해 어촌관광인프라 지원의 정책효과 도출
- 이 분석에서는 어촌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어촌을 어촌관광인프라 지원의 수혜집단으로 보고, 참여하지 않는 어촌을 비수혜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임.
-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정책의 효과를 DID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위하여, 어촌뉴딜정책과 유사한 정책으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소득증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식별함.
-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한 어촌지역 중에서 지역역량 강화 지원을 받은 어촌지역을 제외한 표본에 대해 어촌관광인프라 지원사업(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면 1, 아니면 0의 더미변수의 계수(β_B)를 구함.
 - 이 경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한 어촌지역 중에서 관광 관련 인프라 정비만이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식별함
 - 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더미변수의 계수값이 역량강화사업 변수가 누락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정 계수값의 왜곡을 방지하

기 위하여, 지역역량 강화 지원을 받은 어촌지역을 제외한 표본에 대해 분석함.

□ 다음으로 시나리오 B와 C를 비교하는 DID분석 수행을 통해 어촌관광 인프라 지원에 추가하여 지역역량 강화 지원을 포함한 경우의 정책효과 도출

○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한 어촌지역 중에서 역량 강화 지원을 받은 어촌지역까지 모두 포함하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또는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면 1의 더미변수의 계수(β_C)를 추정함.

- 이 경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한 어촌지역 중에서 관광인프라 지원과 역량 강화 지원이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식별함.

□ ②의 추정계수에서 ①의 추정계수를 차분($\beta_C - \beta_B$)값의 의미

○ $\beta_C - \beta_B$ =(역량 강화 지원의 효과가 포함된 추정계수)-(역량 강화 지원의 효과가 제외된 추정계수)=역량 강화 지원이 추가적으로 증가시킨 소득 증가에의 영향

○ 어촌뉴딜정책의 목표로 볼 때 정책효과의 성과지표로서 어촌경제 활성화(소득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임.

- 따라서 어촌뉴딜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어촌가구의 소득변화가 가장 타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효과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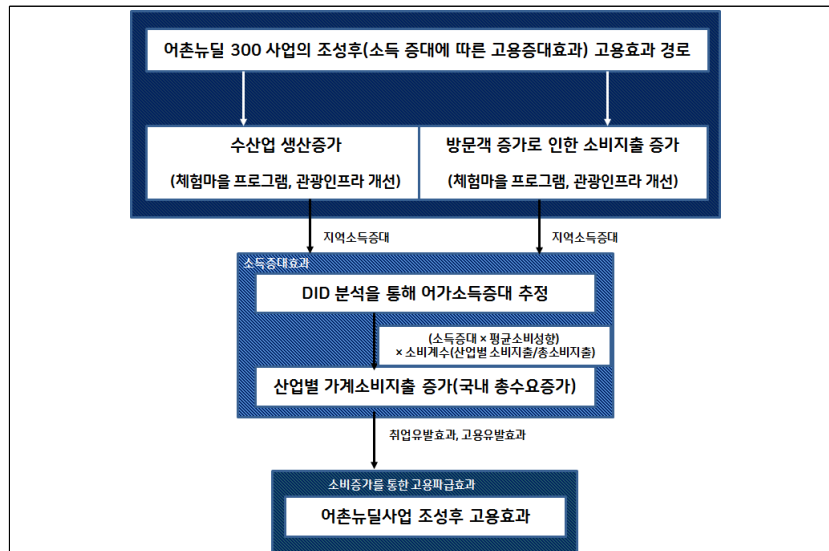
- 즉, 어항을 매개로 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소득, 고용의 창출이 대표적인 파급효과라고 볼 수 있음.

○ 현실적으로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어촌 활성화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별 생산증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움.

○ 수산업, 음식숙박업, 체험장 이용료, 체험시설 운영·지원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증가 등의 데이터(연도별 어촌체험객 수, 체험객 1인당 지출액, 특산물 판매액 등)를 모두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어촌지역의 호당 평균소득일 것임.

- 이에, 허재완(2003), 김봉태·이성우(2011)의 어촌 어항 및 관광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에서는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 허재완(2003)에 따르면, 어항 인프라 정비는 어항을 매개로 한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소득, 고용의 창출이 대표적인 파급효과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 어항 및 관광인프라 투자 또는 어촌개발사업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DID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추정된 어가소득 증대가 가계소비지출을 통해서 고용유발하는 경로를 분석할 수 있음(아래의 그림 3-5 참조).
- 어촌뉴딜사업 조성의 결과로서 '방문객 지출 증대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생산 증대에 따른 생산 및 고용효과'는 어촌 방문객의 지출액, 수산물 소비지출 등이 어가소득에 반영되어 소득 증대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증가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함.

[그림 3-5] 소득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FLOW



나. DID 분석을 위한 데이터 및 방법

- 어촌뉴딜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한 어촌지역을 실험그룹으로, 참여하지 않은 어촌지역을 대조그룹으로 하여 분석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유형은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단위 특화개발, 권역단위 개발), 시군 역량 강화, 기초생활 기반 정비로 분류

〈표 3-5〉 사업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		지원 내용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특화, 권역단위 거점 개발)	공동 문화·복지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경제 (체험·소득)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환경(경관·생태)	■마을의 경관 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시·군 역량 강화		■시·군 공무원 및 사업 준비자구의 마을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군 내 권역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생활기반 정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반 정비, 농촌 경관 개선,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기존의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포함) ■(농촌 빈집 정리) 농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농업기반 조성)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 간 농로를 확·포장, 저수지, 양수장, 둑방, 지하수 이용시설(관정, 지하댐, 인공함양정 등),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및 보강

- 본 연구에서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과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어촌 지역과 참여하지 않은 어촌지역을 그룹화하여 DID분석을 시행함(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표 3-5 참조).³⁾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복지센터, 마을회관 건립과 농특산물의 제조·가공시설, 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경관개선 등을 지원하므로 지역관광인프라 정비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역량강화사업은 교육 및 컨설팅, 시·군 내 권역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주로 지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중간조직 지원 등 지역공동체의 사업운영 능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표 3-5 참조).

□ DID 분석은 처치 전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007년부터 2017년까지)에 의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분석함.

- 데이터는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데이터를 이용함.
- 정책참여에 대한 실험집단은 어촌계가 포함된 권역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2010년 이후 참여한 어촌지역(읍면동 기준)을 식별하여 데이터를 작성함.
 - 이 데이터는 어촌계 어가의 평균소득에 대한 데이터만을 얻을 수 있고 고용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음.
 - 1단계에서 정책에 의한 소득증대 효과를 추정
 - 2단계에서 이러한 소득증대가 고용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여 고용영향을 분석함.

□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음.

$$Y_{i,t} = \alpha + \beta_1 D_t + \beta_2 D_{i,t} + \beta_3 (D_t \times D_{i,t}) \quad (1)$$

$$+ \beta_4 X_{i,t} + \mu_i + v_t + \epsilon_{i,t}$$

- $Y_{i,t}$: t기에 어촌마을 i의 호당 평균소득
- $X_{i,t}$: 어촌마을의 특성변수들(표 3-6 참조)

3) 생활기반정비사업 참여 여부가 소득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

- μ_i : 시간 불변의 어촌마을 특수적 요인
- v_t : 모든 어촌마을에 공통적인 시간 특수적 요인
- D_t 와 $D_{i,t}$ 은 이중차분법의 핵심 설명변수인데, D_t 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시행 여부(시행시 1, 아니면 0)를 나타냄.
 - $D_{i,t}$ 는 t 기에 i 어촌 마을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t 기 이후 연도는 1이고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처리함.
- 따라서 D_t 와 $D_{i,t}$ 의 상호작용항($D_t \times D_{i,t}$)의 계수 β_3 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 전후, 개발사업에 참여한 실험군 지역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지역에 비해 얼마나 더 소득이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값으로 서 주요 관심대상 계수임.
- 식 (1)의 $D_{i,t}$ 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 시점이 각 어촌마을마다 다르므로 각 마을마다 처치가 적용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중차분 추정치를 구하기 어려움.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속한 어촌마을들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임.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 (1) 대신에 아래와 같이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식 (2)를 추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중차분 추정치를 구할 수 있음.

$$Y_{i,t} = \alpha + \beta_1 D_{i,t} + \beta_2 X_{i,t} + \mu_i + \tau_t + v_{i,t} \quad (2)$$

- μ_i : 어촌마을 i 특정의 고정효과
- τ_t : 시점 특정의 고정효과
- $D_{i,t}$: 시점 t 에서부터 어촌마을 i 에 처치가 적용되었는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더미변수임.

〈표 3-6〉 추정모형 변수

구분	변 수	
종속변수 ($Y_{i,t}$)	소득	어촌지역의 호당 평균소득(총소득/어가 수)
설명변수 ($X_{i,t}$)	수산물 생산액	어촌지역의 수산물 생산실적(수산물 생산액/어가 수)
	생산기반	호당 보유어선 수(척)
	어촌계 활력	어촌지역(읍면동)에 속한 어촌계의 평균 어촌계원 수
	지역발전 정도	어촌지역(읍면동)에 속한 어촌계의 발전 정도의 평균값 (복지어촌=3, 자립어촌=2, 성장어촌=1)
정책 참여 유무	창조적 마을만들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단위 특화개발,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참여 여부 (참여= 1, 미참여= 0)
	역량 강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시군 역량강화사업 참여 여부 (참여= 1, 미참여= 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창조적 마을만들기+역량 강화) 참여 여부 (참여=1, 미참여=0)

□ 변수 설명

- $\ln(\text{호당 수산물 생산액})$: 어촌가구당 수산물 생산액에 자연대수를 취하였으며, 수산물 생산액이 많은 지역일수록 호당소득이 많을 것이므로 수산물 생산액이 호당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모델에 포함함. 정(+)의 부호가 예상됨.
- $\ln(\text{호당 어선 수})$: 해당 어촌지역의 어촌 가구당 어선 수는 생산기반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생산기반이 완비되어 있을수록 호당소득이 증가할 것이므로 정(+)의 부호가 예상됨.
- $\ln(\text{어촌계 평균 계원 수})$: 어촌지역 읍면동에 속하는 어촌계원 수의 평균값임. 어촌계 계원 수는 어촌계의 활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지역의 어촌계 평균 계원 수는 정(+)의 부호가 기대됨.
- $\ln(\text{평균 발전 정도})$: 어촌지역 읍면동에 속하는 어촌계들의 발전 정도의 평균값으로서 발전단계가 가장 높은 복지어촌=3, 자립어촌=2, 성장어촌=1 순으로 수치를 부여하여 어촌계 발전 정도의 평균값으로 발전 정도를 정량화함. 발전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호당소득이 높을 것이므로 이 변수는 정(+)의 부호가 예상됨.

○ 더미변수

- 마을단위 특화개발,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참여 여부: 어촌지역이 마을단위 특화개발이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의 더미변수로서 정책에 참여한 어촌과 미참여 어촌을 구분
- 역량강화사업 참여 여부: 어촌지역이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경우 1, 아니면 0을 부여함으로써 정책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더미변수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 여부 : 마을단위 특화개발, 권역단위 거점개발 또는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면 1, 아니면 0의 더미변수로서 이 변수는 관광인프라 지원정책에 참여하거나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어촌지역을 포함함.

5. 분석 결과

가. 추정 결과

□ 기술통계

- <표 3-7>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어촌과 비참여어촌의 요약통계가 제시되어 있음.
- 우선 2017년 기준 관측 수는 비참여어촌이 171개이며, 참여어촌이 57개임.
- 어가의 호당소득은 참여어촌이 비참여어촌보다 높은 편이며, 표준편차 또한 참여어촌이 비참여어촌보다 약간 큰 편임.
- 또한 호당 수산물 생산액에 있어서도 참여어촌이 비참여어촌보다 높으나, 표준편차는 비참여어촌이 더 큼.
- 어촌발전 정도는 참여어촌과 비참여어촌 간에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어촌계의 평균 어촌계원 수는 참여어촌보다 비참여어촌이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3-7〉 참여어촌과 비참여어촌별 요약통계

	변수	참여어촌			비참여어촌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기간	ln(호당소득)	267	10.24	0.51	1785	10.16	0.41
	ln(수산물 생산액)	267	9.35	1.28	1785	8.90	1.54
	ln(1000호당 어선 수)	267	6.10	0.70	1785	6.00	0.82
	평균 발전 정도	267	1.61	0.53	1785	1.61	0.63
	ln(평균 어촌계원 수)	267	4.07	0.50	1785	4.19	0.69
2017년	ln(호당소득)	57	10.17	0.66	171	10.05	0.70
	ln(수산물 생산액)	57	9.38	1.40	171	8.92	1.61
	ln(1000호당 어선 수)	57	6.09	0.70	171	5.89	0.85
	평균 발전 정도	57	1.53	0.48	171	1.60	0.61
	ln(평균 어촌계원 수)	57	4.04	0.50	171	4.12	0.70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한 어촌과 참여하지 않은 어촌의 비교는 다음과 같음.

- 참여어촌의 호당소득은 3,121만 원이며, 비참여어촌의 호당소득은 2,762만 원으로 참여어촌과 비참여어촌의 호당소득의 차이는 359.6만원 임(표 3-7 참조, 표 안의 값은 로그값).

□ DID 모형 추정결과

○ 어촌지역이 마을특화개발이나 권역거점개발사업에 참여하는가, 아닌가를 설명변수로 하는 고정효과 패널모형의 추정 결과는 위의 〈표 3-8〉에 제시되어 있음.

- 여기에서 사용된 패널모형은 시점에 따라 이질적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시점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음.
-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마을특화개발+권역거점개발 참여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다음으로 호당 수산물 생산액과 호당 보유어선 수, 평균 어촌계원 수, 지역의 평균 발전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음.

- 모형 E3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어촌지역을 표본으로 (마을특화개발+권역거점개발) 사업참여 더미변수의 계수 추정 결과임.

〈표 3-8〉 마을특화개발+권역거점개발사업의 정책효과 추정 결과

변수	E1	E2	E3	E4
마을특화개발+권역거점개발	0.0468 (1.2601)	0.0696* (1.8589)	0.0793** (2.2223)	0.0788** (2.0002)
ln(호당 수산물 생산액)	-	0.0168* (1.9058)	0.0123 (1.4579)	0.0119 (1.4020)
ln(호당 보유어선 수)	-	0.0475** (2.3434)	0.0392** (2.0277)	0.0390** (2.0155)
ln(평균 어촌계원 수)	-	0.1081*** (2.5923)	0.0601 (1.5055)	0.0871** (2.1515)
지역발전 정도	-	-	0.2465*** (13.588)	0.2440** (13.500)
상수항	10.26*** (408.6)	9.70*** (49.8)	9.52*** (51.1)	9.24*** (49.5)
시점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N	2052	2052	2052	1973

- 즉, 모형 E4는 (마을특화개발+권역거점개발) 사업참여 여부 변수의 계수가 지역역량강화사업 변수가 누락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정 계수값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모형 E3의 계수값과 거의 차이가 없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책효과를 비교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을특화개발+권역거점개발) 사업참여 여부의 영향을 나타내는 모형 E4의 계수를 활용함.

〈표 3-9〉 역량강화사업의 정책효과 추정 결과

변수	E5	E6	E7
역량강화	0.0831 (1.5858)	0.1130** (2.1430)	0.1035** (2.0585)
ln(호당 수산물 생산액)	-	0.0181** (2.0426)	0.0134 (1.5829)
ln(호당 보유어선 수)	-	0.0464** (2.2977)	0.0372* (1.9296)
ln(평균 어촌계원 수)	-	0.1059** (2.5472)	0.0568 (1.4260)
지역발전 정도	-	-	0.2452*** (13.5137)
상수항	10.27*** (427.67)	9.710*** (50.02)	9.540*** (51.39)
시점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N	2052	2052	2052

- 어촌지역이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가, 아닌가를 설명변수로 하는 고정효과 패널모형의 추정 결과는 위의 〈표 3-9〉에 제시되어 있음.
 -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역량강화사업 참여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이 변수의 추정계수가 마을특화개발이나 권역거점개발사업 참여 변수의 추정계수보다 약간 크게 나타남. 이는 지역역량 강화가 관광 관련 인프라보다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시사함.
 - 다음으로 호당 수산물 생산액과 호당 보유어선 수, 평균 어촌계원 수, 지역의 평균 발전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음.
- 마지막으로 어촌지역이 마을단위 특화개발, 권역거점 개발, 역량강화사업에 참여, 즉,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을 1, 아니면 0으로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 여부가 어촌지역 소득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추정함(표 3-10 참조).
 -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참여한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 다음으로 호당 수산물 생산액과 호당 보유어선 수, 평균 어촌계원 수, 지역의 평균 발전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음.

〈표 3-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의 정책효과 추정 결과

변수	E8	E9	E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더미	0.0622* (1.6892)	0.0859** (2.3112)	0.0931*** (2.6271)
ln(호당 수산물 생산액)	-	0.0169* (1.9132)	0.0123 (1.4637)
ln(호당 보유어선 수)	-	0.0488** (2.4078)	0.0404** (2.0874)
ln(평균 어촌계원 수)	-	0.1102*** (2.6419)	0.0619 (1.5521)
지역발전 정도	-	-	0.2464*** (13.5913)
상수항	10.26*** (408.87)	9.69*** (49.72)	9.51*** (51.06)
시점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N	2052	2052	2052

□ DID 모형 추정결과 요약

-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참여(관광 관련 인프라 정비 또는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모든 어촌 : 시나리오 C)한 어촌의 소득이 참여하지 않는 어촌(시나리오 A)에 비해, 소득이 9.757% 증가함(모형 E10 기준).
 - 계수의 해석은 $(e^{\beta} - 1) \times 100$, $\beta = 0.0931$ 이므로 9.757%를 얻을 수 있음. 이 계수값에는 관광 관련 인프라 정비 참여에 더해 역량강화사업 참여의 효과도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역량강화사업 참여어촌을 표본에서 제외하고(즉,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상황하에서) 관광 관련 인프라 정비와 연관이 깊은 마을단위 특화사업 개발, 권역거점 개발사업에 참여한 어촌(시나리오 B)과 참여하지 않은 어촌에 비해 소득이 8.199% 증가함(모형 E4 기준).
- 모형 E10 기준 추정 결과와 모형 E4 모형의 계수를 비교하는 것은 관광 관련 인프라 사업참여 어촌에 비해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추가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 모형 E10은 관광 관련 인프라(체험시설, 회관, 경관개선 등) 및 역량강화의 효과를 모두 포함한 모형이며, 모형 E4는 지역역량 강화 정책

의 효과가 모두 제거된 추정 결과

- 역량강화 지원이 추가적으로 증가시킨 소득 증가에의 영향 = (역량강화 지원의 효과가 포함된 추정계수 : E10 기준)-(역량강화 지원의 효과가 제외된 추정계수 : E4)

□ 소득 증가에 따른 산업별 소비증가액을 구하는 수순은 다음과 같음(표 3-11 참조).

- 우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어촌지역의 총소득(어가 가구당 소득 × 어가 수)을 구함.
 - 70개 어촌마을이 속하는 읍면동의 총소득은 7,976.8억 원임.
- 다음으로 어촌뉴딜사업 참여에 따른 어촌소득 증가분 예측치는 상술한 DID 분석의 계수 추정치를 이용함.
 - 관광인프라 정비=8.199%, 관광인프라 정비 + 역량 강화 = 9.757%
- 70개 어촌마을 읍면동의 총소득 7976.8억 원의 9.757% 증가분과 8.199% 증가분을 구함.
 - 전자는 778.3억 원, 후자는 654.0억 원 임.

〈표 3-11〉 어촌뉴딜사업 수혜어촌의 소득증가액 추정

구분	어촌 소득
2017년 어촌 가구당 소득(천 원)	27,277 (월 2,273.1)
뉴딜사업 참여 어촌(읍면동)의 총소득(십억 원)(A)	797.68
$e^{0.0931}=1.097571$ (역량강화 포함)(B)	0.097571487
$e^{0.0788}=1.081988$ (역량강화 불포함)(C)	0.081987903
역량강화 포함 시 소득 증가액(십억 원)(A×B)	77.83
역량강화 불포함 시 소득 증가액(십억 원)(A×C)	65.40

나. 소비 추가에 따른 고용파급효과 추정 결과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가계소비 비율을 구하여 앞에서 구한 소득증가분에 이 비율을 곱하여 소비증가치를

구함($\Delta Y \times 0.923$, $\Delta Y \times 0.824$).

- 본 연구에서는 어촌소득 증대를 추정하였으나, 소득증가분에 대한 비소비지출액을 특정할 수 없음.

-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하기 전의 총소득(비소비지출 포함)과 가계지출(비소비지출 포함)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소비비율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치를 추정함.

- 추정된 소득-소비비율은 소득 2분위 가구의 경우, 0.923이며, 소득 3분위 가구의 경우 0.824임.

○ 본 연구의 대상인 70개 어촌마을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월 227만 3,100원으로 소득 2분위 평균소득 191만 원과 소득 3분위 평균소득 261만 원 구간 사이에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 2분위의 소득-소비비율 0.923과 소득 3분위의 소득-소비비율 0.824의 경우 모두를 분석하여 소득 증가로 인한 고용 및 취업효과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소득에 따른 소비 증가치를 산업별 소비비율(산업별 민간 소비/총 민간소비)을 곱하여 산업별 소비증가치를 구한 후,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구함.

○ 어촌뉴딜사업으로 인한 어촌의 소득 증가가 소비활동으로 이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추가 생산유발효과($(I - A^{-1})^{-1} \Delta C$)는 960억 원에서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됨.

○ 어촌뉴딜사업 참여어촌의 소득 증가가 소비활동으로 이어져 발생한 추가생산파급효과 960억 원 ~ 1,280억 원을 바탕으로 추가 고용유발효과와 추가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3-12>와 <표 3-13>에 제시되어 있음.

○ <표 3-12>에는 어촌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소득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평균소득-소비비율 0.923($\Delta Y \times 0.923$)을 적용시켜 추가적으로 파급시킨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이며, <표 3-13>에는 평균소득-소비비율 0.824($\Delta Y \times 0.824$)를 적용시켜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대상인 70개 어촌마을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월 227만

3,100원으로 소득 2분위 평균소득 191만 원과 소득 3분위 평균소득 261만 원 구간 사이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 2분위의 소득-소비비율 0.923과 소득 3분위의 소득-소비비율 0.824의 경우 모두를 분석하여 소득 증가로 인한 고용 및 취업효과와 범위를 제시하고자 함.

〈표 3-12〉 소비를 통한 추가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평균 소득-소비비율 0.923)

(단위: 명)

구분	역량강화사업 포함		역량강화사업 미포함	
	고용효과	취업효과	고용효과	취업효과
농산물	6.1	87.9	5.2	73.9
수산물	0.9	4.0	0.8	3.4
광산물	0.2	0.2	0.2	0.2
음식료품 담배	20.7	27.2	17.4	22.9
섬유, 의복, 가죽제품	11.8	16.5	9.9	13.9
목재, 종이, 인쇄	4.8	5.9	4.0	5.0
석탄 및 석유제품	0.3	0.3	0.3	0.3
화학제품	7.5	8.0	6.3	6.7
비금속광물제품	0.7	0.9	0.6	0.7
1차금속제품	1.0	1.1	0.8	0.9
금속가공제품	3.0	3.6	2.5	3.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4.5	4.8	3.7	4.0
전기장비	4.3	4.6	3.6	3.8
기계 및 장비	1.7	2.0	1.5	1.7
운송장비	10.1	10.5	8.5	8.8
선박	0.1	0.1	0.0	0.1
기타 운송장비	0.3	0.3	0.2	0.2
기타 제조업 제품	4.7	7.3	4.0	6.2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6.0	7.1	5.0	6.0
전력, 가스, 수도	6.9	7.4	5.8	6.2
건설	2.8	3.8	2.3	3.2
도소매업	88.8	150.7	74.6	126.6
운송서비스	28.6	51.9	24.0	43.6
음식숙박서비스업	65.1	125.1	54.7	105.1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3.0	25.8	19.3	21.7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8.5	40.8	32.4	34.2

〈표 3-12〉의 계속

구분	역량강화사업 포함		역량강화사업 미포함	
	고용효과	취업효과	고용효과	취업효과
부동산서비스	21.5	35.1	18.1	29.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1.7	24.4	18.2	20.5
사업지원서비스	36.2	39.0	30.5	3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1	3.1	2.6	2.6
교육서비스	53.0	66.0	44.6	55.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53.3	56.0	44.8	47.1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6.3	9.7	5.3	8.2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10.7	19.3	9.0	16.2
기타 서비스	34.7	68.3	29.1	57.4
합 계	582.9	918.7	489.8	772.0

〈표 3-13〉 소비를 통한 추가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평균 소득-소비비율 0.824)

(단위: 명)

구분	역량강화사업 포함		역량강화사업 미포함	
	고용효과	취업효과	고용효과	취업효과
농산물	5.4	77.7	4.6	65.3
수산물	0.8	3.6	0.7	3.0
광산물	0.2	0.2	0.1	0.1
음식료품 담배	18.3	24.1	15.4	20.2
섬유, 의복, 가죽제품	10.4	14.6	8.7	12.3
목재, 종이, 인쇄	4.2	5.3	3.5	4.4
석탄 및 석유제품	0.3	0.3	0.3	0.3
화학제품	6.6	7.1	5.6	5.9
비금속광물제품	0.6	0.8	0.5	0.6
1차금속제품	0.9	0.9	0.7	0.8
금속가공제품	2.6	3.2	2.2	2.7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3.9	4.2	3.3	3.5
전기장비	3.8	4.0	3.2	3.4
기계 및 장비	1.5	1.8	1.3	1.5
운송장비	8.9	9.3	7.5	7.8
선박	0.1	0.1	0.0	0.0
기타 운송장비	0.2	0.3	0.2	0.2
기타 제조업 제품	4.2	6.5	3.5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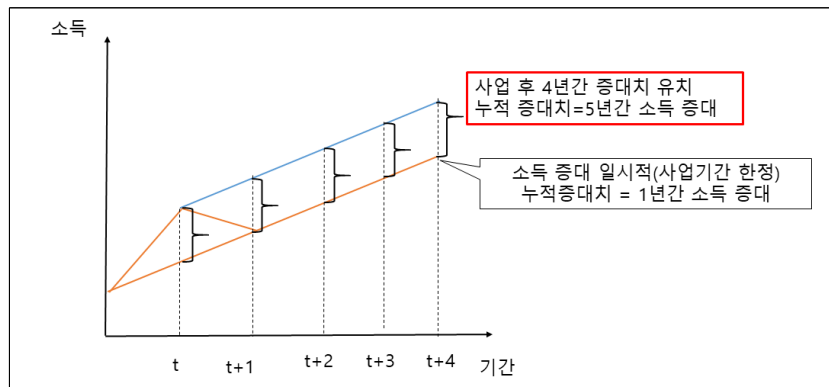
〈표 3-13〉의 계속

구분	역량강화사업 포함		역량강화사업 미포함	
	고용효과	취업효과	고용효과	취업효과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5.3	6.3	4.4	5.3
전력, 가스, 수도	6.1	6.5	5.1	5.5
건설	2.5	3.4	2.1	2.8
도소매업	78.5	133.3	66.0	112.0
운송서비스	25.3	45.9	21.2	38.6
음식숙박서비스업	57.6	110.6	48.4	93.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0.3	22.8	17.1	19.1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4.1	36.0	28.6	30.3
부동산서비스	19.0	31.1	16.0	2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9.2	21.6	16.1	18.1
사업지원서비스	32.0	34.5	26.9	29.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7	2.7	2.3	2.3
교육서비스	46.9	58.4	39.4	49.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47.1	49.6	39.6	41.6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5.6	8.6	4.7	7.2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9.5	17.0	8.0	14.3
기타 서비스	30.7	60.4	25.8	50.8
합 계	515.5	812.5	433.2	682.7

○ 어촌뉴딜사업으로 인한 소득 증대가 소비활동을 증가시켜 추가적으로 유발된 취업자 수는 〈표 3-12〉의 “역량강화사업 참여와 소득-소비비율을 0.923”으로 설정했을 경우 919명의 추가 취업자가, 583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함.

- 한편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소득-소비비율이 0.824의 경우의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최소치)는 각각 683명, 433명으로 나타남(표 3-13 참조).
- 마을특화개발 및 권역거점개발사업에만 참여한 경우에 비해 역량강화사업 참여의 추가 고용효과는 고용효과에서 87명, 취업효과에서 137명이 추가로 나타남(역량강화사업 참여의 경우 소득증가효과가 1.6% 더 높음에 기인함).

- 역량강화사업은 모든 표본에서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비교적 최근에 사업이 시작된 시도 역량강화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역량강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체계적인 접근에 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촌공동체 사업의 자생력 강화가 핵심이며,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사업효과 지속화가 관건임.
- 소득 증가로 인한 추가 고용효과의 범위는 고용효과의 경우 연간 433~583명의 고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취업효과의 경우 연간 683~919명의 추가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p. 4를 보면, 사업종료 이후 최소 3년간($t+3$ 년까지) 협의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으로 고려하면 최소 5년간(당해년도 $+4$ 년)은 사업효과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 사업종료 후 5년간 소득증대효과가 지속되는 상황을 상정하면 취업효과는 다음과 같음.
 - 연간 433~583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사업 종료 이후 4년간($t+4$)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즉, 소득 증대효과가 당해년도 투입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 소득이 5년간($1+4$ 년 = 5년) 지속되므로 누적 고용효과는 2,165~2,915명에 달하며, 누적 취업효과는 3,415~4,595명에 달함(아래의 그림 참조).



어촌뉴딜사업의 질적 고용효과 분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어촌뉴딜사업 관련 고용실태 파악 및 인력육성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 조사와 집중인터뷰(FGI) 활용
- 실태조사는 어촌뉴딜사업의 추진주체인 어촌뉴딜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며, 협의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촌계 계장 혹은 해당마을 이장을 응답주체로 설정함.
- FGI는 어촌뉴딜사업 추진주체, 지자체공무원, 전문가, 사업체 대상 집중 인터뷰를 진행

1. 조사의 개요

- 어촌뉴딜사업은 지역 어촌단위(어촌뉴딜협의체, 어촌계 중심)의 어항 및 생활 인프라, 어촌주민 역량 강화,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지원금 사업임.
- 어촌뉴딜사업은 어항 및 생활 인프라, 어촌주민 역량 강화,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주된 사업이며, 사업비 수혜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뉴딜협의체 등에 지급하는 것임.

- 어촌뉴딜사업은 지역 어촌단위(어촌뉴딜협의체, 어촌계 중심)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체 위탁(임대)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어촌뉴딜협의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 이에 더하여 앞의 계량적 고용효과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이고 정성적인 고용효과 및 고용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제언도 도출함.

2. 조사 대상 및 방법

- 어촌뉴딜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조사는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된 70개 지역의 어촌뉴딜협의체의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 및 변화, 어촌뉴딜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음.
 - 어촌계 계장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
 - 어촌뉴딜 선정지역은 해당지자체 공무원이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창구역할을 수행
- 주변 업체에 대한 조사는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함.
 - 어촌뉴딜사업 선정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 사업참여 의사, 참여 시 기대 고용효과, 어촌뉴딜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음.
 - 덧붙여,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여 향후 어촌뉴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조사는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하였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방문조사, 전화조사 및 팩스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조사대상 사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자 편의에 따라 조사방법을 선택하였음.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 조사응답은 총 70개 중 60개가 응답하여, 85.7%의 응답률을 보임.
- 응답마을의 분포는 모집단의 지역분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는 어촌뉴딜사업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기에 충분함.

[그림 4-1] 마을기업 설립 여부



<표 4-1> 조사 모집단 및 응답 결과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합계
모집단	2	1	16	6	5	26	5	3	6	70
조사 완료	2	1	14	5	3	21	5	3	6	60
응답률 (%)	100.0	100.0	87.5	83.3	60.0	80.8	100.0	100.0	100.0	85.7

- 마을기업 설립은 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영리목적의 사업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임.
 - 마을기업 설립 여부는 영리사업 진행에 따른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분석에 주요 구분항목으로 활용함.
- 어촌뉴딜사업 고용실태조사 결과 마을기업 설립 여부는 설립 20개(33.3%), 미설립 40개(66.7%)로 나타남.
 - 마을기업 설립은 전남 7개, 경남 4개, 충남 3개 순으로 나타남.
- 마을의 주요활동은 행사준비 지원, 수산물 판매시설 운영이 각각 22개, 10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활동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2〉 마을기업 설립 여부

구분		사례 수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전체]		60	33.3	66.7
시군	인천	3	33.3	66.7
	울산	1	0.0	100.0
	경기	1	100.0	0.0
	강원	2	0.0	100.0
	충남	6	50.0	50.0
	전북	5	40.0	60.0
	전남	21	33.3	66.7
	경북	4	50.0	50.0
	경남	14	28.6	71.4
	제주	3	0.0	100.0
주요활동	수산물 판매시설 운영	10	50.0	50.0
	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3	66.7	33.3
	체험시설(짭뽕어 체험시설 등) 운영	2	0.0	100.0
	숙박시설 및 식당 운영	4	25.0	75.0
	체험마을(갯벌 체험장, 낚시터 등) 운영	4	50.0	50.0
	행사준비 지원	22	27.3	72.7
	기타	13	23.1	76.9
	무응답	2	50.0	50.0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20	100.0	0.0
	마을기업 미설립	40	0.0	100.0

- 연간 총 이용객 수(평균)는 2016년 6만 2,558명에서 2017년 5만 9,502명으로 적어졌다가 2018년 6만 1,945명으로 약간 오름.
 - 갯벌체험장은 연간 총이용객 수(평균)가 꾸준히 줄어들었고, 낚시터 체험장, 수산물 가공업은 꾸준히 올랐음.
- 마을기업이 설립된 마을이 미설립 마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용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남.
 - 이용객 유치의 확대를 위해 마을기업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음.

〈표 4-3〉 연간 총 이용객(평균)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사례 수		60	20	40
갯벌체험장	2016	39,302	51,803	1,800
	2017	36,765	48,520	1,500
	2018	34,297	45,130	1,800
낚시터 체험장	2016	592	525	659
	2017	695	734	655
	2018	724	792	655
특산물 판매장	2016	31,716	37,760	1,500
	2017	22,950	27,280	1,300
	2018	25,766	30,640	1,400
수산물 가공업	2016	100	100	100
	2017	250	250	250
	2018	500	500	500
숙박(민박)시설	2016	29,050	57,066	1,033.33
	2017	29,050	57,083	1,016.67
	2018	35,691	70,433	950
회센터 등 음식점	2016	37,285	70,450	24,020
	2017	39,657	70,500	27,320
	2018	38,092	70,550	25,110
해양레포츠 시설	2016	500,749	667,166	1,500
	2017	500,649	667,066	1,400
	2018	500,674	667,232	1,000

〈표 4-3〉의 계속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기타	2016	150,000	150,000	150,000
	2017	150,000	150,000	150,000
	2018	150,000	150,000	150,000
전체 평균	2016	62,558	101,132	18,474
	2017	59,502	93,422	20,737
	2018	61,945	99,409	19,130

- 마을기업을 설립한 곳의 매출액(합계)은 2016년 약 154억에서 약 139억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 마을기업을 미설립한 곳의 매출액(합계)은 2016년 약 22억에서 약 23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총 이용객의 변화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표 4-4〉 연간 총 매출액(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사례 수		60	20	40
전체 합계	2016	1,181.80	1,937.38	318.29
	2017	1,172.40	1,887.88	354.71
	2018	1,087.80	1,740.38	342.00
갯벌체험장	2016	698.00	927.00	11.00
	2017	700.75	928.00	19.00
	2018	521.75	689.67	18.00
뉘시터 체험장	2016	12.00	14.00	10.00
	2017	12.75	15.50	10.00
	2018	15.00	20.00	10.00
특산물 판매장	2016	425.00	506.40	18.00
	2017	423.17	506.00	9.00
	2018	434.50	519.20	11.00

〈표 4-4〉의 계속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수산물 가공업	2016	4.00	4.00	4.00
	2017	7.00	7.00	7.00
	2018	13.00	13.00	13.00
숙박(민박)시설	2016	1,088.33	2,103.33	73.33
	2017	1,056.00	2,035.00	77.00
	2018	968.67	1,860.00	77.33
회센터 등 음식점	2016	789.86	1,810.00	381.80
	2017	800.71	1,725.50	430.80
	2018	782.29	1,706.00	412.80
해양레포츠 시설	2016	85.00	120.00	50.00
	2017	75.00	100.00	50.00
	2018	90.00	130.00	50.00
기타	2016	104.00	104.00	104.00
	2017	95.00	95.00	95.00
	2018	83.00	83.00	83.00

- 향후 3년간 지역 연평균 이용객 증가 예상수준에 대해 응답한 마을은 감소 예상 1개(6.7%), 증가예상 14개(93.9%)로 나타남.
 - 전체 15개 마을 중 연평균 이용객이 20~30% 미만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마을이 6개(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마을이 4개(26.7%)로 많음.
- 주요활동에서 수산물 판매시설 운영에 대한 연평균 이용객 증가를 예상하는 마을이 7개로 가장 많음.
 - 체험마을(갯벌 체험장, 낚시터 등) 운영이 3개, 숙박시설 및 식당 운영이 2개 순으로 나타남.
- 마을기업 유무에 따라서는 설립한 8개 마을은 모두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 마을기업을 미설립한 7개 마을은 1개(14.3%)를 제외하고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표 4-5〉 향후 3년간 지역 연평균 이용객 증가 예상수준

구분		사례 수	이용객 감소	0~10% 미만 증가	10~20% 미만 증가	20~30% 미만 증가	30% 이상 증가
[전체]		15	6.7	13.3	13.3	40.0	26.7
주요 활동	수산물 판매 시설 운영	7	0.0	14.3	14.3	42.9	28.6
	수산물 가공 시설 운영	1	0.0	0.0	0.0	0.0	100.0
	체험시설(짚뚱어 체험 시설 등) 운영	1	100.0	0.0	0.0	0.0	0.0
	숙박시설 및 식당 운영	2	0.0	0.0	0.0	50.0	50.0
	체험마을(갯벌 체험장, 낚시터 등) 운영	3	0.0	33.3	33.3	33.3	0.0
	기타	1	0.0	0.0	0.0	100.0	0.0
마을 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8	0.0	12.5	25.0	25.0	37.5
	마을기업 미설립	7	14.3	14.3	0.0	57.1	14.3

- 향후 3년간 지역 연평균 어업 외 소득 증가 예상수준에 응답한 15개 마을은 감소 예상 1개(6.7%), 증가 예상 14개(93.9%)로 나타남.
 - 0~10% 미만 증가 예상 비중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주요활동에 따른 마을들의 향후 3년간 소득 증가 예상수준에 대해 수산물 판매시설 운영이 7개, 체험마을(갯벌 체험장, 낚시터 등) 운영 3개, 숙박시설 및 식당 운영 2개 순으로 응답함.
 - 주요활동이 수산물 판매시설 운영인 마을 7개 중 20~30% 미만 증가를 예상하는 곳이 3개(42.9%), 10~20% 미만을 예상하는 곳이 2개(28.6%), 0~10% 미만 증가, 30% 이상 증가가 각각 1개(14.3%)이며 감소를 예상하는 곳은 없음.
- 마을기업 유무에 따라서는 설립한 8개의 마을 모두 소득 증가를 예상했으며, 마을기업을 미설립한 7개 마을은 감소 1개(14.3%)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 연간 이용객 증가 예상수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표 4-6〉 향후 3년간 지역 연평균 어업 외 소득 증가 예상수준

구분		사례 수	이용객 감소	0~10% 미만 증가	10~20% 미만 증가	20~30% 미만 증가	30% 이상 증가
[전체]		15	6.7	33.3	26.7	20.0	13.3
주요 활동	수산물 판매 시설 운영	7	0.0	14.3	28.6	42.9	14.3
	수산물 가공 시설 운영	1	0.0	0.0	0.0	0.0	100.0
	체험시설(짚동어 체험 시설 등) 운영	1	100.0	0.0	0.0	0.0	0.0
	숙박시설 및 식당 운영	2	0.0	50.0	50.0	0.0	0.0
	체험마을(갯벌 체험장, 낚시터 등) 운영	3	0.0	100.0	0.0	0.0	0.0
	기타	1	0.0	0.0	100.0	0.0	0.0
마을 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8	0.0	37.5	12.5	25.0	25.0
	마을기업 미설립	7	14.3	28.6	42.9	14.3	0.0

2. 인력 및 고용 현황

○ 60개 마을은 총 2,245명이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174명으로 7.8% 수준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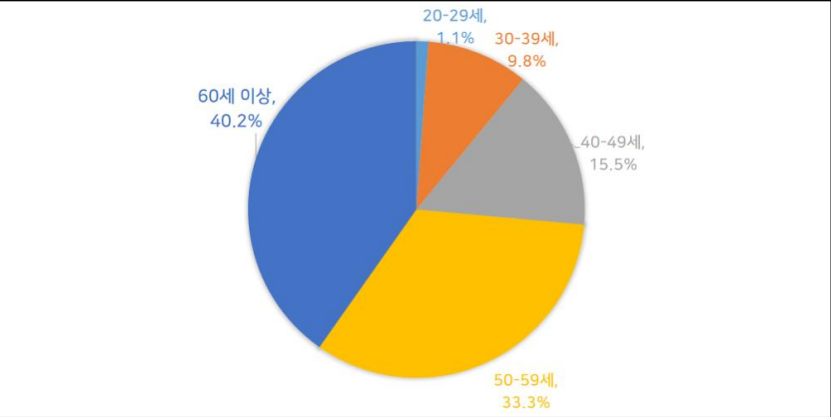
- 연령별 참여인력 비중은 30~39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모를 구성하는 연령별 인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표 4-7〉 연령별 인구 현황 및 사업참여 현황

구분	마을 전체 인구 현황 연령별 인구	사업참여 인력 현황 연령별 근무 인력	연령별 사업참여 비중
20~29세	56명	2명	3.6%
30~39세	125명	17명	13.6%
40~49세	347명	27명	7.8%
50~59세	485명	58명	12.0%
60세 이상	1,232명	70명	5.7%
합계	2,245명	174명	7.8%

○ 연령별 사업참여 비중은 60세 이상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2] 연령별 사업참여 비중



- 60개 마을은 총 118명의 인력을 투입(어촌계장, 사무장 제외)하고 있으며 이 중 급여가 있는 고용자는 16명, 평균 월급여는 207.6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 인력은 투입되고 있으나, 어촌계 계장, 사무장,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품앗이 형태로 투입되고 있음.

<표 4-8> 운영사업별 투입인력

구분		인력투입 마을 수	투입인력 현황(투입인력이 있는 경우)			
			어촌계장, 사무장 외 기타인력	유급/무급		유급인력 월 급여 (단위 : 만 원)
사무 관리	1. 어촌계의 사무장 또는 간사	14	6명	유급	4	175
				무급	2	
사업 관련 지원	2. 체험프로그램 진행 지원 및 시설 관리 인력	7	6명	유급	2	300
				무급	4	
	3. 해수욕장 운영지원 인력	2	2명	유급	1	250
				무급	1	
	4. 해양레저시설 운영지원 인력	4	6명	유급	2	200
				무급	4	

〈표 4-8〉의 계속

구분		인력투입 마을 수	투입인력 현황(투입인력이 있는 경우)			
			어촌계장, 사무장 외 기타인력	유급/무급		유급인력 월 급여 (단위: 만 원)
사업 관련 지원	5. 숙박시설 운영지원 인력	6	51명	유급	1	75
				무급	50	
	6. 회센터(식당, 레스토랑) 운영 지원 인력	8	30명	유급	1	226
				무급	29	
	7. 캠핑장 운영지원 인력	3	2명	유급	2	175
				무급	1	
사업 관련 지원	8. 특산물 판매장 판매 인력	6	3명	유급	1	175
				무급	2	
	9. 수산물 가공업 생산 인력	2	1명	유급	1	250
				무급	0	
	10. 해양레저시설 안전교육강사 (인스트럭터)	3	6명	유급	1	250
				무급	5	
체험 프로그램 기획	12. 체험·생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인력	3	3명	유급	0	-
				무급	3	
마케팅 홍보	13. 여행 상품기획 인력	1	0명	유급	0	-
				무급	0	
마케팅 홍보	14. 여행객 유치전략, 홍보마케팅 인력	4	2명	유급	0	-
				무급	2	
합계		63	118명	유급	16	207.6
				무급	102	

주: ※ 마을별 사무장 56명을 제외한 집계결과임.

○ 부족인력 조사 결과는 60개 마을 중 20개 마을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족인력은 총 29명으로 집계되었음.

- 홍보마케팅(8명), 체험프로그램 진행 지원(6명)이 부족인원 전체의
48.2%를 차지하고 있음.

〈표 4-9〉 운영 중인 사업별 투입인력

운영사업	마을	부족인원
사무관리	4	4
체험 프로그램 기획	3	4
홍보 마케팅	5	8
체험 프로그램 진행 지원	4	6
특산물 판매, 음식점 서비스 지원	2	3
숙박시설 서비스 지원	2	4
부족인원 합계	20	29

- 어촌뉴딜사업 참여 시, 신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원활하다고 답한 마을이 31개(51.7%),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답한 마을이 29개(48.3%)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0〉 사업운영 관련 신규 전문인력 확보

구분		사례 수	신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원활함	신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움
[전체]		60	51.7	48.3
주요활동	수산물 판매시설 운영	10	30.0	70.0
	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3	0.0	100.0
	체험시설(짬뽕어 체험시설 등) 운영	2	50.0	50.0
	숙박시설 및 식당 운영	4	0.0	100.0
	체험마을(갯벌체험장, 낚시터 등) 운영	4	50.0	50.0
	행사준비 지원	22	72.7	27.3
	기타	13	53.8	46.2
	무응답	2	100.0	0.0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20	65.0	35.0
	마을기업 미설립	40	45.0	55.0

- 29개의 전체 사례 중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촌계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선택한 마을이 전체의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운영 관련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사례 수는 29개임.

- 정부로부터 지원조직 형태로 전문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마을이 34.5%, 우수한 업체 유치를 통해 전문인력 부족을 충원한다는 마을이 13.8%, 기타 6.9% 순으로 나타남

○ 마을기업을 설립한 마을 7개 중 정부로부터 지원조직 형태로 전문인력 지원을 받는 곳이 4개(57.1%)로 가장 높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촌계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육성하자는 곳이 3개(42.9%)로 나타남.

〈표 4-11〉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

구분		사례 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촌계원 중에서 전문인력 육성	정부로부터 지원조직 형태로 전문인력 지원을 받음	우수한 업체 유치를 통해서 전문인력 부족 극복	기타
[전체]		29	44.8	34.5	13.8	6.9
주요활동	수산물 판매시설 운영	7	42.9	42.9	0.0	14.3
	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3	66.7	33.3	0.0	0.0
	체험시설(짚동어 체험시설 등) 운영	1	100.0	0.0	0.0	0.0
	숙박시설 및 식당 운영	4	25.0	0.0	75.0	0.0
	체험마을(갯벌체험장, 낚시터 등) 운영	2	50.0	50.0	0.0	0.0
	행사준비 지원	6	33.3	50.0	16.7	0.0
	기타	6	50.0	33.3	0.0	16.7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7	42.9	57.1	0.0	0.0
	마을기업 미설립	22	5.5	27.3	18.2	9.1

3. 고용여건

- 고용여건은 투입인력의 학력수준, 고용형태 및 여건 등을 의미하며, 60개 마을에서 사업운영에 투입된 인력을 대상으로 집계된 결과를 제시함.
 - 고용여건 분석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됨.
- 학력수준은 고졸 이하가 147명으로 84.5%를 차지하고 있음.
 -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춘 투입인력은 전체 15명으로 8.6% 수준임.

〈표 4-12〉 투입인력 학력수준

구분	전체 종사자 수	사무관리	마케팅 홍보	체험프로그램 기획	사업 관련 지원
고졸 이하	147	41	20	2	84
전문대 졸업	12	4	5	2	1
대학교 졸업	15	8	0	0	7
대학원 졸업 이상	0	0	0	0	0
합계	174	53	25	4	92

- 종사상 직위는 청년층의 상용직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상용직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3〉 투입인력의 구성 및 고용형태

구분	청년층(15~34세)	여성	고령층(55세 이상)
상용직	8	50	75
임시 일용직	11	18	56
합계	19	68	131

주: ※ 여성은 청년층, 고령층 중복으로 표기.

- 고용여건은 임시일용직이 상용직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적임.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3시간으로 52시간을 기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근로일수는 16일로 상당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4〉 고용여건

항목	내용
주당 평균 근로시간(단위 : 시간)	33
1개월 중 야간 근로하는 일자(단위 : 일)	16
평균임금_상용직(월, 단위 : 원)	1,981,250
평균임금_임시일용직(월, 단위 : 원)	2,666,667

4. 정부 어촌지원사업 참여

- 정부 어촌지원사업 참여는 어촌뉴딜사업* 이전에 정부에서 집행한 지원

사업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 참여목적, 규모, 지원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

※ 어촌지원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어항 관광조성사업, 일반농산어촌사업 등, 어촌마을 생활기반시설 구축 지원, 어항기반시설 구축 지원, 체험관광사업 지원, 지역역량강화사업 등과 예산지원사업

- 정부 어촌지원사업 참여는 60개 마을 중 29개 마을이 참여한 경험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표 4-15〉 어촌지원사업 참여 여부

구분	마을법인 있음	마을법인 없음	총합계
지원사업 수혜	12	17	29
지원사업 비수혜	8	23	31
총합계	20	40	60

- 정부 어촌지원사업에 참여한 29개 마을의 3년간 총 수혜금액은 1,186억원 규모이며 평균 15.1억 원으로 집계되었음.
- 기존 지원사업이 평균 15.1억 원임을 감안할 때, 300억 원 규모의 어촌뉴딜사업은 상당히 큰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6〉 어촌지원사업 사업비(29개 마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전체합계 및 평균
어촌지원 사업비 (합계금액)	3,046	2,579	113,033	118,658
어촌지원 사업비 (평균금액)	112.8	99.2	4,347.4	1,519.8

- 정부 어촌지원사업에 참여한 목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29개 마을 중 22개 마을에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어촌마을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어촌뉴딜사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표 4-17〉 어촌지원사업 참여목적

참여목적	결과
① 어촌관광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소득 획득, 수산물 판매소득 획득, 서비스업체 운영 등 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	22
②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 유입, 청장년층 인구 증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5
③ 어촌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존·계승·발전 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을 지원하기 위하여	-
④ 어촌관광을 통해 어촌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지명도 를 높이거나, 어촌의 인지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
합계	29

- 기존 어촌지원사업의 효과는 49.7%가 ‘별다른 영향 없음’으로 집계되었
어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실태조사에서 정부 어촌지원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어촌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금이 없었다면 예상되는 귀 지역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항목별로 표시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항목을 포함

〈표 4-18〉 어촌지원사업 효과

구분		크게 감소	감소	별다른 영향 없음	증가	크게 증가	합계
관광 활성화		2	15	11	1	-	29
정주여건, 인구유입		2	9	16	2	-	29
지역소득		2	12	12	3	-	29
지역문화 보존 계승 및 발전		-	7	19	3	-	29
지역 인지도 상승		2	7	14	5	1	29
합계	빈도	8	50	72	14	1	145
	비중	5.5%	34.5%	49.7%	9.7%	0.7%	100.0%

주: ※질문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

- 기존 어촌지원사업의 애로사항은 현장의견 반영 미흡이 2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관련규제, 지원혜택이 20.8%로 나타났다.
- 사업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당지역을 방문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19〉 어촌지원사업 애로사항

항목	빈도	비중
① 복잡한 서류 작성	7	13.2%
② 현장의견 반영 미흡	14	26.4%
③ 지원정보 부족	6	11.3%
④ 부실한 지원혜택	11	20.8%
⑤ 아쉬운 점 없음	4	7.5%
⑥ 법규제 제약 등 관련규제	11	20.8%
합계	53	100.0%

- 기존 어촌지원사업의 실패요인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검토 부족’이 3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실패요인 중 지역주민 간 의견 수렴이 20.7%로 집계됨.

〈표 4-20〉 어촌지원사업 실패요인

항목	빈도	비중
① 사업운영 주체의 사업운영 능력 부족	5	17.2%
②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검토 부족	11	37.9%
③ 지역주민 간 의견 수렴이 어려움	6	20.7%
④ 사업운영 주체의 경영마인드 부족	2	6.9%
⑤ 사업운영 주체의 사업시설 관리능력 부족	-	0.0%
⑥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 곤란	5	17.2%
합계	29	100.0%

- 정부 어촌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어촌지역의 마을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둘째, 기존의 어촌지원사업은 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셋째, 기존의 어촌지원사업의 애로사항 및 실패요인은 현장의견의 수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도출되었음.
- 어촌뉴딜사업은 선정단계에서 1차 사업계획을 받은 후 선정되면, 다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됨.

5. 어촌뉴딜사업 참여와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 본 절은 어촌뉴딜사업 참여를 통해 기대되는 혹은 예상되는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효과에 대해서 분석함.
 - 어촌뉴딜사업은 어촌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다양한 시설을 구축한 후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사업운영은 고용유발로 이어지게 되며, 얼마만큼의 인력을 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효과를 전망함.
- 어촌뉴딜사업 수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신규 고용인력 수의 60개 마을의 합계는 전체 신규 채용인력은 341명,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이 57명임.
 - 예상되는 전체 신규 채용인력의 합계는 ‘마을법인사무장’ 64.00명, ‘회센터운영지원’ 49명, ‘체험프로그램진행지원’ 41명 순으로 높음.
 - 예상되는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의 합계는 ‘마을법인사무장’, ‘숙박시설운영지원’, ‘특산물판매장판매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마을기업이 설립된 20개 마을의 경우 예상 신규 고용인력의 수의 합계는 전체 신규 채용인력 146명,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은 31명임.
 - 예상되는 전체 신규 채용인력의 합계는 ‘마을법인사무장’ 28명, ‘특산물판매장판매인력’이 24명, ‘체험프로그램진행지원’ 21명 순으로 높음.
 - 예상되는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은 마을법인사무장, ‘숙박시설운영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마을기업이 미설립된 40개 마을의 경우 예상 신규 고용인력의 수의 합계는 전체 신규 채용인력은 195명,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은 26명임.
 - 예상되는 전체 신규 채용인력의 합계에서는 ‘회센터운영지원’이 45명, ‘마을법인사무장’ 36명, ‘체험프로그램진행지원’ 20명 순으로 높음.

〈표 4-21〉 예상 신규 고용인력 수(합계)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사례수	60개	20개	40개
합계	전체 신규 채용인력	341	146	195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57	34	23
	고용인력	398	177	221
마을법인사무장	전체 신규 채용인력	64	28	36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10	6	4
체험프로그램진행지원	전체 신규 채용인력	41	21	20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5	4	1
해수욕장운영지원	전체 신규 채용인력	8	2	6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1	0	1
숙박시설운영지원	전체 신규 채용인력	27	16	11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9	5	4
해양레저시설운영지원	전체 신규 채용인력	17	3	14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3	1	2
화센터운영지원	전체 신규 채용인력	49	4	45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5	1	4
캠핑장운영지원	전체 신규 채용인력	9	4	5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2	1	1
디자인정비, 홍보마케팅	전체 신규 채용인력	4	4	0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1	1	0
알림센터등안내지원	전체 신규 채용인력	4	0	4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2	0	2
특산물판매장판매인력	전체 신규 채용인력	40	24	16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5	3	2
체험생태프로그램기획	전체 신규 채용인력	9	3	6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1	1	0
여행상품기획개발	전체 신규 채용인력	3	1	2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1	1	0
홍보마케팅인력	전체 신규 채용인력	2	1	1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1	1	0

〈표 4-2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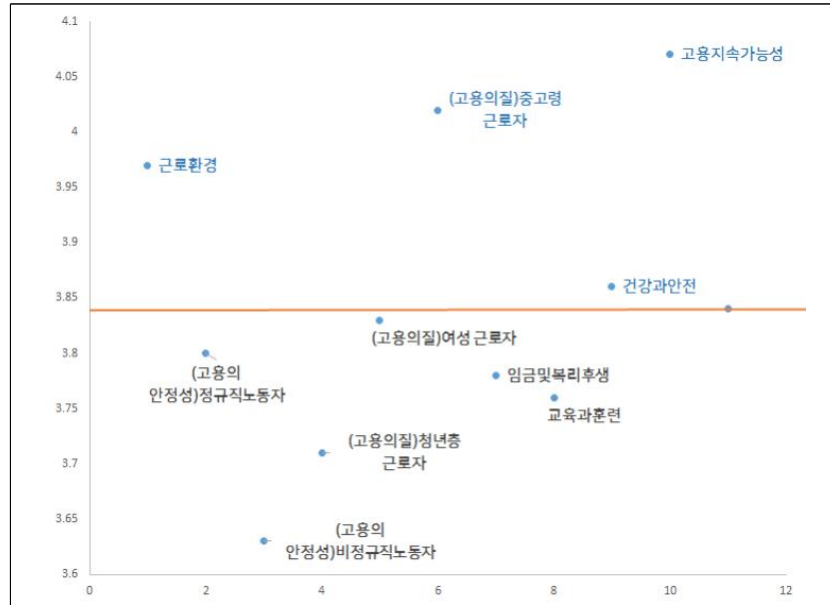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사례수	60개	20개	40개
해당레저스포츠체험 운영인력	전체 신규 채용인력	11	5	6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2	2	0
수상레저스포츠체험 관리인력	전체 신규 채용인력	12	5	7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2	1	1
해양레저스포츠시설등 운영관리	전체 신규 채용인력	6	4	2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2	1	1
체험, 요리체험등강사운영	전체 신규 채용인력	7	2	5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2	2	0
창업지원인력	전체 신규 채용인력	28	19	9
	미취업자 신규 채용인력	3	0	3

- 어촌뉴딜사업에 참여할 경우, 고용인원들의 고용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응답임.
- 전체로 봤을때 고용지속가능성의 점수가 4.07(높음)로 가장 높음.
 - 점수는 “① 매우 감소 ② 감소 ③ 그대로 ④ 증가 ⑤ 매우 증가 ⑥ 해당없음”으로 구성하여 응답에 따라 산출한 평균임.

〈표 4-22〉고용환경 변화

구분		점수
근로환경		3.97
고용안정성	정규직노동자	3.80
	비정규직노동자	3.63
고용의질	청년층 근로자	3.71
	여성 근로자	3.83
	중고령 근로자	4.02
임금및복지후생		3.78
교육과훈련		3.76
건강과안전		3.86
고용지속가능성		4.07
전체 평균		3.84

[그림 4-3] 고용환경 변화



6. 여촌뉴딜사업 추진주체

- 전체 60개의 마을 중 지역(협의체)의 여촌활성화사업을 운영한 마을이 25%, 사업 운영이 없는 마을이 75%임.
 - 수산물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10개의 마을 중 여촌활성화사업을 하는 곳은 7개, 하지 않는 곳이 3개임.
 - 그 외 기타 활동을 하는 13개의 마을 중 여촌활성화사업을 하는 곳이 1개, 하지 않는 곳이 12개임.
- 마을기업을 설립한 20개의 마을 중 여촌활성화사업을 운영하는 마을이 8개(40%), 하지 않은 마을이 12개임(60%).
 - 마을기업을 미설립한 40개 중 여촌활성화사업 운영 마을은 7개 (17.5%), 하지 않은 마을이 33개(82.5%)로 여촌활성화사업을 하지 않는 마을 비중이 큼.

〈표 4-23〉 지역(협의체)의 어촌활성화사업 운영 여부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60	25.0	75.0
주요활동	수산물 판매시설 운영	10	70.0	30.0
	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3	33.3	66.7
	체험시설(짚뚱어 체험시설 등) 운영	2	50.0	50.0
	숙박시설 및 식당 운영	4	50.0	50.0
	체험마을(갯벌 체험장, 낚시터 등) 운영	4	75.0	25.0
	행사준비 지원	22	0.0	100.0
	기타	13	7.7	92.3
	무응답	2	0.0	100.0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20	40.0	60.0
	마을기업 미설립	40	17.5	82.5

- 어촌뉴딜사업 참여를 통한 어촌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항목들이 지역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평가에 대한 응답임
- 응답자들은 ① ‘매우 작다’에서 ⑤ ‘매우 크다’까지로 점수를 부여함.
 - ‘최신의 쾌적한 편의시설 및 어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여도가 4.03점으로 가장 크고, ‘친수공간, 공원 등 정비를 통해 마을경관 개선’이 4.00점, ‘체험장, 낚시터 등 해양레저시설 정비’가 3.83점으로 높음.
 - 모든 항목의 점수가 3.50점 이상인 것으로 보아 마을들이 어촌뉴딜사업 참여에 대해 어촌 활성화에 대한 항목들의 기여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예상함을 볼 수 있음.

〈표 4-24〉 어촌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사례수	60	20	40
최신의 쾌적한 편의시설 및 어항 인프라 확충	4.03	4.05	4.03
체험장, 낚시터 등 해양레저시설 정비	3.83	3.65	3.93
친수공간, 공원 등 정비를 통해 마을경관 개선	4.00	3.85	4.08
지역적인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3.80	3.70	3.85

〈표 4-24〉의 계속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사업운영 능력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지원 조직을 지원	3.75	3.75	3.75
홍보 마케팅 강화	3.68	3.60	3.73
우수한 기획인력(전문인력) 충원	3.50	3.65	3.43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확대	3.77	3.90	3.70
우수한 관련 업체들의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3.53	3.55	3.53
사업운영의 전문화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동경영체가 전문 경영조직으로 발전	3.50	3.70	3.40

○ 어촌뉴딜사업 참여 시 다양한 사업들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자들은 ①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서 ⑤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까지로 점수를 부여함.

- ‘친수공간, 공원 등 정비를 통해 마을경관 개선’의 평균이 3.98점으로 가장 크고, ‘최신의 쾌적한 편의시설 및 어항 인프라 확충’의 평균이 3.90점, ‘지역적인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의 평균이 3.70점의 순으로 높음.
- 마을기업의 설립 유무에 따라 평균 점수차가 가장 큰 항목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확대’ 0.37점, 가장 적은 항목이 ‘최신의 쾌적한 편의시설 및 어항 인프라 확충’ 0.07점으로 항목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 4-25〉 세부사업의 실행가능성 평가(평균)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사례 수	60	20	40
최신의 쾌적한 편의시설 및 어항 인프라 확충	3.90	3.95	3.88
체험장, 낚시터 등 해양레저시설 정비	3.55	3.50	3.58
친수공간, 공원 등 정비를 통해 마을경관 개선	3.98	3.90	4.03
지역적인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3.70	3.50	3.80
사업운영 능력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지원조직을 지원	3.38	3.50	3.33

〈표 4-25〉의 계속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홍보 마케팅강화	3.43	3.55	3.38
우수한 기획인력(전문인력) 충원	3.30	3.55	3.18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확대	3.55	3.80	3.43
우수한 관련 업체들의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3.45	3.65	3.35
사업운영의 전문화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동경영체가 전문 경영조직으로 발전	3.52	3.65	3.45

- 어촌활성화를 통한 고용증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로 생활기반시설이 4.62점으로 가장 높고, 어항인프라가 4.48점, 주민참여 강화가 4.18점 순으로 높음.
- 14개의 지원분야 중 9개의 항목이 4.00점 이상이고, 나머지 5개의 항목도 3.60점 이상으로 마을은 고용 증대를 위해 항목들에 대한 보통 이상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마을기업의 유무에서 마을기업을 설립한 마을이 미설립한 마을보다 지원분야에 대한 필요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향을 띠고 있음.

〈표 4-26〉 고용 증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분야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사례 수	60	20	40
어항인프라	4.48	4.50	4.48
생활기반시설	4.62	4.80	4.53
관광인프라	4.00	4.25	3.88
해양휴양시설	4.12	4.20	4.08
생산유통 기반시설	4.13	4.50	3.95
숙박음식인프라	4.17	4.35	4.08
관광 프로그램	4.02	4.30	3.88
교육 및 컨설팅	3.78	3.95	3.70
거버넌스	4.05	4.30	3.93
창업지원	3.82	4.15	3.65
주민참여 강화	4.18	4.55	4.00

〈표 4-26〉의 계속

구분	[전체]	마을기업 유무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미설립
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70	3.85	3.63
경영지원조직 지원	3.60	3.95	3.43
전문 경영조직화	3.65	4.15	3.40

- 사업운영 실천전략은 어촌뉴딜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하에서 사업운영 실천전략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임.
 -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계획 : 지역자원 활용 → 생산 → 마케팅·판매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명확히 설정함.
 - 지역자원 활용계획 : 지역자원을 중간재로 이용하거나 지역 생산품을 이용한 중간재 등 소득의 지역 내 순환구조 형성
 - 수익이용계획 : 수익창출 → 생산에의 재투자 → 지역주민 투자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
 - 주민고용계획 : 지역주민의 생산 및 마케팅·판매과정에서의 고용을 구체화하는 것
- 사업운영 실천전략 준비 정도는 주민고용계획이 4개 항목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어 고용계획에 대한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표 4-27〉 사업운영 실천전략 준비 정도

구분	수익창출계획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익이용계획	주민고용계획	합계
전혀 준비되지 않음	-	-	-	-	-
준비되지 않음	5	3	3	6	17
보통	23	22	27	21	93
준비됨	19	24	23	23	89
잘 준비되어 있음	13	11	7	10	41
합계	60	60	60	60	240
점수(가중평균)	3.67	3.72	3.57	3.62	3.64

- 어촌뉴딜사업 운영주체의 특성 부합 정도는 어촌뉴딜사업 추진 시 운영주체의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운영주체가 사업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임.
- 전문적 경영체 형태 : 어촌뉴딜사업의 운영주체는 전문적인 경영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사업지향목표 : 지역 이미지 구축과 지역 간의 교류증진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가치 실현
 - 사업운영방식 : 생태 및 대안여행 상품 등 여행상품 판매
 - 사업협력체계 : 지역 외부와 협력관계를 통한 외부 기업과의 연계방식
 - 마케팅 홍보 :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박람회 참가, 오프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 어촌뉴딜사업 운영주체의 특성 부합 정도는 사업지향목표만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출되었으며, 전문적 경영체 형태와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부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4-28〉 어촌뉴딜사업 운영주체 특성 부합 정도

구분	전문적 경영체 형태	사업 지향 목표	사업 운영 방식	사업 협력 체계	마케팅 홍보	합계
전혀 부합하지 않음	-	-	-	-	-	-
부합하지 않음	7	3	5	4	2	21
보통	40	36	44	42	42	204
부합함	11	17	7	10	11	56
매우 부합함	2	4	4	4	5	19
합계	60	60	60	60	60	300
점수(가중평균)	3.13	3.37	3.17	3.23	3.32	3.24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고용효과 종합

1. 2019년 70개소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고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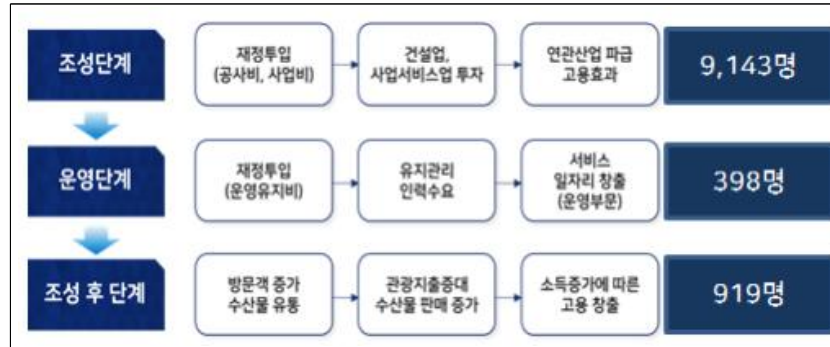
- 2019년도 70개 어촌을 대상으로 한정된 어촌뉴딜사업의 고용효과는 총 1만 46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 본 연구는 어촌뉴딜사업 300개소 중 2019년도에 선정된 70개소에 해당하는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임.
 - 본고의 고용영향평가는 70개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조성단계, 운영단계, 조성 후 단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표 5-1〉 어촌뉴딜사업 고용효과(2019년 70개소 기준)

단계	고용인원	비고
조성단계	9,143명	산업연관분석(취업유발)
운영단계	398명	실태조사(60개소) 결과
조성 후 단계	919명	DID 분석결과 활용(연간 기준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의 취업유발효과)
합계	10,460명	십억 원당 취업유발효과 13명

- 조성단계의 고용효과는 2019년도 70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뉴딜사업이 수행될 시 발생하는 총사업비 8,024.3억 원이 조성단계에서 지출됨으로써 도출된 취업유발효과를 의미하며, 9,143명으로 도출되었음.
- 운영단계의 고용효과는 어촌계 혹은 추진위원회에 대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수익사업 운영에 투입되는 인원을 조사한 결과 398명으로 집계되었음.
 - 수익사업은 어촌체험 프로그램 지원인력, 숙박시설 운영 지원인력, 식당 레스토랑 운영 지원인력, 특산물 판매장 판매인력, 레저스포츠 체험 운영인력 등이 이에 해당함.
- 조성 후 단계의 고용효과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가 소비를 통해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고용효과를 의미
 - 어촌뉴딜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일반농산어촌사업을 바탕으로 DID 분석을 통해 소득 증가치를 추정하였음.
 - 분석 결과, 어촌뉴딜사업에 참여할 경우, 소득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9.757% 증가
 - 소득증가분에 소득-소비비율을 적용하여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919명의 추가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 즉, 어촌뉴딜사업 조성 후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증가한 소득으로 인한 추가 취업효과의 경우 연간 919명이라는 의미임.
- 종합하면, 어촌뉴딜사업의 고용효과는 1만 460명으로 나타났으며, 조성단계의 1만 2,900명, 운영단계 398명, 조성 후 어촌관광 활성화로 인한 소득 증대의 효과는 1년간 919명을 합제한 수치임(표 5-1 참조).
 -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면, 연간 919명의 추가 취업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아래의 <그림 5-1>에 제시되어 있는 분석 결과는 취업효과가 사업기간 동안 나타나는 일시적 효과라고 가정하였으며, 조성단계에서 재정지출에 따른 취업효과가 9,143명, 운영단계에서 사업 운영인력 고용 따른 취업효과가 398명, 조성 후 소득 증대로 인한 취업효과가 919명으로 총 1만 460명의 취업효과가 나타남.

[그림 5-1] 어촌뉴딜사업 고용효과(2019년 70개소 기준)



2. 70개소 어촌뉴딜사업 완료 후 2019~2023년 고용효과

- 어촌뉴딜사업 고용효과는 운영단계와 조성 후 단계의 고용효과를 확대 및 지속하기 위한 정책의 성공에 따라 고용효과는 크게 증대됨
 - 앞에서 추정한 총 일자리 창출효과는 조성 후 연간 683~919명의 취업유발효과를 1년으로 한정된 보수적인 취업효과임.
 - 만약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어촌 관광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면, 연간 683~919명의 추가 취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따라서 어촌뉴딜사업을 통한 취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는 정부지원이 조성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성사업 이후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득증대효과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어촌뉴딜사업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점은 매우 평가할 만함.
- 소득증대효과에 따른 취업효과가 일정기간 매년 지속된다는 상황을 상정하면 다음과 같음.
 - 연간 919명(최대치)의 추가 고용효과가 사업 종료 이후 4년간($t+4$)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소득증대효과가 당해년도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증가한 5년간 누적 취업효과(사업년도 +

이후 4년간 = 5년간 소득)는 최대 4,595명으로 증가함.

- 동시에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398명의 고용인원도 5년간 사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5년간 누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1,990명 추가 취업이 발생함.

○ “어촌뉴딜사업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조성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을 지원한다는 점이며, 고용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으로 기대됨.

- 연간 919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사업 종료 이후 4년간(t+4)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소득증대효과가 당해년도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질 것임.
- 지속성을 가지고 증가한 5년간 누적효과(사업년도 + 이후 4년간 = 5년간 소득)를 가정하면, 누적 취업효과는 연 단위 환산치로 4,595명으로 증가함.
- 동시에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398명의 고용인원도 5년간 사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연 단위 환산치로 1,990명이 발생함(표 5-2 참조).

〈표 5-2〉 2019~2023년 어촌뉴딜사업 고용효과

단계	고용인원	비고
조성단계	9,143명	산업연관분석(일시적 취업유발)
운영단계	398명×5년=1,990명	실태조사(60개소) 결과
조성 후 단계	919명×5년=4,595명	DID 분석결과 활용(5년간 소득증대 유지에 따른 소비증가의 취업유발효과
합계	15,728명	십억 원당 취업유발효과 19.6명

○ 소득증대효과의 지속성을 가정하면 취업효과가 1만 5,728명으로 크게 증가하며, 취업유발효과가 십억 원당 19.6명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평균 취업유발계수가 십억 원당 11명인 점을 고려하면, 어촌뉴딜사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9.6명으로 전 산업 평균보다 십억 원당 8.6명이나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사업비 십억 원당 취업유발인원=15,728/8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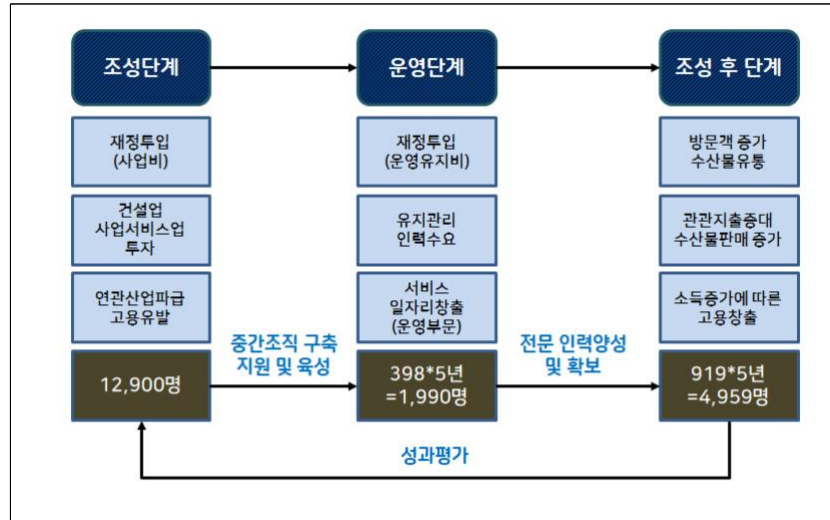
○ 어촌뉴딜사업을 통한 관광활성화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정책이 어촌뉴딜사업의 고용효과를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시사함.

- 상기 결과는 어촌뉴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총 300개소 중 70개소에 대한 고용창출효과이므로, 300개소 모두를 집행하였을 때, 4배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어촌뉴딜사업은 일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이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해양수산부형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원 기반 마련이 중요함(정책적 시사점에서 상술함).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전술한 바와 같이 어촌뉴딜사업은 사업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대안이 필요
 -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 역량 강화, 사업운영주체 역량 강화,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육성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어촌뉴딜사업 참여어촌의 절반 가량이 신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답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진화를 고려한 인력 양성 노력 필요
 - [성과평가] 어촌뉴딜사업 선정 시, ① 선정단계에서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이행 가능성이 평가될 수 있는 평가지표 마련, ② 연차별 고용영향평가, ③ 추적조사 필요
- 제시된 정책대안은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어촌마을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그림 5-2] 어촌뉴딜사업 고용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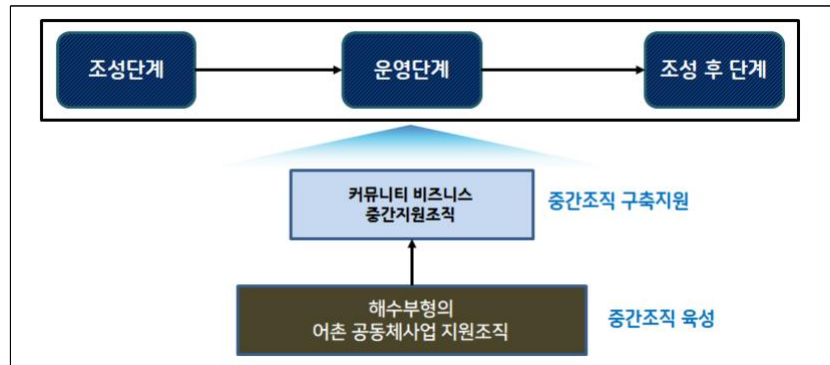


※ 조성단계 9,143명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운영단계 398명 : 어촌뉴딜사업 실태조사의 운영단계 고용인력 응답결과
 조성 후 단계 919명 : DID분석을 활용한 소비증가에 따른 고용파급효과

1.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

-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은 어촌뉴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조직을 구축하는 지원과 중간조직을 육성하는 지원으로 구분됨.
 - [중간조직 구축] 조성에서 조성 후 단계까지 사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중간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
 - [중간조직 육성] 중간조직이 필요한 역할 및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수부형 어촌공동체사업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간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5-3] 어촌뉴딜사업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



가. 구축 지원

□ 역량 강화, 사업운영주체 역량 강화 지원, 중간조직 구축 지원

- 어촌뉴딜사업의 목적은 어촌공동체 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을 통한 어촌공동체 활성화(경제 활성화, 자생력 확보)로 요약할 수 있음.
 - 사업운영주체의 부족한 경영마인드는 어촌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됨.
 - 그동안 어촌은 생산(어업)에만 전념하였던 어민이 얼마만큼 내실있게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하며, 어촌공동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니치난초 사례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진 모범사례임(부록 참조).
 - 중간지원조직인 경영지원조직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창업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와 전문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
 - 경영 지원, 사업추진 지원은 물론 교육 및 교류기능을 통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와 협력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임.
- 중간조직 구축 지원은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성공요인이며, 자생력

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구축 지원이 필요

- 어촌뉴딜사업의 성패는 중간조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되며,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가에 달려 있음.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 종료 후 3년간 협의체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우 좋은 시도라고 평가됨.

- 협의체가 후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함.

○ 협의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

〈표 5-3〉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항목	구체 사례
창업지원기능	법인설립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창업 관련 교육 등
운영지원기능	경리, 세무, 재무, 회계, 법률 등 서류작성 지원, 홈페이지 작성 지원
사업전개지원기능	체계적인 사업 진행 또는 단체의 활동을 위한 영업 마케팅 지원, 경험에 기초한 경험 노하우 지원
자금조달지원	공동체사업 설립·사업전개 등의 자금조달, 기부·보조금 등 획득 지원책
인재육성지원	공동체사업 실천에 관한 강좌, 스쿨 개최 등
상담창구기능	상기 항목 또는 기타 관련 어드바이스 제공 등
정보발신기능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보의 발신(WEB, 웹진), 언론홍보, 세미나, 심포지움 개최 및 출판 등
교류촉진기능	다양한 관계자(기업, 주민 등) 간 네트워킹 지원, 인재 매칭
코이네이터기능	전문적 지원의 소개 및 알선(허브기능) 등
조사연구기능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조사연구·제언, 평가 및 표창 등

자료 : 관동경제산업국(2009), p. 60.

나. 육성

□ 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조직으로서 중간지원조직 육성이 필요함.

○ 사례에서 보이듯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의 틀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사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 매우 중요함(부록 참조).

- 어촌공동체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은 시군에서 귀농·귀촌인구 활용 등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함.

○ [육성 필요성] 해양수산부형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CB : Community Business) 관련 정책은 직접지원방식이지만, 점차적으로 간접지원형태로 전환되어야 함.
- 특히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나 정보 제공, 컨설팅, 자치단체 우선구매 등의 방식을 통해 자립적 운영과 경영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광역권별로 설치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조직과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준비사항] 지원조례 제정과 이에 근거한 CB지원센터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완주군의 사례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지원조례와 같이 자치단체 차원의 활성화 지원조례 마련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함(부록 참조).
- 컨설팅, 교육, 인력발굴 및 매칭, 정보수집 및 제공 기능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

○ 현재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협의체를 좀 더 발전시킨 형태의 어촌공동체사업 지원조직이 중간조직 육성 역할을 수행

- 중간조직 육성은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로 구성*된 공동체사업 지원조직(NPO)이 전담

* 어촌·어항 재생지원센터, 시·군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 육성방안은 중간조직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기능 중심의 컨설팅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

○ 해수부형의 어촌공동체사업 지원조직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①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②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경영지원, ③ 어촌공동체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및 경영지원, ④ 지역주민 교육, ⑤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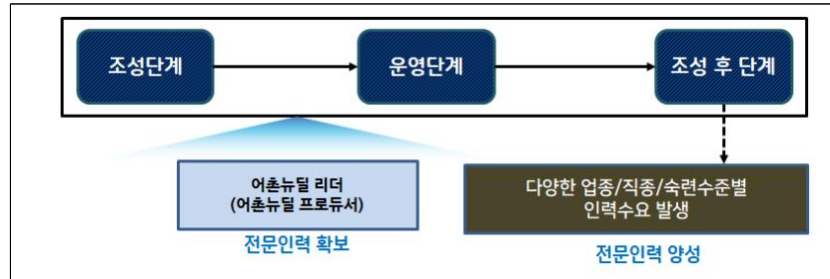
다. 실현방안

- 중간조직 구축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 기획연구 필요
- ‘해수부형의 어촌공동체사업 지원조직 구축’은 어촌뉴딜 선정 300개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대안(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어촌뉴딜사업 300개소 지정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중간조직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재 어촌계(마을) 단위로 구축된 중간조직의 종류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300개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간조직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역량 강화 및 공동체사업 지원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연구가 필요함.

2.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성 후 단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전문인력 확보] 조성에서 조성 후 단계까지 사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전문인력 양성] 체험시설 등이 자리잡게 되면, 다양한 업종/직종/숙련 수준별 인력수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을 의미

[그림 5-4] 어촌뉴딜사업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가. 전문인력 확보

- 어촌뉴딜사업 참여어촌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신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어촌이 절반에 가까움(실태조사 결과, 48.3%).
 - 이는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지역리더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함.
- 어촌뉴딜사업은 리더십과 조직운영, 종사원 교육 등이 필요하며, 어촌공동체사업의 지역리더 육성을 위해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어촌공동체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능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지역리더)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
- [어촌뉴딜 리더(전문인력) 선발]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리더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함.
 - 지역리더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관광 비즈니스 개발과정에서 주민 참여, 주민 역량을 모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지역리더로서 지역활동가, 귀농귀촌 인사 등을 중심으로 어촌뉴딜 프로듀서를 발굴함.
 - 어촌뉴딜 프로듀서를 지역별로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에 주민의 협력 및 주체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주

- 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안정 창업,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어촌뉴딜 리더(전문인력) 역량 강화] 어촌뉴딜 리더(전문인력)의 기본교육, 리더 간 워크숍을 운영하여 어촌지역 리더의 역량 강화를 도모함.
 - 기본교육은 어촌뉴딜 리더가 해당 지역에 배치되기 전,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추진함.

나. 전문인력 양성

- 고용창출 분야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진화를 고려한 인력양성 노력 필요
- 조성 후 단계에서 고용유발효과의 단계별 고용창출효과가 실현되면, 다양한 업종/직종/숙련수준별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고용창출 분야의 진화를 고려한 인력양성 노력이 정책적으로 필요함.
 -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용창출 분야는 지식서비스업으로 진화하도록 지원
 - * 체험프로그램 안내, 진행, 지원, 음식숙박업 운영 지원서비스,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판매서비스에서 여행상품 기획, 여행객 유치전략 설정 및 안내, 행사준비 및 지원, 교육 프로그램(서비스, 역량 강화) 진행, 경영컨설팅 지원 등
 - 이러한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내 인력이 고부가가치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 활성화에 기여함.

다. 실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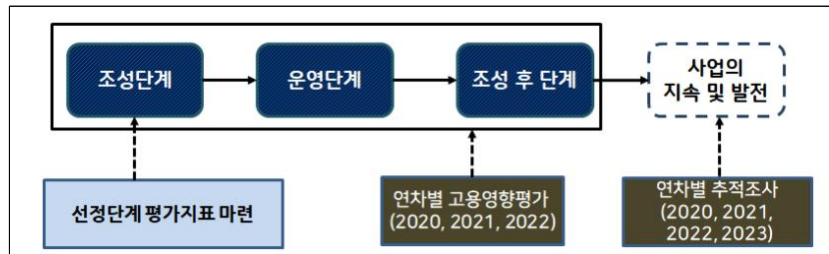
- 어촌뉴딜 300개소에 대한 인력수급 실태점검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수립 필요
- 어촌뉴딜 300개소의 어가구성, 인구구성, 개인별 직종 등을 조사하여 어촌뉴딜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구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어촌뉴딜사업에 따라 조성된 다양한 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어촌뉴딜 300개소에 대한 인력수급 실태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함.

3. 사업평가

- 사업평가는 각 단계에 필요한 평가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
 - [선정단계 평가지표 마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이행 가능성을 평가함.
 - [고용영향평가] 300개소 어촌뉴딜사업은 2020, 2021, 2022년 매년 수행될 예정이며, 각 시기별로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추적조사] 300개소 어촌뉴딜사업이 완성된 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충분한 고용효과가 발생했는가 등을 추적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의미

[그림 5-5] 어촌뉴딜사업 사업평가



가. 선정단계 평가지표 마련

- 어촌뉴딜사업 선정 시, 선정단계에서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이행 가능성이 평가될 수 있는 평가지표 마련
-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된 어촌에서 마을기업 설립 어촌이 1/3에 불과함

(실태조사 결과).

- 이러한 사실은 어촌뉴딜사업 선정 평가에서 있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실천전략을 반영한 평가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시사함.
- 어촌뉴딜사업의 정책방향이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를 통해 비즈니스(기업 또는 사업)를 창출하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어촌뉴딜사업의 최종목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촌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어촌의 자생력 강화에 있음.
 - 즉, 어촌뉴딜사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을 통한 어촌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어촌뉴딜사업은 어촌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이므로 선정단계에서부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이행 가능성을 평가해야 함.
 - 어촌뉴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 있어서 수익창출계획, 지역자원활용계획, 수익활용계획, 주민고용계획이 명시되어야 함.
 -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등을 세부 평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 기준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이 손쉽게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관광활성화와 자생력을 갖춘 어촌마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

〈표 5-4〉 어촌뉴딜사업의 선정 평가지표(제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표 계획내용	수익창출 계획	사업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체성(필수) 생산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성 마케팅계획의 구체성 판로 확보계획의 구체성 연차별 수익창출계획(필수)
	지역자원 활용계획	지역 내 자원조사 여부(필수) 사업 아이템 발굴에 있어서 지역자원 활용 여부(필수) 지역산 원료 이용 여부 지역산 원료 조달 계획
	수익이용 계획	사업 수행에 따른 발생 수익 추정 여부 수익 추정의 적정성 수익활용계획 수립 여부(필수) 수익활용계획의 적정성(필수)
	주민고용 계획	사업 추진주체의 구체성(필수) 사업 추진지 지역주민 고용계획(필수)

나. 연차별 고용영향평가(2020~2022년)

□ 2020~2022년 어촌뉴딜사업 확대에 따른 연차별 고용영향평가 실시

- 본 연구는 어촌뉴딜사업 300개소 중 70개소에 해당하는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임.
 - 본고의 고용영향평가는 70개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조성단계, 운영단계, 조성 후 단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 어촌뉴딜사업은 사업계획서 선정 후 각 어촌별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예산을 조정하여 최종집행하게 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효과와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어촌뉴딜사업의 고용영향은 300개소의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된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총 사업비 3조 원 중 2019년 1조 2,000억 원(사업계획서)을 기준으로 분석된 결과는 사업계획서의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계획이 일부 조정되어 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될 예정임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300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2021년에 선정된 어촌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300개소 전체에 대한 고용창출(운영 및 조성 후 단계)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70개소 어촌뉴딜사업을 바탕으로 중간조직의 역할 강화와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300개소 전체에 대한 고용창출을 가늠하기 위한 방안으로 300개소가 확정되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다. 연차별 추적조사(2020~2023년)

□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차별 추적조사 필요

- 추적조사는 사업이 계획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와 기획단계에서 제시된 기대효과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는 것을 의미
 -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어촌뉴딜과 같이 대규모 재정사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평가임.
- 2020년 추적조사는 2019년에 집행된 70개소를 대상으로 계획한 인프라 구축 여부, 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어촌뉴딜사업과 고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
 - 70개소 어촌뉴딜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어촌뉴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나머지 230개소 조성단계 혹은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추적조사는 <표 5-4>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어촌을 누적으로 포함하여 매년 진행하는 것이 필요

<표 5-5> 어촌뉴딜사업의 추적조사(제안)

구분	연도	선정 수	추적조사 대상연도			
			2020	2021	2022	2023
선정 연도	2019	70개소	◎	◎	◎	◎
	2020	100개소		◎	◎	◎
	2021	70개소			◎	◎
	2022	60개소				◎

주: ※ 2021, 2022년의 선정개소 수는 확정된 것이 아님.

참고문헌

- 김봉태·이성우(201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정량적 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26(2), 75-104.
- 김성귀 외(2004),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향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영태 외(2018),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 일자리기획단.
- 문성배(2009), 「어촌체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3(10), 771-776.
- 박주영외(2013), 『지역관광경영시스템 구축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신동일(2009),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향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이승우 외(2010), 『어촌체험마을 발전대책연구』, 연구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이수행 외(2015), 『경기도 농촌공동체 발전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임정현(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1), 271-292.
- 허재완(2003), 「어촌지역 SOC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전남 부안군 격포항을 사례로」, 『국토계획』 38(4), 149-157.
- 해양수산부(2018),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
- 櫻木 恵子·小林 潔司(2018),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振興のためのプラットフォーム~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プラットフォームの仕組みの考察』.
- 關東經濟産業局(2009),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中間支援機關のビジネスモデルに關する調査報告書』.

부록 1 지역공동체사업 사례 분석

제1절 일본의 “활력있는 어촌만들기사업의 우량사례”

1. <사례 1> 무인도 체험 투어 - NPO 다테야마 해변 감정단(치바현(千葉県) 다테야마(館山市))

□ 지역 개요

- 치바현 보소반도(房総半島) 남부에 위치한 다테야마시는 연간 평균기온이 16℃ 이상의 온난한 기후와 풍족한 바다와 산에 혜택을 받은 수도권 교외의 굴지의 관광지의 하나이며, 31.5km의 해안선은 마린 스포츠의 메카로서, 여름의 해수욕장으로서, 산호의 북쪽 한계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바다속 세계를 가진 지역임.
- 어업은 연안어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소형 정치망 어업을 필두로 선망어업, 자망어업, 조개채집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선망어업: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fish shoal)을 둘러싼 후 그물의 아랫자락을 죄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주요 대상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쥐치 등임.
 - 어획하고자 하는 고기의 몸둘레보다 작은 망목을 한 그물을 어도에 쳐서 고기가 꽃히게 하여 잡는 방법
 - 정치망어업: 자루 모양의 그물에 테와 깔때기 장치를 한 어구를 어도에 부설하여 대상 생물이 들어가기는 쉬우나 되돌아 나오기 어렵도록 장치한 어구로 잡는 방법
 - 그중에서도 선망 어업으로 생산되고 가다랑어 낚시에 사용되는 정어리의 공급기지로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함.
- 현재,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소라, 전복, 참돔, 넙치 등

의 종묘방류 및 어초 등에 의한 어장 정비를 하여 자원 및 생산량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획량, 어획고가 모두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종사자도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종사자의 반수 이상이 60세 이상이 되고 있어, 후계자 부족과 함께 고령화 문제 등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사업의 개요

- “특정 비영리 법인 다테아마·해변감정단”은 남보소의 혜택받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해변의 자연체험”을 조직적으로 제공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지역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남보소다테아마 항의 남측에 위치하는 높이 12.8m, 면적 4.6ha 주변 약 1km의 육지가 연속되어 있는 작은 섬(오키노시마(沖ノ島))을 배경으로 ① 오키노시마 무인도 탐험, ② 체험 비치커밍(12/3467, TABICA 제공 체험사업 3,467개 중 인기체험 랭킹 12위), ③ 오오야마(大山) 네이처 투어, ④ 오키노시마 스노클링 체험, ⑤ 해변의 클러스터 체험 등 해변의 자연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에코 투어리즘을 실시하고 있음.
- 2007년에는 환경성으로부터 제2회 에코투어리즘 대상특별상을 수상했음. 어촌지역에서는 당연한 풍경, 자연환경, 생활을 체험자의 시점에서 지역자원으로서 활용하고 새로운 지역산업의 창출, 환경보전에 연계하고 있음. 이들 사업은 어촌지역에서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 범용성도 높고 우량사례라고 말할 수 있음.

□ 사업실시 효과

- ① 어떤 지역에서도 실천 가능한 바다 체험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에 따라 모든 것이 지역자원이 됨.
- ② 소프트의 고안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바로 실행 가능

- 프로그램 개발의 소프트의 노하우를 습득하면, 신규투자 없이 바로 실천 가능함.

- ③ 어부 이외의 NPO가 어협 및 어부에게 작용하여 연계한 사업
 - 스노쿨링 등 바다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의 어협과 연계하고 있음. 체험교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해안의 청소활동 및 어장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평가를 받아, 지역에 있어서 호혜적인 관계 만들기에 성공

□ 성공요인

- ① 바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NPO의 관여로 체험프로그램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창출된 전형적인 사례로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요인 중 하나임. 또한 지역 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 외 인재와의 연계도 필요함.
- ② 체험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다테야마시, 관광협회, 지역 어협과의 연계를 유의하고 있으며, 어부 및 어협과는 차별화된 소프트 사업 노하우를 가진 중간조직(NPO)의 관여가 성공에 유효한 역할을 하였음. 중간조직으로서 어업종사자 이외의 지역 외 인재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③ 또한 지역 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지역 외 인재와의 연계를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 NPO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효과적임.

2. <사례 2> 와카사미카타고코(若狭三方五湖)지역 관광협회와 어협·어부 민박이 연계한 체험 어업- 와카사미카타고코 개구쟁이들

□ 지구의 개요

- 와카사초는 후쿠이현(福井県)의 서부에 위치하고, 와카사 항에 북면해서 리아스식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
 - 남으로 시가현(滋賀県)과 현 경계에 있는 산들은 800m급과 비교적 낮은 산들이 있으며, 동으로 인접한 미하마초(美浜町)에 걸쳐 관서(関

西)에서는 관광지로서 유명함.

- 산업은 농수산업과 관광. 특산품은 “후쿠이 우메(福井梅) 브랜드”와 “헤 시코 등의 수산가공품”임.
 - 수산업은 츠네가미 반도(常神半島) 서안의 도처의 항구와 포구에 8개의 소규모 어촌이 있음.
 - 대형 정치망을 중심으로 근해의 생선을 잡아올림.

□ 사업의 개요

- 1970년대의 민박, 해수욕 붐의 시대, 와카사를 시작으로 와카사 항, 미카타고코지역은 케이한신(京阪神)으로부터 인기의 해수욕 스팟이며, 여름 휴가에는 민박이 항상 부족할 정도로 성황이었음. 와카사초는 약 200개의 민박이 영업을 하고 있었음.
- 그러나 1990년이 되어, 관광 스타일에 변화가 시작된 영향으로 현재 관광협회 회장이 “체험어업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체험하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시작하였음. 그 당시, 와카사 관광객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회장의 선견지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음.
- 회장의 설득에 응해서, 현재 와카사미카타어업협동조합에 속하는 5명의 어부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단법인 와카사미카타고코 관광협회가 조직되어, 기후현(岐阜県)의 체험어업에 어린이들을 받아 들였음.
- 츠네가미 반도에 있어서는 해수욕, 민박경영 및 놀이어업을 통해서 대부분의 어가가 관광객 상업을 생업으로 해온 것이 크게 작용하여 타 지역과 달리, 관광객의 니즈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서비스업의 노하우가 필요한 체험어업의 사업화에 저항없이 이행할 수 있었음.
- 1990년에 270명을 수용한 이래, 수용인원은 순조롭게 증가하여 2009년에는 8,000인(매출액 약 6,000만 엔)을 수용하였음.

□ 사업 실시의 효과

- 어가의 민박(민박 붐)이 체험어업으로 부드럽게 이행을 실현함.

- 민박에 숙박하는 해수욕객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많은 어가가 부수입원을 잃어버렸지만, 와카사 지구의 어촌에서는 어협과 민박조합, 관광협회의 연계에 의해 1990년부터 발 빠르게 체험어업을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하여 어업과 관광의 연계에 의한 경제순환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안정수입의 확보에 의한 어가민박의 대체가 실현
 - 그 결과 최성기에는 지구 내 약 150개 정도 있었던 민박이 현재 100개까지 감소하였지만, 그 중 90%는 민박 붐시기로부터 차세대 사업(체험어업)에의 대체가 실현되고 있음.
- 관광협회와 연계에 의해 관광협회가 체험객 수용의 창구 및 사업계획 등 전략부분을 입안, 국내외로부터 고객유치 등을 실시하는 등 어협과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각각의 사업에 전념하면서 사업을 실시하는 체계를 확립한 점
- 관광협회 회장의 인적역량과 민박 경영을 통해서 어가에 경영노하우가 뿌리내려 있던 점(주민의 역량)이 성공 요인 중 하나임.

□ 일본 어촌 우량사례 분석 총괄

- 지역자원의 활용에 의한 특징 있는 프로그램 개발, 노하우를 가진 중간지원조직의 관여가 성공에 매우 유효하게 작용하였음.
- 자연체험 가이드의 노하우를 가진 NPO, 사업추진 노하우를 가진 사단법인 관광협회 등 어가와 어업협동조합만으로는 곤란한 사업부분을 각 주체의 연계로서 극복하고, 지역에 걸맞은 추진체계(행정과 관광협회 등과의 연계)를 정비하여 사업추진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성공요인임.
- 민박경영을 겸업하는 어가는 이미 서비스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업에 대한 경험은 체험·교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매우 큰 지역역량으로서 활용 가능함.
- 지역의 종합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방문자를 즐겁게 하는 노력 및 관광루트를 의식한 집객전략 등 사업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은 노하우를 가진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필요함.

제2절 커뮤니티 비즈니스 플랫폼의 체계 사례

1. 도토리현(鳥取県) 니치난쵸(日南町)

□ 지역 개요

- 도토리현 니치난쵸는 도토리현 남서부에 위치한 중산간지역으로 인구는 2018년 현재 4,684인, 고령화율은 2015년 49.2%로 전국 평균(26.6%)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미래에 있어서도 지방의 재정상황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령화, 과소화가 진전되는 지방의 중산간지역이 지역사회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및 공공서비스의 존재 형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 여기에서 교토대학(京都大學)의 교수는 2006년 7월에 니치난쵸와 연계하여 포스트 고령화를 겨냥한 논의를 통해서 니치난쵸 로직 모델인 “30년후의 니치난쵸의 모습 프로젝트”를 창설하였음.

□ 30년 후의 니치난쵸의 모습 프로젝트 체계

- 프로젝트 추진체계는, 외부의 연구자(전문가), 경제계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가회의, 마을 내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지자체 직원으로 구성하는 작업 팀의 3개의 조직을 합쳐서 협의체(중간조직)가 되었음.
- 그 외 마을의 유지가 실시 주체의 입장으로 협의에 참가하였으며, 마을 사무국이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마을을 지원하고, 전문가회의 간사 및 대학 사무국이 학술적인 면에서 지원하였음.
- 또한 주민 자신이 주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 및 산업별로 독자적으로 멤버를 모집하여 각종 워크숍을 27회 개최하고, 누적 731명(지자체 행정직원 제외)이 참가하였음.

-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워크숍에 참가함으로써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등의 과제를 모두 선정하여 30년 후 목표로 해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니치난초 로직 모델”을 만들어냈음.

□ 30년 후의 니치난초의 모습 프로젝트(니치난초 로직 모델) 구축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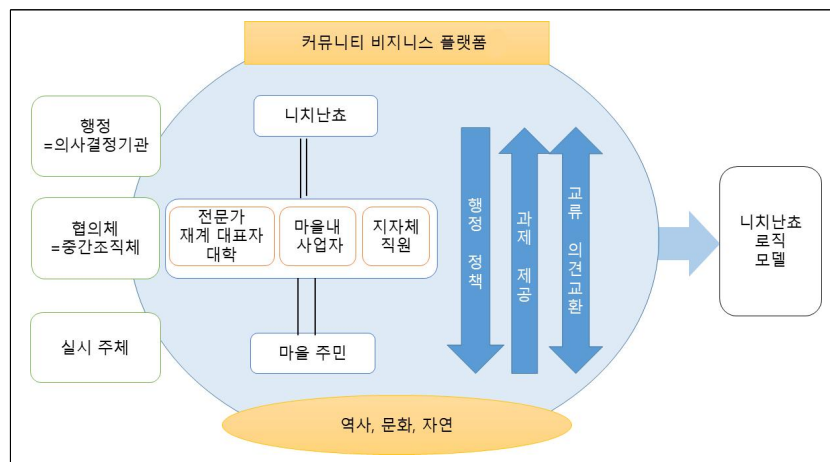
- 전문가를 필두로 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프로세스가 구축되었으며, 이러한 프로세스 구축과정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지역 만들기의 학습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구축과정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주체적인 참가(적극적인 주민참여) 협력을 얻을 수 있었음.
- 이 니치난초 로직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워크숍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정책을 목록화하여 그것을 누가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다수 있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임.

□ 니치난초 로직 모델의 구조에 관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결과로서 독창적인 니치난초 로직 모델이 만들어졌음.

- 첫째, 프로젝트 시작단계에서 구축과정 전반에 중간조직체가 기능하였음.
 - 의사결정기관인 행정에 의한 행정정책이 있으며, 그것에 기초해서 전문가 및 지자체 직원 등에 의한 협의체가 전략적으로 구성되어 기능한 점임.
- 둘째, 중간조직체로서의 활동 및 기능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역량 강화에 연결되었음.
 - 전문가(전문가, 재계 대표자, 대학), 실행위원회(마을내 사업자), 지자체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중간조직체로서 마을주민 등과 교류를 도모하여 마을주민 스스로가 대응주체로 인식해서 마을 만들기를 위한 과제를 찾아내고 장래의 방침을 결정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주민의 자발적 참여)임.

- 즉, 행정에 의한 완전한 톱다운(top-down)형도 아니고,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완전한 보텀 업(bottom-up)도 아닌 그 마을 특유의 역사·문화·자연을 짜 넣은 하이브리드형이므로 3자 간에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음.

□ 니치난쇼 로직 모델의 시사점



- 중간조직체(협의체)가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과 교류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역량 강화를 이끌어내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사례임.
- 니치난쇼 로직 모델의 시사점은 지역역량 강화에 있어서 중간조직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며,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개발 전문가를 포함하는 중간조직의 구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니치난쇼 로직 모델 프로젝트는 중간조직체와 마을주민 간의 교류·교육 프로그램인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역량강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중간조직체와 실행주체(주민)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
 - 즉, 중간조직체에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주민참여와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지역역량 강화를 달성하였음(중간조직 활동으로 인해 주민참여와 전문가 협력네트워크가 달성된 형태로 시사하는 바가 큼).

2. 구마모토현(熊本県) 아마쿠사시(天草市)

□ 지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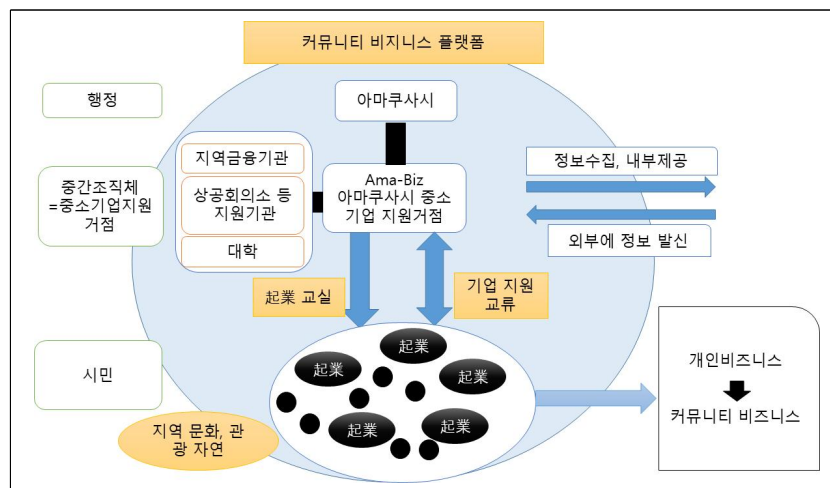
- 아마쿠사시는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지방의 시로서, 구마모토현 하에서는 구마모토시(熊本市), 야츠시로시(八代市)에 이어서 세 번째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나, 인구는 2018년 4월 현재 7만 8,721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또한 5세 연령계급별 인구는 1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8.75%, 16~64세까지의 생산연령이 39.28%,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1.96%로 절반 이상이 고령자이며, 아마쿠사시도 일본의 많은 지방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아마쿠사시는 아마쿠사신용금고, 상공회의소, 상공회 등과의 연계에 의해서 아마쿠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설민영(중간지원조직)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거점(Ama-Biz: 아마쿠사시 기업창업·중소기업 지원센터)을 설립하고 아마쿠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기업이 모두에게 무료의 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교토대학 경영관리대학원은, 아마쿠사시에 있어서 풍부한 지역자원 및 관광자원을 이용한 고용창출, 산업 및 관광진흥 및 마을만들기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아마쿠사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마쿠사시와 공동으로 2012년도부터 매년 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교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마쿠사다카라지마교실(朝草宝島起業塾)”을 실시하고 있음.
 - 그 결과 기업에 관해서 배우고, 아마쿠사 주변에서 기업을 지망 또는 시작하는 졸업생이 해마다 약 50인씩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기업(起業)교실을 개최하고 마을의 활성화에 몰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만, 아마쿠사시가 독창적인 점은 Ama-Biz가 아마

쿠사시 외의 기업(起業) 희망자를 모집하여 기업교실에서 육성하고, 그 후 스타트업을 향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계속한다는 점이며, 또한 상점가의 견본시 및 지역의 산업 이벤트의 시기에 졸업생을 참가하도록 하여, 점점 늘어나는 졸업생의 네트워킹에도 공을 들이고 있음.

- 원래, 개인의 기업(起業) 소재로부터 시작하는 기업교실 학생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졸업후의 Ama-Biz에 의한 네트워킹에 의해 졸업생인 기업가들끼리 선이 연결되어 양쪽이 아마쿠사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성장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시의 활력 증진으로 발전해감.
- 덧붙여, Ama-Biz는 ICT를 이용해서 아마쿠사시의 기업사례 및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내외부에 홍보하고 동시에 타 지자체의 독창적인 성공사례를 내부에도 도입하여 정보공유를 하고 있음.
 - 즉, Ama-Biz와 같은 중간조직체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아마쿠사시 커뮤니티 비즈니스 플랫폼 시사점

- 아마쿠사시의 사례는 어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지원 등 어촌재생기반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례임.



- 첫째, Ama-Biz와 같은 중간조직체가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창업역량을 강화함.
 - 그 결과 기업(起業)을 배워서 사업을 스타트하는 지역 내외의 젊은이들이 매년 50인씩 증가하는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둘째, Ama-Biz는 기업·창업 교육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교육 후 스타트업 지원, 졸업생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기업·창업 활성화에 기여함.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역 내외의 기업가들 간의 네트워크 만들기에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산업 활성화와 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함.
- 셋째, Ama-Biz는 ICT를 활용한 정보공유 및 홍보활동을 통해 활성화의 촉진을 도모함.
 - 지역주민이 지역의 경제·사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취급하고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행정과 중간조직체는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단계별로 성과를 주민과 공유해가는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임.

3. 전북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김남수 외, 2013, 고양시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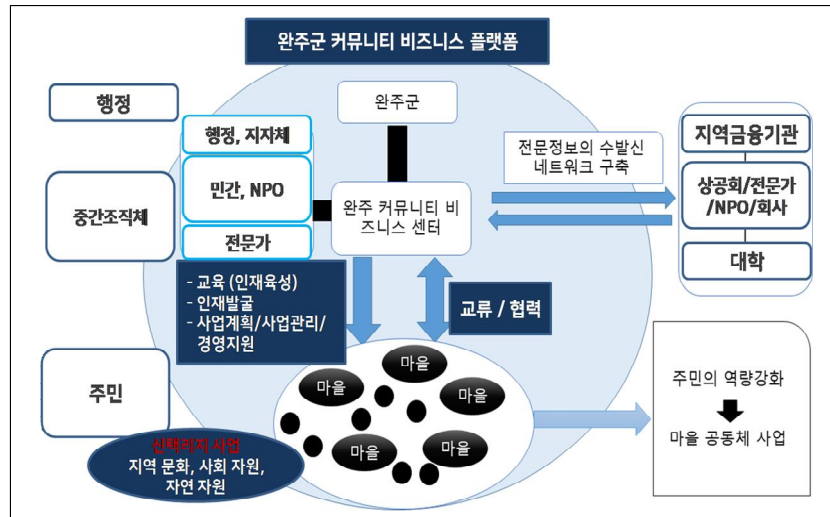
□ 지역 개요

- 완주군은 전라북도 전주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동쪽은 진안군, 서쪽은 김제시, 남쪽은 임실군과 정읍시, 북쪽은 익산시와 충남 논산시·금산군에 각각 인접하고 있음.
 - 현재 2개 읍, 11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경강 상류지역으로 산지와 평야의 접경지대이며, 서북 측은 호남평야의 시발점으로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완주군은 인구 8만 5,244명, 13개 읍면, 재정자립도 23%로서, 지난 10년간 완주군의 인구 변화율은 1.11%의 인구 증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8.0%로 인구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 특히 3개 읍면은 혁신도시, 소도읍 육성, 첨단과학단지가 있지만, 10대 농·산촌 지역은 고령화율 46%, 농가비율 80%,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절반에 가까운 43.27%이며, 도매 및 소매업은 전주시 28.21%에 비해 매우 낮은 7.62%를 차지하여, 완주지역 상권이 이미 상당부분 인근지역의 같은 생활권이자 통학권인 전주지역으로 이동함.

□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개요

- 전국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중심으로 추진함.
-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마을 또는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 완주군의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크게 공동체 조직역량을 강화시키는 업무와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
 - ‘조직역량 강화 업무’는 사업 초기단계의 공동체부터 전문교육이 필요한 공동체까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필수과정, 운영 실무과정, 실습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모니터링 업무’는 공동체가 사업에 필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사업의 유형과 시기에 맞는 방식으로 일상적인 관리업무(회의 정례화, 역할분담, 전문가 연계 등)를 담당하고 있음.



- 전북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맛있는 마을은 9곳, 멋있는 마을은 11곳, 파워빌리지 3곳,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공동체 7곳, 참살기좋은 마을 11곳, 마을기업 2곳, 두레농장 2곳, 예비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공동체 5곳 등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안덕마을 파워빌리지 사업을 들 수 있음.
 - 민속한의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운영되는 건강힐링체험마을이라는 컨셉으로 체험과 건강힐링교실을 운영함.
 - 안덕마을은 마을주민들의 출자를 통해 중앙지원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초기 자본을 마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건강힐링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
 - 웰빙식당을 운영하여 마을주민의 일거리를 창출
 - 마을주민 전체에게 수익금을 배당하고 있으며, 마을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을주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음.

4. 시사점

-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사람-물건- 정보)을 발굴하여 중간지원조직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연계시켜 다양한 지원기능을 통해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유도하였음.
- 완주군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예산-생산자-소비자가 상호 네트워크화 되어 활발하게 전개한 사례임.
- 완주군은 지역커뮤니티센터(중간지원조직)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어나 주주로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공과 수익성이 함께 담보되는 사업들이 나타남.
 -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들과 지역 노인들로 구성된 '마더쿠키 사업단', 지역농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인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임.
- 니치난초 로직 모델은 행정주도의 톱다운 접근과 주민 주체의 보텀업 접근, 행정과 지역주민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주민주도에 대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존재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유효하게 작용함.
 - 니치난초 로직 모델은 지역역량 강화에 있어서 중간조직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개발 전문가를 포함하는 중간조직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니치난초 로직 모델 프로젝트는 중간조직체와 마을주민 간의 교류·교육 프로그램인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역량 강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중간조직체와 실행주체(주민)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
- 아마쿠사시 사례에서는 Ama-Biz와 같은 중간조직체가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창업역량을 강화한 사례이며, 그 결과 기업(起業)을 배워서 사업을 스타트하는 지역 내외의 젊은이들이 매년 50인씩 증가하는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아마쿠사시의 사례는 중간지원조직이 창업교육을 통해 지역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생 간의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등 어촌재생기반형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례임.
- 위의 두 사례는 중간지원조직체에 전문가(대학)가 참여함으로써 지역 역량 강화를 달성하였으며, 중간조직 활동으로 인해 주민참여와 전문가 협력네트워크가 달성된 형태임.
-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체(협의체)를 활용한 교육·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와 협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역량 강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시점이 매우 큰 사례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인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사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에 대해 주목할 만함.

-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사람-물건-정보)을 발굴하여 중간지원조직이 가진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연계시켜 다양한 지원기능을 통해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유도함.
- 완주군의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크게 공동체 조직역량을 강화시키는 업무와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

○ 위의 3개 커뮤니티 비즈니스 플랫폼 사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① 지역공동체사업에 있어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간지원조직의 존재는 필수적인 지역공동체사업의 요소임.
- ② 중간조직의 교육, 교류(네트워킹) 기능 활용방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 및 교류 기능을 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달성할 수 있음.

〈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요인

구분	완주군 CB	도토리현 니치난초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	NPO 다테아마 해변 감장단	와카사미카타고코 어업체협
네트워크 및 중간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생산-생산자-소비자가 상호 네트워크화 되어 활발하게 전개 •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어나 주주로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공과 수익성이 함께 담보되는 사업들이 나타남 •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들과 지역 노인들로 구성된 '미타쿠키 사업단', 지역농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인 '로컬푸드 쿠퍼미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임 • 완주군 "지역순환센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특색 있는 형태로 운영 • 완주군 중간조직은 공동체 조직역량을 강화시키는 업무와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의 연구자(전문가), 경제계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가 회의, 마을 내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지자체 직원으로 구성하는 작업 팀의 3개의 조직을 합쳐서 협의체가 중간조직으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쿠사신용금고, 상공회의소, 상공회 등과의 연계에 의해서 아마쿠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설민영(중간조직)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거점(Ama-Biz: 아마쿠사시 기업 창업·중소기업 지원센터)을 설립하고 아마쿠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기업이 모두에게 무류의 산업지원을 수행 • 교토대학 경영관리대학원과 연계하여 창업교육 추진 (중간조직을 통한 전문가 참여를 만드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다테아마시, 관광협회, 지역 어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체험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다테아마시, 관광협회, 지역 어협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어부 및 어협과는 자별화된 스포츠 사업 노하우를 가진 중간조직(NPO)의 관여가 성공에 유효한 역할을 하였음; 어업종사자 이외의 지역 외 인 재(중간지원조직)와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 어업종사자 이외의 지역 외 인 재와의 연계도 중요 • 노하우를 가진 NPO가 중간조직으로서 사업에 참여한 것이 성공요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협의 리더와 민박조합의 리더가 일치하는 지역의 특성으로부터 단기간 연계가 부담스럽게 추진됨(단체가 네트워크를 통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 관광협회가 체험객 수용의 창구업무 및 사업계획 등 전략부담 입안, 국내외로부터 고객유치영업을 실시하는 등 어협과 어협분담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각각의 사업에 전념하여 사업의 실시체계가 확립되었음



구분	완주군 CB	도토리현 니치난초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	NPO 다테아마 해변 감장단	와카사미카타고코 어업체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특화 사업 발굴 • 완주형 마을회사 모델과 완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하여 지역실정에 맞춰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고령화를 겨냥한 노인을 통해서 니치난초 로직 모델을 인 "30년 후의 니치난초의 모습 프로젝트"를 창설 • 전문가(전문가, 재계 대표자, 대학), 실행위원(마을 내 사 업자), 지자체 직원으로 구성 된 협의체는 중간조직체로서 마을주민 등과 교류를 도모하 여 마을주민 스스로가 대안주 체로 인식해서 마을 만들기를 위한 과제를 찾아내고 장래의 방안을 결정하는 기능을 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대학 경영관리대학원, 아마쿠사시에 있어서 풍부한 지역자원 및 관광자원을 이용 한 고용창출, 산업 및 관광진 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아 마쿠사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 을 목적으로 아마쿠사시와 공 동으로 2012년도부터 매년 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 고교생과 일반시민을 대상 으로 "아마쿠사다카라지마교 실(朝草宝島起業塾)"을 실시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경, 자연환경, 생활을 체험 자의 시점에서 지역자원으로 서 활용하고 새로운 지역산업 의 창출, 환경보전에 연계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창출된 전형 적인 사례로서 지역자원을 활 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요 인 중 하나임 ① 오키노시마 무인도 탐험, ② 체험 비자커밍(12/3467, TABICA 제공 체험사업3467 개 중 인기체험 랭킹 12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바다자원을 활용한 어 림이 체험사업 시작 (1990년에 270명에서 2009 년에 8,000명으로 체험객 증 가)
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회사 육성 추진 전 담부서 설치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커뮤 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장책이 있으며, 그것에 기 초해서 전문가 및 지자체 직원 등에 의한 협의체가 전략적으 로 구성 • 행정에 의한 완전한 톱다운(top-down)형도 아니고, 마 을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 는 완전한 보텀업(bottom up) 도 아닌 그 마을 특유의 역사· 문화·자연을 짜 넣은 하이브 리드형이므로 3차 간에 마을 만들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조직 운영에 참여함 • 행정에서 중간조직에 의한 아 마쿠사시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 지원 • 교토대학 경영관리대학원은 아마쿠사시와 공동으로 2012 년도부터 매년 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교생과 일 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마쿠사 다카라지마교실(朝草宝島起 業塾)"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으로서 흑자이므로 공적자금 지원 없음

구분	완주군 CB	도토리현 니치난초	구마모토현 아미쿠사시	NPO 디터아마 해변 감장단	와카사미카타고코 어업체협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이 공동체별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를 필두로 하는 중간조직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구축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구축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졸업생이 해마다 50인씩 증가. 창업교육 수료생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여 새로운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역량이 강화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졸업생이 해마다 50인씩 증가. 창업교육 수료생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여 새로운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종사자 이외의 지역 외 인 재와의 연계도 중요 • 바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자연체험 NPO로부터 체험프로그램의 폭이 넓어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협동조합, 민박조합, 관광 협회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리더(관광협회 회장)가 존재 • 민박 경영을 통해서 여기에 경 영 감각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성공요인임



부록2

실태조사 조사표

부록 2 실태조사 조사표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LISTID	※ NO

어촌뉴딜사업 조성사업관련 고용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의뢰를 받은 조사전문업체인 (주)아테나컴퍼니입니다.

본 조사는 어촌뉴딜사업 조성사업 관련한 고용영향 실태조사로서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보다 고용친화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단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해주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시간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사주관 : 한국노동연구원
- ▶ 조사기관 : (주)아테나컴퍼니

기본 정보

마을명		항구명	
광역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인천 ⑥ 광주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주요 활동	① 수산물 판매 시설 운영 ② 수산물 가공시설 운영 ③ 체험시설(짬뽕어 체험시설 등) 운영 ④ 숙박시설 및 식당운영 ⑤ 체험마을(갯벌 체험장, 낚시터 등) 운영 ⑥ 행사준비 지원 ⑦ 기타 (구체적으로 :)		

작성자 정보	성 명		부서 / 직위	/
	전화번호	(유선) (무선)	주요 직무	

면접원	성 명		면접일시	/
-----	-----	--	------	---

I. 일반 현황

① 예 **② 아니오**

(마을 법인이 없이 수익사업을 진행하려는 어촌계 정리)

① 예 ② 아니오 → 문4-1로 이동

※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
 ※ 외부업체에 운영 위탁을 준 경우도 포함
 ※ 해당되지 않는 경우 '0'명 혹은 '0'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운영 여부	연간 총 이용객		
		2016년	2017년	2018년
갯벌 체험장		명	명	명
남시터 체험장		명	명	명
특산물 판매장		명	명	명
수산물 가공업		명	명	명
숙박(민박)시설		명	명	명
회센터 등 음식점		명	명	명
해양레포츠 시설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문1-3-2. 연간 총 매출액 (연간 총 매출액)

구분	운영 여부	연간 총 매출액(백만원)			입장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갯벌 체험장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원	원	원
낙시터 체험장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원	원	원
특산물 판매장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산물 가공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숙박(민박)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회센터 등 음식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해양레포츠 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기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총 이용객 : 체험장, 낙시터, 특산물 판매장, 숙박시설, 편의시설(음식료 등)과 관련하여 기관을 방문한 인원 수

* 매출액 : 이용객이 관람료, 교육비, 식음료비 등으로 지불한 이용료 총계

문1-4. 향후 3년 간(2020~2022년) 귀 지역의 연평균 이용객 증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이용객 감소 | ② 0~10% 미만 증가 |
| ③ 10~20% 미만 증가 | ④ 20~30% 미만 증가 |
| ⑤ 30% 이상 증가 | |

문1-5. 향후 3년간(2020~2022년) 귀 지역의 연평균 어업 외 소득 증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감소 | ② 0~10% 미만 증가 |
| ③ 10~20% 미만 증가 | ④ 20~30% 미만 증가 |
| ⑤ 30% 이상 증가 | |

Ⅱ. 인력 및 고용 현황 관련 설문

문2-1. 귀 지역의 현재의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투입인력 및 해당분야 별 투입 인력현황 바탕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 투입인력이 있을 경우 O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의 고용현황, 어촌뉴딜사업과는 무관함)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되는 경우 'O'로 표시해 주십시오.)

※ 아래 표의 1-14의 모든 문항에 투입인력 없는 경우

Ⅲ. 고용여건 현황관련 질문으로 이동

구분		투입 인력 여부	투입인력 현황 (투입인력이 있는 경우)					
			인력해당 여부 (해당 √ 표시)	어촌계장, 사무장 외 기타인력	유급/무급		유급인력 월 급여	
사무 관리	1. 어촌계의 사무장 또는 간사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사업 관련 지원	2. 체험프로그램 진행 지원 및 시설관리 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3. 해수욕장 운영 지원 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4. 해양레저시설 운영 지원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5. 숙박시설 운영 지원 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6. 회센터(식당, 레스토랑)운영 지원 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7. 캠핑장 운영 지원 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8. 특산물 판매장 판매 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9. 수산물 가공업 생산 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10. 해양레저시설 안전교육강사(인스트럭터)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체험 프로 그램 기획	12. 체험·생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마케팅 홍보	13. 여행 상품기획 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14. 여행객 유치전략, 홍보마케 팅 인력	① 있음	어촌계장	명	유급		월	
		② 없음	사무장		무급		만원	

문2-2.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현재 귀 어촌의 운영 중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있어서 인력부족 여부와 부족한 경우 대략적인 부족 인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부족 인원 여부
1) 사무 관리	① 부족인원 있음(명) ② 부족인원 없음
2) 체험 프로그램 기획	① 부족인원 있음(명) ② 부족인원 없음
3) 홍보 마케팅	① 부족인원 있음(명) ② 부족인원 없음
4) 체험 프로그램 진행 지원	① 부족인원 있음(명) ② 부족인원 없음
5) 특산물 판매, 음식점 서비스 지원	① 부족인원 있음(명) ② 부족인원 없음
6) 숙박시설 서비스 지원	① 부족인원 있음(명) ② 부족인원 없음
7) 기타()	① 부족인원 있음(명) ② 부족인원 없음

참고. 고용업무 분야 참고자료	
업무분야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체험프로그램 기획	어촌 관광상품 기획, 체험 프로그램 기획, 행사 콘텐츠 기획 등 담당
사무 관리	경영기획, 경영정보, 자산관리, 인사·노무관리, 회계·재무 등 담당
홍보 마케팅	마케팅, 국내영업, 홍보(PR/IR), 고객지원(call center)
사업 관련 지원	단순 사업 시행 지원 업무로서 체험프로그램 진행 시, 안내 및 안전관리 등 지원 업무 담당, 특산물 판매장의 판매원, 음식점에서 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관련 지원 업무 등

문2-3. 귀 지역의 현재 체험장 또는 낚시터 또는 수산물 가공판매 시설 또는 회센터(식당, 레스토랑) 운영 시, 사업과 관련하여 인력 부족이 있는 경우, 직종별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각 직종별로 1개만 선택하십시오.

보기 \ 직종	사무 관리	마케팅 홍보	관광 프로그램 기획	사업 관련 지원		
				체험 프로그램 지원	수산물 판매, 음식점 지원	숙박 서비스 지원
취업지원자가 없음	①	①	①	①	①	①
지원자 중 직무능력을 갖춘 자가 없음	②	②	②	②	②	②
열악한 근무여건 환경	③	③	③	③	③	③
해당 직종의 장기 발전가능성이 낮음	④	④	④	④	④	④
낮은 임금	⑤	⑤	⑤	⑤	⑤	⑤
소재지의 지역적 여건 때문	⑥	⑥	⑥	⑥	⑥	⑥
공동체 사업 주체(어촌계)의 경영 등 내부 사정	⑦	⑦	⑦	⑦	⑦	⑦
인력확보가 어렵지 않음	⑧	⑧	⑧	⑧	⑧	⑧

문2-4.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현재 귀 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조 및 운영 인력
의 업무 분야별 현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참여 인력이 여러 직무를 수행
하는 경우, 주 업무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마을 전체 인구 현황	사업 참여 인력 현황
	연령별 인구	연령별 근무 인력
20-29세	명	명
30-39세	명	명
40-49세	명	명
50-59세	명	명
60세 이상	명	명
합계	명	명

문2-5. 귀 마을에서 사업운영 시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업무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체험프로그램 기획 ② 사무관리
 ③ 홍보마케팅 ④ 사업 관련 지원
 ⑤ 기타(세부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_____)

Ⅲ. 고용여건 현황 관련 질문 (전체응답)

□ 고용형태 참고자료

고용형태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경우 (고용계약기간)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1. 상용직	1년 이상	① 회사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②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받는 경우
2. 일용직 (아르바이트, 기타)	1개월 미만	③ 매일 고용되어 일급 혹은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받는 경우 ④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3. 임시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	①,②,③,④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계약하여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문3-1. 귀 지역 또는 단체의 사업 운영상 투입 인력 중 청년층 인력의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유형	상용직	임시 일용직	합계
청년층(15~34세) 채용인원수	명	명	명

※ 청년층은 15~34세 연령을 의미함

※ 사업 참여 인원이란, 현재 마을에서 운영 중인 어업외 생산활동(체험시설 운영, 체험프로그램(갯벌 체험장, 낚시터 운영), 수산물 판매장 운영, 화센터(식당, 레스토랑), 숙박시설 등)운영 등의 운영인력으로서 종사하는 것을 말함

문3-2. 귀 지역 또는 단체의 사업 운영상 투입 인력 중 여성 인력의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유형	상용직	임시 일용직	합계
여성 채용인원수	명	명	명

문3-3. 귀 지역 또는 단체의 사업 운영상 투입 인력 중 고령층 인력의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유형	상용직	임시 일용직	합계
고령층 채용인원수	명	명	명

※ 고령층은 55세 이상의 연령을 의미함

문3-4. 귀 지역 또는 단체의 사업 운영상 투입 인력 중 학력별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구 분	전체 종사자수	사무관리	마케팅 홍보	체험프로그램 기획	사업 관련 지원
고등학교 졸업 이하	명	명	명	명	명
전문대학 졸업	명	명	명	명	명
대학교 졸업	명	명	명	명	명
대학원 졸업 이상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문3-5. 귀 지역 또는 단체의 사업 운영상 투입 인력의 1주일 당 평균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구 분	44시간 이하	45~48시간	49~52시간	53~56시간	57시간 이상
초과근로	①	②	③	④	⑤

문3-6.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귀 지역 또는 단체의 사업 운영상 투입 인력들이 1개월 중 야간근로를 하는 날은 평균 며칠 정도 입니까?

구 분	3일 이하	4~6일	7~9일	10~12일	13일 이상
야간근로	①	②	③	④	⑤

문3-7. 귀 지역 또는 단체의 사업 운영상 투입 인력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유형	상용직	임시 일용직
월평균 임금	원	원

문3-8. 다음에서 현재의 지역 또는 단체의 사업 운영상 투입 인력의 고용안정성 (고용형태의 상승)에 관한 의견 중 자신의 의견과 부합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주십시오.

※ 고용형태의 상승이란, 임시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또는 일용직을 임시직이나 상용직으로 고용형태를 개선시키는 것을 말함

- ① 사업의 특성상 고용형태의 상승은 어려움
- ② 고용형태의 상승은 가능하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매우 어려움
- ③ 고용형태의 상승은 가능하지만, 정부의 고용 촉진 지원이 있으면 가능
- ④ 고용형태의 상승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음

문3-9. 현재의 지역 또는 단체의 사업 운영상 투입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 의견 중 자신의 의견과 부합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사업특수성에 의해 자체 교육/훈련이 필요하여 적절히 제공 중이다.
- ② 사업특수성에 의해 자체 교육/훈련이 필요하나, 회사 사정상 미제공 중이다.
- ③ 사업이 특수하지 않고 필요한 수준의 인력을 고용하기 용이함
- ④ 사업이 특수하지 않지만 필요인력 확보가 어려워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문3-10. 현재의 지역 또는 단체의 사업운영상 투입인력의 근로안전수준에 대한 다음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하나 고르시오.

- ①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 ② 안전확보에 필요한 설비비용 부족으로 근로자 안전 미확보
- ③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규모/교육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 안전 미확보
- ④ 사업안전을 위한 제반예산의 전체적 부족으로 근로자 안전 미확보

문3-11. 고용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귀 지역(마을)의 상황과 부합하는 것을 하나 고르시오.

- ① 정부의 경제적 지원으로 사업참여 잔류인원을 늘릴 수 있다.
- ② 사업참여 잔류 인원을 늘릴 수 없지만, 타 실업대책으로 큰 문제는 없다.
- ③ 사업참여 잔류 인원을 늘릴 수 없으므로 실업대책이 매우 절실하다.
- ④ 정부가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⑤ 관련 분야 특성상 사업참여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필연적이다.

문3-12. 귀 지역은 2018년 한 해 동안 사업 참여 인력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3-13으로** ② 아니요 **문3-14로**

문3-13. (문3-12의 ① 번 응답자) 귀 기관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실시하거나 지원한 훈련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사업별 맞춤형 교육
- ② 교육기관으로 전문가 육성 교육 수강
- ③ 협회, 전문가에 의한 역량강화 교육
- ④ 서비스 직무관련 교육 지원
- ⑤ 수탁 및 협력업체에 기술지도
- ⑥ 브랜드 개발, 홍보 관련 전문가 교육
- ⑦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 ⑧ 지역 내 직무 관련 모임 지원
- ⑨ 기타(세부 상술_____)

문3-14. (문3-12의 ② 번 응답자) 귀 지역에서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다
- ② 교육훈련이 필요하지만 교육훈련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훈련 시킬 여력이 없다
- ③ 교육훈련이 필요하지만 인력부족으로 교육훈련 인원 차출이 어렵다
- ④ 교육훈련을 받은 숙련인력이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다
- ⑤ 교육훈련과 숙련인력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 ⑥ 교육훈련에 대한 근무자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
- ⑦ 기타 (세부 상술_____)

Ⅳ. 정부로부터 어촌 지원사업 참여

문4-1. 귀 지역은 정부로부터의 어촌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어촌지원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여촌·어항 관광조성사업, 일반농사어촌사업 등, 어촌마을 생활기반시설 구축 지원, 어항기반시설 구축지원, 체험관광사업 지원,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과 예산지원 사업

- ① 참여했음  문4-2로 이동
- ② 참여한 적 없음  V. 어촌뉴딜사업 참여 시 고용효과로 이동

문4-2. 귀 지역이 어촌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어촌관광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소득 획득, 수산물 판매소득 획득, 서비스업 체 운영 등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 ②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 유입, 청장년층 인구 증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 ③ 어촌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고유의 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 ④ 어촌관광을 통해 어촌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거나, 어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 ⑤ 기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술해주세요.

문4-3. 귀 지역 어촌지원사업으로부터 받으신 지원금의 연도별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금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문4-4. 해당 어촌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금이 없었다면 예상되는 귀 지역의 경제
적 사정에 대해서 항목별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크게 감소	감소	별다른 영향없음	증가	크게 증가
어촌관광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어촌지역 정주여건, 인구유입	①	②	③	④	⑤
어촌지역 소득	①	②	③	④	⑤
지역고유의 문화를 보존계승 및 발전	①	②	③	④	⑤
지역인지도 상승	①	②	③	④	⑤

문4-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대해 가장 큰 애로요인이 무엇입니까? (3개
까지 복수 응답 가능)

- ① 복잡한 서류작성 ② 현장의견 반영 미흡
③ 지원정보 부족 ④ 부실한 지원혜택
⑤ 아쉬운 점 없음 ⑥ 법규제 제약 등 관련규제
⑦ 기타()

문4-6.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①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귀어·귀촌지원
- ②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③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④ 사업완료 후 사업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사업주체의 경영 운영체계로 발전 지원
- ⑤ 사업 운영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운영 지원조직의 지원
- ⑥ 기타 ()

문4-7. 정부 지원을 통한 어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업운영 주체의 사업운영 능력 부족
- ②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검토 부족
- ③ 지역주민 간 의견 수렴이 어려움
- ④ 사업운영 주체의 경영마인드 부족
- ⑤ 사업운영 주체의 사업시설 관리 능력 부족
- ⑥ 유능한 신규 인력 확보 곤란

V. 어촌뉴딜사업 참여 시 고용효과에 대한 설문 (전체 응답)

문5-1. 어촌뉴딜사업의 사업에 참여 시, 사업 운영 관련 신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답해주시시오.

- ① 사업운영 관련 신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어려움 (☞ 문5-1-1로)
- ② 사업운영 관련 신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원활함
- ※ 사업운영 관련 전문인력: 마을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장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영 전문인력을 의미함

문5-1-1. (문5-1의 ①번 응답자) 사업 운영 관련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촌계원 중에서 전문인력 육성
- ② 정부로부터 지원조직 형태로 전문인력 지원을 받음
- ③ 우수한 업체 유치를 통해서 전문인력 부족 극복
- ④ 기타(자유롭게 기술: _____)

문5-2. (모든 응답자 전체) 귀 지역의 어촌뉴딜사업 수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신규 고용 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O 표시하고, 해당 항목별로 예상되는 신규 고용 인력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규 고용	항목	추가신규채용 인원수(연중 채용 기간)
()	마을법인 사무장, 간사(경영관리 인력) 채용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	체험프로그램 진행, 지원, 시설 관리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	해수욕장 운영 지원, 관리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	숙박시설 운영 지원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	해양레저시설 운영 지원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	회센터(식당, 레스토랑)운영 지원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____(개월)

신규 고용	항목	추가신규채용 인원수(연중 채용 기간)
()	캠핑장 운영 지원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디자인정비, 홍보 마케팅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힐링센터 등 안내 및 지원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특산물 판매장 판매 인력 (쇼핑몰 관리, 온라인 마케팅 인력 포함)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체험·생태 프로그램 기획 개발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여행상품 기획 개발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여행객 유치전략 수립 등 홍보 마케팅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안전관리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클럽하우스 운영 관리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체험, 요리 체험 사업 등의 강사 및 운영지원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	창업지원으로 인한 창업 인력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전체 합계(중복되는 인력은 제외하여 합산)		전체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미취업자 신규 채용 인원: ____명 (개월)

문5-3. 지금까지 귀 지역의 사업 영역 중 더 좋은 일자리 혹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기여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지역에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기획 개발
- ② 주민 편의 시설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
- ③ 적극적인 주민참여
- ④ 주민 역량강화 교육
- ⑤ 경영 컨설팅 지원
- ⑥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⑦ 음식점, 숙박업 운영
- ⑧ 특산물 가공 판매
- ⑨ 기타(세부 상술_____)

문5-4. 어촌뉴딜사업 참여를 통한 어촌 활성화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내용의 사업들이 귀 지역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기여도(영향력)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평가방법>을 참조하시어 해당하는 번호위에 ○ 또는 ✓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작다	작다	보통이다	크다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 내용	기여도(영향력)				
최신의 쾌적한 편의시설 및 어항 인프라 확충	①	②	③	④	⑤
체험장, 뉴시터 등 해양레저시설 정비	①	②	③	④	⑤
친수공간, 공원 등 정비를 통해 마을 경관 개선	①	②	③	④	⑤
지역적인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사업 운영능력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 지원조직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홍보 마케팅 강화	①	②	③	④	⑤
우수한 기획인력(전문인력) 충원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확대	①	②	③	④	⑤
우수한 관련 업체들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사업운영의 전문화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동경영체(사업운영주체)가 전문 경영조직(기업형태)으로 발전	①	②	③	④	⑤

문5-5. 어촌뉴딜사업 참여시 다양한 사업들의 실행 가능성 여부는 내·외부 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내용의 사업들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또는 ✓로 표시해주시 바랍니다.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음	실행 가능성이 약간 낮음	보통이다	실행 가능성이 약간 높음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질문 내용	실행가능성 정도				
최신의 쾌적한 편의시설 및 어항 인프라 확충	①	②	③	④	⑤
체험장, 뉴시터 등 해양레저시설 정비	①	②	③	④	⑤
친수공간, 공원 등 정비를 통해 마을 경관 개선	①	②	③	④	⑤
지역적인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사업 운영능력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 지원조직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질문 내용	실행가능성 정도				
홍보 마케팅 강화	①	②	③	④	⑤
우수한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충원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 확대	①	②	③	④	⑤
우수한 관련 업체들의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공동경영체(마을기업)가 전문적인 경영조직(기업형태)으로 발전	①	②	③	④	⑤

문5-6. 귀 지역의 입장에서 다음의 내용들이 어촌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이나 고용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고용 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원 분야의 필요성의 크기에 따라 1점부터 5점을 부여하여 주십시오.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질문 내용	필요성				
어항인프라	①	②	③	④	⑤
생활기반시설	①	②	③	④	⑤
관광 인프라	①	②	③	④	⑤
해양휴양시설	①	②	③	④	⑤
생산유통 기반시설	①	②	③	④	⑤
숙박음식인프라	①	②	③	④	⑤
관광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교육 및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거버넌스	①	②	③	④	⑤
창업지원	①	②	③	④	⑤
주민참여 강화	①	②	③	④	⑤
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경영 지원조직 지원	①	②	③	④	⑤
전문 경영조직화	①	②	③	④	⑤

VI. 어촌뉴딜사업 참여 시 고용의 질 전망 관련 질문

문6-1. 귀 지역이 어촌뉴딜사업 참여할 경우, 귀 지역의 고용인원들의 다음의 고용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항목	응답	【응답 보기】
근로환경		근로시간, 야간근로, 이직 등 근로 여건이 해당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①매우 열악 ②열악 ③그대로 ④양호 ⑤매우 양호 ⑥해당없음
고용 안정성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해당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①매우 감소 ②감소 ③그대로 ④증가 ⑤매우 증가 ⑥해당없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해당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①매우 감소 ②감소 ③그대로 ④증가 ⑤매우 증가 ⑥해당없음
고용의 질		청년층 근로자(34세 이하) 고용이 해당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①매우 감소 ②감소 ③그대로 ④증가 ⑤매우 증가 ⑥해당없음
		여성 근로자 고용이 해당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①매우 감소 ②감소 ③그대로 ④증가 ⑤매우 증가 ⑥해당없음
		중고령 근로자(45세 이상) 고용이 해당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①매우 감소 ②감소 ③그대로 ④증가 ⑤매우 증가 ⑥해당없음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 수준이나 보험 가입 및 유급휴가 등 복리후생이 해당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①매우 낮음 ②낮음 ③그대로 ④높음 ⑤매우 높음 ⑥해당없음
교육과 훈련		업무나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이 해당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①매우 부족 ②부족 ③그대로 ④충분 ⑤매우 충분 ⑥해당없음
건강 및 안전		직업적 건강 관리나 안전한 작업 환경이 해당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①매우 열악 ②열악 ③그대로 ④양호 ⑤매우 양호 ⑥해당없음
고용 지속 가능성		직원들의 고용 지속 가능성이 해당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①매우 낮음 ②낮음 ③그대로 ④높음 ⑤매우 높음 ⑥해당없음

Ⅶ. 어촌뉴딜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질문

문7-1. 어촌뉴딜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하에서 사업운영 실천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각 항목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1~5점까지 점수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음	준비되지 않음	보통	준비됨	잘 준비되어 있음
①	②	③	④	⑤

구 분	준비도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계획 : 지역자원활용 → 생산 → 마케팅·판매 과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명확히 설정함	①	②	③	④	⑤
지역자원 활용계획 : 지역자원을 중간재로 이용하거나 지역 생산품 이용한 중간재 등 소 득의 지역 내 순환을 구조 형성	①	②	③	④	⑤
수익이용계획 : 수익창출 → 생산예의 재투자 → 지역주민 투자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주민고용계획 : 지역주민의 생산 및 마케팅·판매과정에서의 고용을 구체화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문7-2. 어촌뉴딜사업 추진 시 운영주체의 특성을 해당사례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각 항목에 대해 현재 어촌뉴딜사업 운영주체의 특성에 부합 정도를 1~5
점까지 점수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부합하지 않음	부합하지 않음	보통	부합함	매우 부합함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부합도				
어촌뉴딜사업의 운영주체는 전문적인 경영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사업 지향목표	지역 이미지 구축과 지역 간의 교류증진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가치 실현	①	②	③	④	⑤
사업 운영방식	생태 및 대안여행 상품 등 여행상품 판매이다	①	②	③	④	⑤
사업 협력체계	지역 외부와 협력관계를 통한 외부 기업과의 연계방식	①	②	③	④	⑤
마케팅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박람회 참가, 오프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①	②	③	④	⑤

문7-3. 어촌뉴딜사업이 미치게 될 고용효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분	매우 적다	적다	보통	크다	매우 크다
1) 더 많은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2) 더 좋은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 더 좋은 일자리란 해당 영역의 기존 일자리보다 더 좋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보수, 고용안정성, 교육훈련 등에서 기존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문7-4. 어촌뉴딜사업이 미치게 될 고용효과에 대해 향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1~10% 미만 ② 11~20% ③ 21~30%
 ④ 31~40% ⑤ 40% 이상

문7-5. 어촌뉴딜사업을 통한 지역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사업을 통한 지역 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이나 전제조건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 긴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촌뉴딜 조성의 고용효과

▪ 발행연월일	2019년 12월 18일 인쇄 2019년 12월 28일 발행
▪ 발 행 인	배 규 식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 판 · 인 쇄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제13-155호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260-0339-6 (비매품)